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9 vol.330

06

커버스토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전
빛의 화가들展

오페라 연출가 이의주의 백 스테이지 오페라
나의 흑역사…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숨기고 싶었던 첫 번째 피가로 이야기

유럽 박물관 기행
구스타프 클림트의 키스가 있는 그곳
벨베데레 궁전(Schloss Belvedere)

부산시립교향악단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1962
SOO-YEOUL CHOI, ARTISTIC DIRECTOR & CHIEF CONDUCTOR

부산시향의 미완성 음악회

BPO OPEN REHEARSAL CONCERT

제552회 정기연주회
공개 리허설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2019. 6.12 Wed 7:30 PM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Medium Theater, Busan Cultural Center

말러 • 교향곡 제5번 中 아다지에토
Mahler • Symphony No.5 in C sharp minor, Adagietto. Sehr langsam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지휘 최수열 Soo-Yeoul Choi, Conductor

주최 부산문화회관
티켓 전석 5,000원 **예매** www.bscc.or.kr **문의** 607-3111~3(교향악단), 6074~5(정기회원)
할인 60% ▶ 정기회원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정 | 임산부 40% ▶ 학생(만24세이하) | 외국인 | 본공연(6.14) 예매자
셔틀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 대연역 5번 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 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 월~금, 공연 1시간전/30분전 (2회 운행)

부산시립교향악단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1962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52회 정기연주회

헌정

DEDICATION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2019. 6.14 Fri 7:30 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Main Theater, Busan Cultural Center

시벨리우스 • 바이올린 협주곡
Sibelius • Violin Concerto in D minor, Op.47

말러 • 교향곡 제5번 中 아다지에토
Mahler • Symphony No.5 in C sharp minor, Adagietto. Sehr langsam

라벨 • 「쿠프랭의 무덤」
Ravel • "Le Tombeau de Couperin", M.68a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지휘 최수열 Soo-Yeoul Choi, Conductor
바이올린 김봄소리 Bomsori Kim, Violin

주최 부산문화회관
티켓 R석 20,000원 • S석 15,000원 • A석 10,000원 • B석 5,000원 예매 www.bscc.or.kr 문의 607-3111~3(교향악단), 6074~5(정기회원)
할인 50%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디지너가상 임산부 20% ▶ 정기회원 학생(만24세이하) 외국인 ※단체(10~30%할인) 및 학생단체(3,000원권) ▶ 전화문의
셔틀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 대연역 5번 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 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 왕복, 공연 1시간전/30분전 (2회 운행)

문화공감

THE 69TH EULSUKDO MASTERPIECE CONCERT

임지영 & 매슈 리프먼
듀오 리사이틀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바이올린 부문 한국인 최초 1위 –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
세계적인 차세대 음악가 – 비올리스트 **매슈 리프먼**의 환상적인 듀오 리사이틀!

예술감독 | 김원명

- **W.A.모차르트**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듀오 제1번 G장조, K.423
- **H. 빌라로부스**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듀오, A.463
- **W.A.모차르트**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듀오 제2번 B-flat장조, K.424
- **B. 마르티누**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3개의 마드리갈 (듀오 제1번), H.313
- **J. 할보르센**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파사칼리아 (G.F. 헨델 모음곡 제7번 g단조 편곡)

2019.6.15.(토) 오후 5시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주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The Korean Cultural & Arts Centers Association 을숙도문화회관 주관 을숙도문화회관 금호아시아나 문화재단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학예술위원회 경성대학교 고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산대학교 신라대학교 인제대학교 예매 INTERPARK 티켓 http://ticket.interpark.com 1544-1555 | 입장권 1만원 |

무대감독 | 이순재 조명감독 | 박병주 음향감독 | 서종칠 | 을숙도문화회관의 '명품콘서트'는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의 일환으로 사업비 및 일부를 문예진흥기금으로 지원 받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공연문의 051) 220-5805

Sun&Fun Hae Undae 해운대 문화회관 HAEUNDAE CULTURAL CENTER

통일신라 말기의 학자이자
뛰어난 문장가인 **최치원[崔致遠].**
난세를 산 최치원의 삶을 그린 해운대연가!

10 문화동행 10년, 시민이 함께 하겠습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구름 위를 걷는 자

창작 뮤지컬

해운대연가

같은 하늘 같은 공간에서 인간은 어찌
이리도 다른 삶을 살게끔 정해진 것인가
최치원의 대사 中

2019.7.3수 ~ 7.6토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평일 저녁 8시 | 주말 오후 5시

제작 Sun&Fun Hae Undae 해운대 문화회관 주최 Sun&Fun Hae Undae 해운대 문화회관 아트레볼루션 주관 아트레볼루션 후원 한국문학예술위원회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티켓 VIP석 4만원 / R석 3만원 / A석 2만원 예매처 인터파크 문의 해운대문화회관 051.749.7651

총제작감독 **김성모** 연출 **박정우** 총괄PD **구자민** 음악감독 **천정훈** 작곡 **박정우, 이진실** 편곡 **이민정** 안무감독 **정호준** 조연출 **박소민** 무대감독 **이현우** 음향감독 **전성환** 조명감독 **이재철** 분장 **배아영** 소품 **이효선** 의상 **박선미**

출연진 최치원 - **한규정**, 위홍 - **김효영**, 진성여왕 - **전혜주**, 부호부인 - **박인화**, 예겸 - **박준성**, 최언위 - **김범수**, 최윤 - **박재현** 앙상블 남자 **김정환, 이대희, 최호윤, 박문현, 손민수, 김경민, 김민종, 최현우, 주성오, 정진민** 앙상블 여자 **이태경, 정소희, 최예나, 김수휘, 김영은, 김은혜, 김리라**

해운대뮤지컬볼루션, 해운대뮤지컬오케스트라

* 본 공연은 2019년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사업비를 지원 받아 개최됩니다. *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문화가 있는 날

(재)부산문화회관과 함께 하는 마티네 콘서트 시즌 5

오페라 이야기 Ⅲ

오전에 펼쳐지는 오페라 아리아의 향연! 유쾌한 해설로 명품콘서트를 선보입니다.

2019. 6. 26. (수)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연주
콰르텟 엑스

소프라노 **박현진**

테너 **홍지형**

피아노 **김가람**

G. Verdi
베르디
(1813 - 1901)

[선착순 이벤트]
음료와 빵을
무료로 드립니다.

리골레토
Opera <Rigoletto>

이 여자나 저 여자나지
Questa o quella

그리운 그 이름
Caro nome

여자의 마음
La donna è mobile

라 트라비아타
Opera <La Traviata>

축배의 노래
Libiamo ne' lieti calic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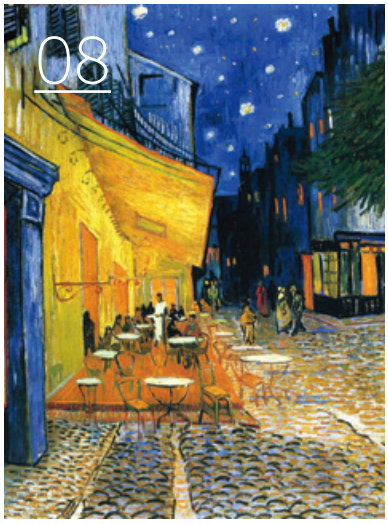
이상하다! 이상해! 아, 그인가...
E strano! e strano! Ah, forse lui...

파리를 떠나서
Parigi, o cara

주최. 부산문화회관 BUSAN CULTURAL CENTER | 부산일보사 협찬. SHINSEGAE BUTYHEE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www.bscc.or.kr 문의. 051) 607-6000 / 6075(정기회원) 전석 10,000원

|할인안내| 50% 장애우 (1~3급 동반1인, 4~6급 본인) / 국가 · 독립유공자 본인 / 의사상자 본인 및 가족 20% 단체 20명 이상
1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회원등급별 매수제한 있음) / 초 · 중 · 고 · 대학생 / 다자녀 가족 (자녀 3명이상 등재가족) / 문화예술인패스 소지자 본인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본 프로그램 및 연주자는 사정에 의해 예고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6 2019 June

월간문화예술정보지

부산문화회관의 정보를 담은
QR코드입니다.

2019년 6월호 통권 330호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
Tel. 051 607 6000
발행인 이용관
편집인 황해순
편집위원 동길산(위원장), 권은영, 이상헌, 정두한, 정봉석, 채영희, 홍동식
편집주간 서정환
편집 정복엽
발행일 2019년 5월 25일
디자인·제작 디자인글꼴

08 COVER STORY
(재)부산문화회관 기획전
빛의 화가들展

14 SCHEDULE
6월 공연캘린더

18 INTERVIEW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신임 예술감독 김정수

20 BACKSTAGE OPERA
나의 흑역사…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숨기고 싶었던 첫 번째 피가로 이야기

22 MUSEUM OF EUROPE
구스타프 클림트의
키스(Kiss)가 있는 그곳
벨베데레 궁전

26 TRAVEL WITH YOU
우리나라 근현대사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대구 근대문화골목 투어

32 PREVIEW

40 ISSUE
반려동물전 '너는 나에게…'
2019년 제15회 부산국제무용제

44 REVIEW

50 PROGRAM GUIDE
프로그램 가이드

65 NEW BOOK
새로 나온 책

66 COLUMN
극장장의 손 편지

68 BSCC NEWS
(재)부산문화회관 소식

(재)부산문화회관 기획전

미디어 아트로 만나는 인상주의 거장들

모네, 고흐, 고갱, 마네, 르누아르, 드가, 세잔
부산문화회관에서 만날 수 있는
인상주의 거장 7명의 영혼의 그림들
초대형 파노라마 캔버스에 영상으로 펼쳐지는
미디어 아트전

전시구성

zone 1 인상주의에 대하여
zone 2 모네의 정원
zone 3 반 고흐와 폴 고갱
zone 4 인상주의의 대가들
zone 5 체험공간
zone 6 그랜드 피날레

6.8(토) - 9.29(일)

부산문화회관 전시실

※ 관람시간/오전 10:30~오후 7:30
(오후 6:30 입장마감, 월요일 휴관)

일반 1만2천원, 청소년 9천원, 어린이 7천원

※ 얼리버드 티켓 40% 할인
(6월 7일까지 판매, 6월 30일까지 사용가능)
※ 정기회원 30% 할인(본인 포함 4매까지 가능)
※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문화롭데이 50% 할인

(재)부산문화회관 607-6170

인상파,
빛이 가득 담기다

GS 더스트릿 갤러리 수석 큐레이터 **강지연**

인상주의(Impressionism)는 19세기 중, 후반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일어난 회화운동이었다. 르네상스 시대로부터 시작되어 이어져 내려오던 전통적인 회화기법을 거부하고, 20세기 현대미술의 전환점을 열어준, 근대 서양미술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미술사조라고 할 수 있다. 과거와 현대의 미술을 바꾸는 중요한 시기의, 바야흐로 혁명적인 유파, 그것이 인상주의-인상파라 불리운 사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은 전통적인 회화기법을 거부하고 색채·색조·질감 자체에 관심을 두며 빛과 함께 시시각각으로 움직이는 색채의 변화 속에서 자연을 묘사하고, 색채나 색조의 순간적 효과를 이용하여 눈에 보이는 세계를 기록하려 하였다. 그들은 다시 말해 캔버스에 빛을 담는 것을 시도한 첫 번째 화가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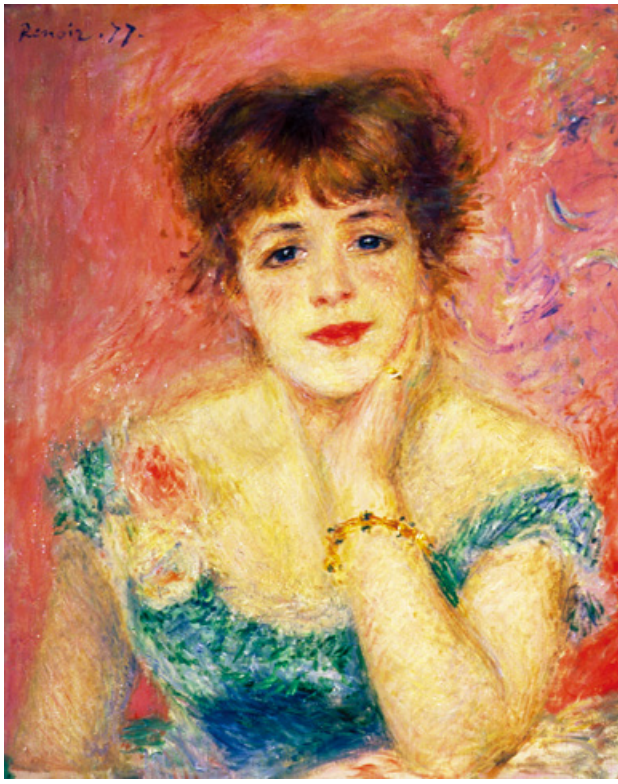
이렇듯, 인상주의는 회화에서의 재현적인 혹은 사실적인 묘사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음을 입증해주는 하나의 사건이었다. 그 전까지 전통적인 아카데미 화풍을 이어오던 미술사조는 산업혁명을 통해 과학이 발전하고 사진기가 발명되자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데, 사람들이 더 이상 초상화나 실제를 모사한 그림들에게서는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더불어 이 때, 기차와 튜브형 물감이 발명되면서 화가들은 실내가 아닌 밖으로 이젤과 물감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었고, 집 안이나 스튜디오가 아닌 더 먼 곳으로 가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과학 발전은 인상주의 화가들의 탄생과 궤를 같이한다. 인상주의 화가들은 직접 야외로 나갔고 그들이 본 풍경의 빛과 색채에 감동했으며 그것들의 인상을 화폭에 담아 사람들과 교감하고자 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은 당시의 관람객들에게는 그리 큰 환영을 받지 못했다.

"참으로 인상적이다. 벽지 장식이 이 그림보다 완성도가 높다니…". 1874년 살롱 전시회에서 당시 비평가 루이 르루아는 모네의 그림 '해돋이'를 보고 이런 악평을 남겼다. 그러나 그의 말에서 비롯된 인상주의라는 명칭은 차츰 거의 모든 화가들이 보편적으로 지향하는 화풍으로 자리잡았으며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아 그들의 작품은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작품이 되어있었다.

빛, 그 빛이 가득한 풍경과 그 안의 사람들

빛을 중요하게 여겼던 인상주의 화가들이 표현한 소재들은 캔버스에서 사람들과 소통하기 시작했으며 화가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들이 본 광경의 아름다움을 담아 작품을 완성했다. 인상주의자들은 도시의 일상뿐만 아니라 프랑스 시골의 눈부신 햇살 아래, 수시로 변화하는 풍경을 직접 화폭에 담아 생동감과 친근감을 주게 된다. 이렇듯 인상주의라는 이름을 가진 그들이 느낀 작품들에는 빛이 가득 담겨 있었다. 인상주의가 서양미술사에서 대중에게 가장 많이 알려지고 애호되는 화풍으로 자리잡기까지는 긴 시간이

르누아르 '사마리 부인의 초상'



필요하지 않았다. 더불어 인상주의 화가들이 창조해낸 그들 각각의 독특한 기법들은 후세 화가들에 의해 새롭게 재구성되어 현대미술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6월 8일에 개막하는 '빛의 화가들'展은 인상주의를 태동하게 만든 장본인들이자 20세기에 들어 다양한 형태의 현대미술이 탄생하게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화가 중 일곱 명–모네, 고흐, 고갱, 마네, 드가, 르누아르, 그리고 세잔의 주요 그림들을 영상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고독한 사유와 감각의 일치를 보여준 세잔, 아름다운 무희들의 순간의 몸짓을 화폭에 담은 드가, 여유로운 상류층의 일탈을 표현했던 마네, 아름다운 여성의 빛나는 순간을 세련되고 우아한 필치로 그려낸 르누아르, 순수한 원시 자연 속에서 영원한 유토피아를 꿈꾸었던 고갱, 그리고 인생의 아름다운 시절을 오롯이 담아낸 모네까지…. 인상파를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일곱 명의 화가들은 모두 그들이 그 순간에 느낀 그들만의 인상을 작품 안에 표현했다. 그들은 일상의 생생한 빛을 밝은 색으로 묘사하며 인상파 운동을 주도한 화가들이었다. 그리고 인상주의 화가 중 유일하게 프랑스 출신이 아닌 네덜란드 사람, 빈센트 반 고흐. 그는 프랑스 남부의 아를(Arles)에 정착하여 고갱과 함께 화가들의 예술공동체–유토피아를 꿈꾸었으나, 2개월만에 그의 모든 꿈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된다. 평생을 정신질환으로 고통 받으면서도 불타는 예술혼으로 그림 그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반 고흐는 그 자체가 빛이었다.

전통 방식에서 탈피한 인상주의 화가들의 표현 방식과 빛을 가득 담은 그들의 화풍들은 미술사에 있어 혁명 같았던 시도들이었으며 이후 프랑스의 야수파와 독일의 표현주의 등 현대미술의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 혁명이 있어야 역사는 발전한다고 했다. 미술사에 있어 혁명은 빛과 함께 찾아왔으며 그 빛은 불꽃이 되었다. 그 빛의 태동. 그 태동의 빛을 담은 작품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한다. 미술이 단지 보여지는 것에서 탈피하여 보는 사람과 작품의 교감이 만들어졌던 시점. 거기에 인상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시작이 미비하고 무시와 경멸 속에서 싹을 피웠어도 그들이 주도한 빛의 혁명은 커다란 변화의 물줄기가 되어 미술사조를 발전시켰다.

그런 그들의 처음과 마지막을 담아낸 전시 '빛의 화가들'展

인상파 화가들의 원화가 작품 그대로의 감동을 순수하게 전달한다면 미디어 아트는 좀더 영리하게 작품 속에 숨어있는 감정들, 감흥들을 교감시킨다. 그렇기에 관람자들은 보다 생생하게 작품 속에 숨어있는 '또 다른 가치', 즉 작가와의 감정을 교감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미디어전의 방식이야말로 그 어느 전시보다 인상파 화가들을 이해하고 느끼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어줄 것이다. 작품과의 교감은 인상파 화가들이 추구했었던 목적과도 완벽하게 부합하며 우리가 반드시 느끼고 알아야 할 인상파 화가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번 '빛의 화가들'展 을 통해 일곱 명의 인상파 화가들이 표현한 그들만의 빛을 담아내는 방식이 충분히 교감되길 바라며 미술사조의 한 획을 그었던 인상파의 처음과 더불어 그들의 끝까지… 그리고 그들의 인생에서 빛나던 날개짓을 느껴보시기 바란다. 거기, 빛이 가득 담긴 곳에 마음을 담그시기 바란다.

가로 30m, 세로 3m의 긴 파노라마용으로 재구성한 반 고흐의 '사이프로스가 있는 밀밭'

‘미디어 아트’로의
회귀(回歸)

(주)명선 콘텐츠사업 본부장, 미디어 아트 연출가 **이기성**

고갱 ‘해바라기를 그리는 반 고흐’

‘빛의 화가들’展 이라는 제목 뒤에 붙은 ‘미디어 아트로 만나는 인상주의 거장들’이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 이번 전시는 인상주의 작가들의 작품을 원작이나 모작 전시처럼 벽에 그림을 걸어 관람객들에게 선보이는 전시가 아닌 영상을 통해 그림을 선보이는 전시이다. 우리가 흔히 미디어 아트 전시라고 부르는 이 장르는 영상 기기를 통해 보여지기 때문에 비디오 아트라고 불리기도 하고, 컴퓨터를 통해 영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디지털 아트의 범주에 속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관람객들에게 미디어 아트라는 명칭은 ‘명화 작품을 영상으로 재구성하고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모션을 추가하여 배경 음악과 함께 감상하는 전시’로 통용된다고 할 수 있겠다.

2014년,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반 고흐, 10년의 기록전’이 대성황을 이루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미디어 아트 전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원화 전시가 오래전에 그려진 그림을 실제로 볼 수 있다는 설레임과 감동을 준다는 점과는 달리, 미디어 아트는 실제 그림보다 몇 배는 확대하여 붓 터치 하나하나를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고, 다양한 영상 기법과 효과를 통해 영화나 뮤직 비디오를 보듯 부담없이 관람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미디어 아트 전시가 보다 많이 진행될 수 있는 토양이 되어 주었다.

그렇지만 미디어 아트 전시를 기획, 연출하는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수익적인 측면을 간과할 수 없는 데다, 아직은 공연이나 놀이공원, 지역 축제 등 다른 문화 장르에 비해 적은 시장 규모와 관객층을 고려하다 보니 미디어 아트 전시는 좀 더 색다르고, 새로운 시도를 통해 관객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영상을 통해 작품을 보여주는 방식보다는 그림속의 장면들을 조형물로 만들어 그림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구성 등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라이프 스타일에 적합한 형태의 전시로 바뀌어 가는 양상이다.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은 짧은 시간 동안에, 영상으로 작품을 재구성하여 보여주는 전시는 이미 유행이 한참 지난 과거의 전시가 되어 버렸고, 전시장을 찾은 관객이 멋지게 차려입고 그림 속의 공간에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꾸며 놓아야 잘 기획된 전시, 관객이 찾아오는 전시인양 드라마나 영화 세트같은 공간 연출에 심혈을 기울이는 형태로 변질되고야 말았다.

더욱 심각한 상황은 위에 언급한 상황들마저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이며, 아직 광역시에서 미디어 아트 전시가 진행되지 않은 곳이 존재하고, 기초자치단체급은 전무한 실정이다. 필자가 서울에서 미디어 아트 전시를 진행할 때, KTX를 타고 서울에 와야만 미디어 아트 전시를 볼 수 있다고 투덜대던 지방 관객이 꽤 있었다. 다행스러운 점은 지난 해 말에 오픈한 제주 빛의 벙커 ‘클림트전’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구식이 되어 버린 미디어 아트 전시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는 것이다. 오로지 영상과 음악만을 통해 구

성되어진 전시를 보며 미디어 아트 전시의 본질을 새롭게 체험한 관객들이 늘어나고, 온라인과 모바일 매체를 통해 전파되면서 우리나라에서 복고풍의 미디어 아트 전시가 다시 유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빛의 화가들'展의 전시 구성에 있어서 가장 주안점을 둔 점으로는, 지방 문예회관내 전시장에서 진행되는 미디어 아트 전시를 위한 기본적인 플랫폼을 형성하는 부분이다. 이번 전시의 총괄 프로듀서인 테디 킴(Teddy Kim)은 '지방에 거주하는 관객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우수한 문화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다양한 연령대의 관람객들이 전체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항온, 항습 및 보안 시설을 잘 갖추고 있어야 해외 미술관이 소장한 원화를 국내로 들여와서 전시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지방 소재의 미술 전시장이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해결된다고 해도 금전적인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지방의 전시 공간에서는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사실은 문화 예술계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완전히 넘어서는 문제일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미디어 아트는 관람객의 요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으로는 공공의 성격을 가진 문화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에 대한 부분이다. 미디어 아트 전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영상 장비 부착을 위해 벽체나 천장을 타공해야 하고, 빛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상이 투과되지 않는 공간은 검은색으로 도색을 하는 등 기존 공간에 대한 상당한 부분의 변형이나 훼손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빛의 화가들'展은 공간에 대한 변형이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도 미디어 아트 전시가 주는 감동을 최대한 끌어 올리는 첫 계기가 될 수 있을 걸로 기대한다. 이번 전시를 준비하는데 힘써 주신 모든 분들께, 특히 부산문화회관 측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빛의 작곡가, 음악의 색을 그리다

음악 칼럼니스트 **류태형**

'빛의 화가들' 전시에 사용할 음악을 추천받았을 때, 내게 떠오른 작곡가는 너무도 자명했다. 그들은 '빛의 작곡가들'이라 부를 수 있는 '끌로드 드뷔시'와 '모리스 라벨'이었다. 모든 걸 떠나 클래식 음악 애호가들에게 프랑스 음악을 대표하는 두 작곡가만 들어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드뷔시와 라벨을 선택할 것이다.

전통적인 작곡 기법에서 탈피해 현실에서 얻은 인상을 주관적으로 표현하는 인상주의를 음악에 성공적으로 도입한 주인공은 드뷔시였다. 1889년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드뷔시는 인도네시아 자바의 가믈란 음악을 접하고 충격을 받았고 1893년부터는 솔렘 수도원에서 그레고리오 성가를 연구한다. 프랑스의 시인 말라르메의 배려에 힘입어서 '화요회'에 참석하여 피에르 루이스 등 상징파 시인들과도 친해졌다. 드뷔시는 인상파 그림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1889년에 드뷔시는 좋아하는 화가로 모네를 들었다. 이후 드뷔시는 멜로디와 하모니, 리듬의 정연한 양식에 의한 음악을 버리고 새로운 음악적 표현을 창안했다. 인상파 회화의 수법에 알맞은 이른바 '인상주의 음악'이었다. 그림에서 빛을 중시하듯이

'빛의 작곡가들'이라 불리는 라벨(좌)과 드뷔시(우)

음악에서 감각을 중시한 것이다.

새로운 감각을 위해서는 새로운 조성이 필요했다. 그리하여 드뷔시는 대담한 화성을 쓰게 되었는데, 1894년 말라르메의 시에 곡을 붙여 작곡한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 전주곡'은 새로운 음악 양식으로서의 인상주의를 수립한 역사적인 작품이었다. 자연의 순간적인 인상을 포착해낸 예술인 인상주의는 선이 명료하지 않고 불분명하지만 유현하고 신비스런 기분을 시적인 흐름으로 표현한다. 프랑스적인 예술이며 감각적인 묘사의 기술과 극적인 표현을 도구로 삼은 드뷔시는 바그너 이후 가장 새로운 음악의 시작을 선언했다. 드뷔시가 확립한 인상파 음악은 음악사에 새로운 시금석이 되었다. 이어진 라벨과 더불어 프랑스 음악은 근대음악의 질적인 최고봉에 서게 된다.

라벨은 드뷔시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인상주의 음악의 중심에 있었지만, 그만의 독특한 감성의 멜로디를 사용한 부분이 드뷔시와 차별된다. 그래서 드뷔시의 후계자이면서도 새로운 음악의 방향을 제시한 개척자로도 평가받는다. 드뷔시의 음악이 심미안적 예술을 추구함으로 다소 모호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면, 라벨은 고전적이고 이지적인 성격의 소유자로서 형식과 리듬을 중시하여 더욱 뚜렷한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라벨은 프랑스 작곡가였지만 스페인 출신 어머니의 영향으로 스페인 음악의 향토색이 부합된 독특한 음악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스페인 공주의 죽음을 추모한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정밀한 오케스트레이션으로 스페인의 정서를 다채롭게 담은 교향시 '스페인 랩소디', 아름다운 춤곡 '하바네라', 하나의 멜로디로 변화무쌍한 관현악의 아름다움을 보여준 스페인 춤곡 '볼레로' 등이 프랑스와 스페인의 민속적 정서가 융합된 대표곡들이다. 1917년 사랑하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어머니를 그리며 아름다운 추모곡 '쿠프랭의 무덤'을 작곡한다.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조국인 프랑스의 작곡가 프랑수아 쿠프랭의 위업을 찬양한 것으로 현대적인 수법으로 중세풍의 고전적 정취를 살린 아름다운 곡이다.

관현악의 대가로 불린 라벨은 러시아 지휘자 쿠세비츠키로부터 무소르그스키의 피아노 곡 '전람회의 그림'을 오케스트라 곡으로 편곡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화려한 관현악의 기법이 돋보이는 곡을 완성했다. 프랑스 금관악기의 찬란함이 빛나는 관현악 편곡은 원곡인 피아노판을 뛰어 넘는 예술성으로 세상의 찬사를 받았다. 그는 자기 피아노 원곡들도 대부분 관현악곡으로 편곡, 원곡 판과 관현악 편곡 판이 존재하여 간혹 청중들을 혼동시켰지만 완성도나 예술성에서 모두가 뛰어났다. 동일한 작품도 차원을 달리하며 표현할 때 떠오르는 미감… 이것이 라벨 음악의 매력이다.

고흐 '론강의 별이 빛나는 밤에'

드뷔시와 라벨 이전에도 음악에서 인상주의 미술 같은 시도가 있었다. 다름아닌 변주곡이다. 미술에서 빛에 따라 눈에 들어오는 사물의 모습이 변하지만 사물은 원래 그대로인 점을 떠올려보자. 이는 음악에서 변주곡과 비슷하다. 리듬이나 선율을 달리했지만 원주제의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변주란 한 번 나타난 소재를 반복할 때 어떤 변화를 가하여 연주하는 것을 말한다. 변주된 소재는 당연히 원형과 다른 상태에 있으나 원형과의 연결은 유지된다. 시시각각의 빛이 음악의 변주이고, 빛에 따라 달라지는 오브제가 음악의 주제라고 생각해보면 납득이 갈 것이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은 가장 대표적인 변주곡 중 하나다. 짧은 아리아 선율을 시작으로 30개의 변주곡이 뒤따르고 마지막 서른 두 번째에서 원래의 아리아로 끝맺는다. 우리가 동요로 알고 있는 '반짝 반짝 작은 별'은 원래 18세기 프랑스의 민요 〈아, 어머니께 말씀드릴께요〉라는 곡인데,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는 이 곡을 가지고 12개의 변주곡을 작곡하였다. 이번 전시에 위 두 곡이 사용된다. 두 곡 모두 피아노를 위해 만들어진 곡이지만 다른 악기를 사용한 버전을 선곡했다. 바흐 곡은 관악 4중주, 모차르트 곡은 플루트로 연주된다. 전시 관람을 하기 전에 피아노로 연주된 원곡을 미리 듣고 온다면 음악적 인상주의를 좀 더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6

2019 JUNE

부산문화회관

BUSAN CULTURAL CENTER
A SCHEDULE OF
PERFORMANCES

대 대극장 중 중극장 챔 챔버홀
야 야외광장 사 사랑채극장

표 공연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를 click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즉에 문의바랍니다.

SUN	MON	TUE
전시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전 '빛의 화가들'展 (미디어아트로 만나는 인상주의 거장들)** 6월 8일(토)-9월 29일(일) 일반 1만2천원, 청소년 9천원, 어린이 7천원 (재)부산문화회관 607-6170 ◈ 관람시간 오전 10:30~오후 7:30 (오후 6:30 입장마감, 월요일 휴관) 		
2 제7회 부산학생연합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사랑나눔음악회' 18:00 대 초대 부산학생연합오케스트라(010-9984-7169)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뮤지컬 '아빠!! 우리같이 놀자~'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3**	**4** 제11회 부산시 여성합창 페스티벌 17:00 대 초대/부산시여성연합합창단(010-3833-0621) UKO 특별연주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19:30 중 무료/UKO(988-3087)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뮤지컬 '아빠!! 우리같이 놀자~'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9 제22회 전국 유치원·초·중학생 무용경연대회 09:00 중 부산예술고등학교 무용교육부(515-8106)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뮤지컬 '아빠!! 우리같이 놀자~'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10** 2019 제36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09:00 대 중 챔 부산MBC(760-1094)	**11** 2019 제36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09:00 대 중 챔 부산MBC(760-1094)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뮤지컬 '아빠!! 우리같이 놀자~'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16 2019 제36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09:00 대 중 챔 부산MBC(760-1094)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뮤지컬 '아빠!! 우리같이 놀자~'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17**	**18** 금성하모니, 예그린합창단 합동연주회 '우리들의 노래' 19:30 중 초대/금성하모니(010-3588-2611) 바리톤 최성규 음반발표 기념 독창회 19:30 챔 전석 2만원/우리아트(010-5468-4658)
23 박나래 농염주의보 19:00 대 (주)컬쳐팩토리(010-4488-0707) 부산울산원음합창단 정기연주회 15:00 중 초대/원음합창단(010-3936-7757)	**24** 부산시립청소년 교향악단 제60회 정기연주회 피아니스트 김정원 초청 제6대 수석지휘자 이명근 취임연주회 '운명' 19:30 대 전석 2천원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607-3110)	**25** 비르투오조 야쿠티아 초청콘서트 19:30 대 5만원·3만원·2만원/부산문화(1600-1803) 에라토 앙상블 'Peace And Friendship' 19:30 중 3만원·2만원·1만원/지클레프(02-515-5123) 이기묘 바이올린 리사이틀 19:30 챔 초대/이기묘(010-7551-9339)
30 제45회 UKO 오케스트라 사랑나눔음악회 19:30 대 전석 2만원/UKO(988-3087) 김보연의 부산기획공연 네 번째 '소리판, 굿판' 18:00 중 김보연(010-6233-7948)		

WED	THU	FRI	SAT
			1 부산하모니합창단 제16회 정기연주회 19:00 대 초대/부산하모니합창단(010-2593-1651)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인형의 집 Part 2' 15:00, 19:00 중 4만원·3만원·2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뮤지컬 '아빠!! 우리같이 놀자~'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5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와 함께하는 통일음악회 19:30 대 초대(통일문화교류협회 홈페이지 선착순 예매) (사)통일문화교류협회(070-4191-0615)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뮤지컬 '아빠!! 우리같이 놀자~'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6** 미래의 거장 제16회 정기연주회 19:30 챔 초대/최미정(010-6401-8846)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뮤지컬 '아빠!! 우리같이 놀자~'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7** 제4회 동아대학교 음악학과 동아 피아노 앙상블의 밤 19:30 중 초대 동아대학교 음악학과(010-2333-2544)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뮤지컬 '아빠!! 우리같이 놀자~'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8** 2019 김범수 콘서트 'The Classic' 부산 19:00 대 14만3천원·12만1천원·9만9천원 (주)월드쇼마켓(1566-5490) 부산은 팟캐스트시대 14:00 중 XSFM(010-3080-0610) 알렉산드루 토메스쿠 초청 독주회 17:00 챔 전석 2만원/부산문화(1600-1803)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뮤지컬 '아빠!! 우리같이 놀자~'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12 2019 제36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09:00 대 중 챔 부산MBC(760-1094)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52회 정기연주회 공개리허설 '부산시향의 미완성 음악회' 19:30 중 전석 5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뮤지컬 '아빠!! 우리같이 놀자~'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13** 2019 제36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09:00 대 중 챔 부산MBC(760-1094)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뮤지컬 '아빠!! 우리같이 놀자~'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14**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52회 정기연주회 '헌정' 19:30 대 2만원·1만5천원·1만원·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제23회 부산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 고전에서 낭만까지 협주곡 이야기 19:30 중 무료/부산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890-2568)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뮤지컬 '아빠!! 우리같이 놀자~'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15** 2019 제36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09:00 대 중 챔 부산MBC(760-1094)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뮤지컬 '아빠!! 우리같이 놀자~'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19 테너 장진규 독창회 19:30 중 초대/장진규(010-3423-4790)	**20** 해군군악연주회 19:30 대 해군작전사령부(010-2690-1000) 단비올 남성앙상블 창단20주년 기념 제13회 정기연주회 '6월의 음악여행' 19:30 중 초대/단비올남성앙상블(010-2418-6468) 원영아, 김문주 피아노 듀오 리사이틀 '동행'19:30 챔 전석 2만원/아트뱅크코레아(442-1941)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신의 아그네스' 19:3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1**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기행 19:30 대 10만원·8만원·5만원·3만원 솔오페라단(1544-9373) 김성식 플루트 독주회 19:00 챔 김성식(010-3829-1781)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신의 아그네스' 19:3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2**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2019 노자와 베토벤 '고진감래 II' 17:00 대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박대성류 아쟁산조본존회 '활의 소리' 17:00 중 박대성류 아쟁산조본존회(010-5438-7600) 더 솔로이스츠 카메라타 제4회 정기연주회 19:30 챔 더 솔로이스츠(010-8503-000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신의 아그네스' 15:00, 18: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6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조성진 &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19:30 대 16만원·13만원·10만원·7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재)부산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마티네콘서트 시즌5 '오페라 이야기 III' 11:00 중 전석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7** Colorful Diva 19:30 대 8만원·5만원·3만원/예현드림(755-0682) 현대무용 '시선 1+1' 부산공연 19:30 중 전석 1만원 (사)트러스트무용단(02-879-0613)	**28** 부산시립합창단 제175회 정기연주회 '6월의 기억-전쟁과 평화' 19:30 대 전석 1만원/부산시립합창단(607-3116) 명화 속 클래식시리즈 IV 그림 읽어주는 베토벤 The Concert 'Manet&Monet 인상주의' 19:30 중 3만원·2만원 두손클래식엔터테인먼트(02-766-7623) 소아암 환아를 위한 음악선물 19:30 챔 초대 인제대학교 한가족음악치료연구소(055-320-3866)	**29** 소리연구회 소리 숲의 한국음악과 유럽음악 '그때 그곳에서' 18:00 챔 소리연구회 소리 숲(010-3233-0697)

6

2019 JU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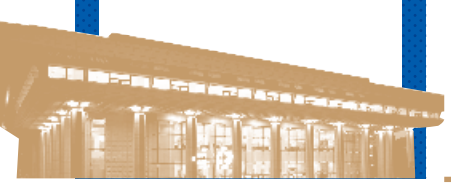
부산시민회관

BUSAN CITIZEN'S HALL
A SCHEDULE OF
PERFORMANCES

대 대극장 소 소극장 야 야외광장
전 전시장

표 공연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를 click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즉에 문의바랍니다.



SUN	MON	TUE
알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내진보강 및 개선공사로 6월부터 12월까지 대극장은 공연이 없습니다.** **문의** 부산시민회관(630-5200)		
2 **전국한필서예작가전** 전1·2 한필서예작가회(010-7756-5636)	**3** **전국한필서예작가전** 전1·2 한필서예작가회(010-7756-5636)	**4** **전국한필서예작가전** 전1·2 한필서예작가회(010-7756-5636)
9 **한국경석회 제33회 회원전** 전1·2 한국경석회(010-8541-9711)	**10** **한국경석회 제33회 회원전** 전1·2 한국경석회(010-8541-9711)	**11** **한국경석회 제33회 회원전** 전1·2 한국경석회(010-8541-9711)
16	**17**	**18**
23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전 '반려동물전-너는 나에게' 전1·2 무료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32)	**24**	**25**
30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전 '반려동물전-너는 나에게' 전1·2 무료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32)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전 '반려동물전-너는 나에게' 전1·2 무료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32)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전 '반려동물전-너는 나에게' 전1·2 무료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32)

WED	THU	FRI	SAT
			1 제33회 부산청소년예술제 '청소년 꽃다발 만들기대회' 13:00 전1·2 부산꽃예술작가협회(612-2604)
5 전국한필서예작가전 전1·2 한필서예작가회(010-7756-5636)	6 한국경석회 제33회 회원전 전1·2 한국경석회(010-8541-9711)	7 한국경석회 제33회 회원전 전1·2 한국경석회(010-8541-9711)	8 한국경석회 제33회 회원전 전1·2 한국경석회(010-8541-9711)
12 한국경석회 제33회 회원전 전1·2 한국경석회(010-8541-9711)	13	14	15
19 오은영박사 토크콘서트 10:00 소 초대/넥스브레인(주)(02-3453-5180)	20	21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전 '반려동물전-너는 나에게' 전1·2 무료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32)	22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전 '반려동물전-너는 나에게' 전1·2 무료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32)
26 제70주기 백범 김구 선생 추모제 10:00 소 우리물산장려운동본부(255-8062)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전 '반려동물전-너는 나에게' 전1·2 무료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32)	27 가족뮤지컬 '쿠키맨' 10:00, 11:30 소 전석 1만5천원 극단 님비곰비(02-882-9001)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전 '반려동물전-너는 나에게' 전1·2 무료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32)	28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전 '반려동물전-너는 나에게' 전1·2 무료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32)	29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전 '반려동물전-너는 나에게' 전1·2 무료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32)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신임 예술감독 김정수

소정(小亭) 김정수, 1947년 부산 동구 수정동 출생, 국악사양성소(현, 국립중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국악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원을 거쳐 추계예술학교 국악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많은 국악인들을 배출해낸 국악계의 대부이다. 그런 그가 지난 5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신임 예술감독으로 선임됐다.

글 권은영_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교수, 본지 편집위원

첫 만남에 강성(强性)의 기운이 느껴지는 그에게 '작은 정자'라는 뜻을 가진 '소정(小亭)'이라는 소박한 아호(雅號)가 붙혀진 사연이 궁금하다. '소정(小亭)'은 김정수 선생의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었던 설곡(雪谷) 전효준(田孝準, 1913~2001, 중요무형문화제 제30호 남창가곡 예능보유

자) 선생이 지어준 것으로 자칫 사람들을 내칠 수 있는 그의 강한 기질을 보완하면서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을 겸비하라는 뜻이 담긴 것이라 한다. 그래서인가, 그의 소박하고 운치있는 정자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쉬어가고 풍류를 즐기는 가운데 다채로운 국악의 역사가 이루어져 왔다.

전통음악을 확장하고 오늘날 우리의 음악을 고민하면서, 창작음악의 지평을 연 '한국창작음악연구회', 대학생들에게 국악관현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동시 국악계의 걸출한 지휘자를 길러내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 '한국청소년국악관현악단', 청소년국악관현악단이 모태가 되어 성장한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은 김정수 예술감독의 음악행보를 연결짓는 주요한 단체이다. 순수 민간단체면서 한국 창작음악발전에 큰 역할을 한 이들 단체를 창단하고 주도해오는 과정에서 보여준 선생의 활약상에서 음악, 기획, 행정을 아우르는 그의 폭넓은 역량을 가늠할 수 있다. 그런 그가 '예술감독 추천위원회'의 압도적인 추천으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을 한 단계 발전시킬 적임자로 꼽힌 것은 반가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평생 전통음악에서 쌓아온 경험과 작은 지혜를 고향의 문화예술 발전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을 위해 헌신하려 합니다."

고향인 부산에서 음악인생의 마지막 결실을 보겠다는 김정수 예술감독은 전국 최대의 규모를 가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강점과 부산이라는 도시가 가진 개방성을 적극 활용하여 부산만의 레파토리를 만들고 쌓아가겠다고 한다. 그는 "'부산'과 '전통' 그리고 '현대'가 만나 삼위일체를 이루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예술감독으로서의 첫 번째 소임으로 생각한다"며 부산의 무형문화재를 적극 활용하고, 지역 역사사학자들과의 연계를 통한 탄탄한 컨텐츠의 구성과 지역 국악계의

젊은 작곡가에 의한 참신하고 작품성 있는 레파토리를 구상중이다.

"한국음악은 계속 변하고 있고 변화해야만 합니다. 세종대왕이 우리음악사에서 남긴 위대한 업적은 우리의 음악인 향악을 창제하여 중국음악 일색이던 당대의 궁중음악을 우리음악으로 채워나간 것입니다."

평생 '대금'과 '정악'을 함께한 김정수 예술감독은 음악적으로 철저한 전통주의자이면서 동시에 창작음악에 주도적 역할을 한 두 가지 면모를 갖고 있다. 단재 신채호는 역사적 행위의 연속성이 시대적 보편성으로 계승되면서 민족의 정체성이 생성된다고 보고 민족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 아(我)와 변하는 아(我), 항성(恒性)과 변성(變姓)으로 이루어지는데, 변하는 아(我)인 변성(變姓)이 타자와 만나면서 아(我)의 확장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선생은 우리음악에서의 항성(恒性)을 우리음악의 정신으로 본다. 변성(變姓)은 그 정신을 담아내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다른 음악, 다른 장르의 예술과 만나면서 경계를 넓혀나가는 것이라 말한다. 그의 상반되는 음악적 성향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정체성 찾기와 확장에 건강한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후 수석지휘자 선정에서부터 단원화합,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색깔 찾기 등 그가 예술감독으로서 당면한 과제들은 녹록치 않다. '숨 쉬는 한 나는 희망 한다(Dum spiro, spero)'고 했다. 새로운 것이 불가능해지는 지점은 바로 희망하기를 멈출 때뿐이다. 그러하기에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멈추지 않는 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오랫동안 희망해 온 것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산 바다가 보이는 작은 정자에서 울려 퍼질 새로운 우리음악이 지금부터 기대된다.

나의 흑역사…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숨기고 싶었던 첫 번째 피가로 이야기

이의주의 100자 스토리 '피가로의 결혼'

'세빌리아의 이발사' 편에서 피가로의 도움으로 로지나와 결혼을 하게 된 알마비바 백작은 어느덧 시간이 흘러 피가로의 아내가 될 수잔나에게 흑심을 품게 되고 그 백작의 계략에 맞서 피가로는 재치와 기지로 모든 역경을 물리치고 모두의 축복 속에 결혼에 골인하게 된다.

피가로의 결혼
(2015년 3월, 대구오페라하우스)

피가로의 결혼
(2016년 8월,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4년 전이 2015년, '세빌리아의 이발사'와 '피가로의 결혼' 두 작품을 하루걸러 하는 연작 프로덕션을 그야말로 '역사적'으로 성공적으로 마친 후 나는 특히 당시 '피가로의 결혼'에 대한 연구와 고찰을 무대에서 실현, 승화시킨 것에 대해 큰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사실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의 그 방대한 레치타티보(Recitativo)—노래를 대사와 같이 계속 말하는 것—들을 마스터 했다는 것이 참 좋았다. 대부분 상영시간이 길어서 커트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 한부분도 생략하지 않고 원전 그대로 공연을 했기에 그 의의는 더 컸었다. 내가 '잔니 스키키'를 하고 난 이후 극중 동선에 관한 부분에 자신감을 얻은 것에 더하여 '피가로의 결혼' 후 텍스트에 대한 고찰을 통해 극과 음악의 일치를 하는 나만의 노하우를 터득하게 되었던 것이다.

근질근질했다. 자랑하고 싶고, '피가로의 결혼'을 또 하고 싶었다. 그러던 차에 그해 여름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예술단체의 관계자가 마침 내게 '피가로의 결혼'을 커트 없이 다 공연 해봤냐고 물어왔다. 당연히 자신 있게 "저요, 저요!!!" 하는 마음으로 나는 할 수 있다며 그 작품의 의뢰를 흔쾌히 수락하고 그 다음해인 2016년 '피가로 어게인!'하게 된다. 냉정한 기준과 오디션을 통해 캐스팅을 하고, 연습하며 준비에 여념이 없을 때였다. 그때 당시 최정상의 오페라 가수들이 나의 디렉션을 받으며 서로 토론하고 연구하며 실습하는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시간이었다.

여러 과정들을 다 마치고, 공연 리허설을 하며 이번 공연도 성공적으로 해낼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객석에서 리허설을 진행하며 보고 있는데 무대 전환하는 시간에 캐스트 중 한명이 내게 "이번에 피가로가 몇 번째이신가요?"라고 묻기에 나는 당당하게 "세 번째"라고 답했다. 그러자 다시 "이의주 연출님은 늘 공연을 문제없이 잘 하셨죠?" 라고 묻는 것이었다. 나는 자신있게 공연하면서 실패했던 적은 없었다고 답했다. 그런데! 그 대답을 하자마자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2007년 12월, 서울의 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수도권의 한 대학에서 주최한 '피가로의 결혼' 첫 연출 공연에서의 나의 무대 전환 흑역사가 떠올랐다. 그것은 내가 아무에게도 얘기 하지 않았던 나의 비밀이기도 했고, 그때를 생각하면 할수록 10년 같았던 4분30초의 그 순간을, 그때의 그 처참했던 악몽을 이제 천천히 이 지면을 통해 처음으로 고백한다.

당시 국립오페라단의 상근 연출가로서 몇몇 학교에서의 부름을 받아 강의도 할 때였다. 서울 근교의 한 수도권 대학에

서 나에게 학생들을 위해 꼭 연출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는데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학교 작품 의뢰는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기에 바쁜 스케줄에서 시간을 쪼개어 없는 예산에서 나의 아이디어로 최고의 무대, 의상, 조명, 분장, 연출 제작진들과 더불어 학생들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만들어 주리라 다짐을 하며 최선을 다했다. 모든 준비가 잘 되어가고 있었고, 첫날 공연 1막이 시작되고 드디어 나의 어처구니없는 자만으로 인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피가로의 결혼'은 연출마다 물론 다른 경우도 있지만, 1막 피가로의 신혼방 등의 장면에서 2막 백작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쓸쓸한 백작 부인의 방으로 변화를 줘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국은 세트와 대소도구들의 다양한 전환이 있어야 하는데 나는 당시 각 막의 무대들을 마치 레고의 블록 만들기 콘셉트로 해놨기에 긴 전환 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다양한 컬러들의 조합을 만들고자 했었다.

그런데, 1막을 무대 조정실 안에서 조명감독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이다. 잠시 후 무대 전환 브레이크-1분30초-없이 2막 백작부인의 아리아 '사랑이여 내게 오소서(Porgi, amor)'의 긴 음악 전주 부분에서 끊김없이 시작해서 바로 연결을 할 수 있겠다고 나 스스로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무대감독에게 무전을 보냈다. 1막이 끝나면 곧바로 음악 진행을 해서 극장 배턴에 매달린 병풍 같은 무대를 다운시키면 될 거라고 했다. 이 무전을 옆에서 듣고 있던 조명감독이 내게 "리허설때 하지 않았는데 괜찮을까요?"라고 물었지만 나는 이미 '고고씽'이었다. 그야말로 한 치의 오차가 생기면 안 되는 것이었지만 자신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꼭 굳이 그럴 필요까지 없었는데, 그 놈의 객기가, 그 놈의 오기가 발동한 것이다. '난 국립 연출이니까' 남들과 다른 점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 객기가….

2막이 시작되는 음악에 무대 배턴 두 줄에 매달린 병풍 같은 큰 무대는 천천히 내려오고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정확한 포지션으로 다운되지 않고 이미 고정되어 있는 무대 세트의 옆모서리를 쾅하는 소리와 함께 부딪히게 되고 마치 그네 같은 그 무대는 위로 튀어 올라 그 높은 허공에서 나미의 노래 '빙글빙글'처럼 계속 돌고 있었다. 난 당시 그 장면을 보고 정말이지 '웃을까 울을까 망설였다네'라는 동요가 생각났다. 모두가 웃고 있는 가운데 백작부인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심각하게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고, 빙글빙글 무대는 계속 뎅굴뎅굴 돌면서 자리를 찾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었다. 그 곡의 시간이 4분 30여초였는데 그야말로 나에게는 10년, 아니 100년의 시간처럼 너무나 길게 느껴졌었다. 나의 패착의 원인은 1막이 내리고 커튼이 공기의 순환을 막은 상태에서-당시 겨울이었는데- 다시 막이 열리고 히터가 가득한 객석의 더운 공기와 막 뒤 무대의 찬 공기가, 물리시간에 배운 온도에 따른 공기 대류의 현상에 따라 바람을 일으켜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아!!! 아!!!….

그래도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4막의 피날레 해피엔딩 장면에서 모두들 박수를 치며 공연에 참여한 학생들과 지도교수들, 그 대학의 총장님까지 내게 연신 허리를 굽히며 자신의 대학에 이렇게 멋진 무대를 만들어준 내게 감사의 인사를 했다. 또한 무대감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수를 방지하지 못해서 나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나는 그냥 감사와 송구의 인사를 묵묵히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그때의 그 시간은 나의 오만으로 벌어진 일에 대해 나에게 침묵을 가르쳐준 교훈의 시간이었다.

그 무대 이후 나는 빠르게 신속하게 전환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각 막마다 무대전환을 여유롭게 하기 위해 관객들에게 다음 장면의 줄거리를 자막으로 안내 소개하며 지루하지 않게 함은 물론, 정확하고 안전한 무대 전환 방법을 추구하게 되었다. 아울러 리허설 때 하지 않은 시도는 절대 하지 않으며, 스태프들의 충고와 조언을 생각하고 생각하는 신중한 성격으로 변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렇게 12년 전의 나의 흑역사를 말하면서, 부끄러운 것보다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긴장된 나의 다짐으로 이 글을 마친다.

구스타프 클림트의 키스(Kiss)가 있는 그곳
벨베데레 궁전

글 김성민 부산대학교 외래교수, 유로자전거나라 교육팀장
사진 이상호 유로자전거나라 가이드

다양함이 공존하는 도시, 빈(Wien)

비엔나라는 영어발음으로 더 유명한 이 도시는 예전에는 빈도보나(Vindobona)라고 불렸는데(빈도는 마을이란 뜻이고 보나는 좋다는 뜻이다) 이 단어가 나중에 빈이라는 이름으로 변하게 된다. 도나우 강 서쪽에 위치한 빈은 서유럽의 길목으로 예전부터 상업의 중심지로 성장했고 이후 신성로마제국을 주도했던 합스부르크 가문의 수도가 되면서 급격한 발전을 이루게 된다.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은 결혼과 전쟁을 통해 다양한 민족들을 다스렸는데 그런 영향으로 19세기 말이 되면 외국인의 비율이 도시 인구의 30%를 차지했다고 한다. 다양성은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하는데, 빈이라는 도시는 이 다양성을 바탕으로 1차 세계대전(1914년~1918년)이 일어나기 전까지, 프랑스

1 벨베데레 궁전의 상궁
2 궁전 내부
3 벨베데레 궁전의 하궁

Schloss Belvedere

파리와 함께 문화예술이 가장 발전된 도시였다. 그리고 그 다양함이 공존하던 세기말 빈에서 활동했던 대표적인 화가가 구스타프 클림트(Gustav Klimt, 1862년~1918년)이다. 그리고 그의 대표적인 작품이 오늘 소개하는 벨베데레 궁전에 있는 '키스(Kiss)'이다.

클림트의 작품이 있는 벨베데레 궁전은 원래 북이탈리아의 토리노를 중심으로 발전했던 사보이아 가문의 왕자, 유진(Eugen)이라는 사람이 만든 궁전이다. 1752년 합스부르크 가문의 마리아 테레지아 여왕은 그 건물을 매입하고 이곳을 벨베데레 궁전이라 명했다(이탈리아어로 벨베데레는 전망이 좋다는 뜻이다). 이후 1775년부터 벨베데레 궁전은 황실 회화 전시장으로 사용되면서 지금에까지 이르고 있다. 궁전은 상궁(上宮)과 하궁(下宮)으로 나누어지는데 클림트를 비롯하여 주요 작품들은 상궁에 위치하고 있다. 상궁에는 한국

Gustav Klimxt

4 구스타프 클림트 作 '키스'
5 궁전 내에 전시되어 있는 '키스'
6 전시작품을 감상하는 관람객

어 오디오가이드도 있어 편리하게 감상할 수 있는데, 꼼꼼하게 보면 최소 2시간은 필요한 곳이다.

이 궁전을 만든 프린스 유진은 프랑스에서 태어나 군인이 되려고 했으나, 루이 14세의 반대로 꿈이 좌절되자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에 충성을 맹세하고 이후 유명한 장군으로 활약하게 된다. 그는 합스부르크뿐만 아니라 유럽세계에 큰 위협이 되었던 오스만과의 전쟁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고 태어난 나라였던 프랑스에 맞서 승리를 거두었으니 다양한 인재를 영입했던 빈이라는 도시를 잘 반영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구스타프 클림트와 키스

가난한 체코출신 노동자의 가문에서 태어난 클림트는 아버지가 금세공업을 하는 사람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미술에 소질을 보인 클림트는 동생 에른스트와 함께 정식으로 미술수업을 받게 되는데, 초기 클림트는 사실적인 그림을 기반으로 간혹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런데 30세가 되던 1892년, 아버지와 동생 에른스트가 죽음을 맞이하며 본격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1897년에는 클림트를 중심으로 20여 명의 화가와 건축가들이 모여 동맹을 결성했는데, 이들은 기존 아카데미

즘이나 관 주도의 전시회로부터 자신들의 예술을 '분리'시키려 했고 일명 '분리파(Secession)'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다. 지금도 빈 오페라극장에서 500미터 떨어진 곳에 분리파 건물이 있는데 음악과 미술의 결합, 체계적인 전시문화를 지향했던 그들의 정신을 느낄 수 있는 장소이다.

집에 있기를 좋아하고 고향에 대한 애착도 강했던 클림트는 생애 몇 차례 짧은 여행을 하는데, 특히 1903년 이탈리아의 라벤나에서 보았던 비잔틴 시대 모자이크의 찬란한 빛에 매료된다. 그 이후 자신의 작품 속에서 유리 조각의 세밀한 조합과 라벤나 장인들이 사용하던 재료의 화려함을 되살리려는 시도를 했다. 또 이때부터 몇 년간 금 소재를 많이 쓰면서 상징적인 그림들을 제작했는데 그 시절 최고의 작품이 바로 벨베데레 궁전을 대표하는 '키스'라는 작품이다.

작품 속에는 남녀가 하나가 되어 뜨거운 키스를 하고 주변의 찬란한 황금빛 색채와 기하학적인 문장들은 감상자들의 감탄을 자아낸다. 필자가 처음 이 작품을 보았을 때, 여러 가지 극단의 감정들이 동시에 느껴져서 좀 당황했던 기억이 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런 극단의 감정들은 100년 전 세기말 빈에서 활동했던 클림트가 느꼈던 감정이기도 했다. 세기말 빈은 희망과 절망이 공존하던 시대였다. 산업의 발전으로 생활수준이 상승하고 편리한 세상이 펼쳐졌지만, 반대로 프로이센과의 전쟁 패배(1866년)와 만국박람회의 실패(1873년)로 나라의 기운은 내려가기 시작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속에서 당시 빈의 남자들은 여성이라는 존재를 기쁨의 대상이자 두려움의 대상으로 느꼈는데, 예를 들면 여성과의 육체적 관계를 통해 기쁨을 얻을 수 있었지만 동시에 그녀로부터 성병을 얻거나 혹 그녀가 임신을 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었다고 한다.

'키스'라는 작품을 자세히 보면 대립된 요소가 공존한다. 대비되는 남성과 여성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 남성은 직사각형의 기하학적인 문장이고 반대로 여성은 둥근 원형의 문장이다. 이는 남성과 여성, 직선과 곡선으로 대비된다. 또한 기하학적인 문장들은 이성적인 것을 나타내지만 반대로 남녀가 밟고 있는 꽃밭의 화려한 색채는 감성적인 것을 나타낸다. 그림의 오른편 아래를 보면 꽃밭과 대조적인 심연의 낭떠러지가 있고 이것은 안전하고 아름다운 꽃밭과 어둡고 두려운 낭떠러지로 대비된다.

그 낭떠러지에서 아슬아슬하게 키스를 하는 남녀는 도대체 어떤 상황인걸까? 누군가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전, 여성을 구한 후에 하는 키스라고 말하고 반대로 이별 키스 후 그녀를 낭떠러지로 밀기 전의 모습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키스'라는 작품은 극단의 존재를 한꺼번에 느꼈던 세기말 빈의 시대정신을 가장 잘 대변한 작품이라 할 수 있겠다.

전문성과 다양성

프랑스의 조각가 로댕은 화가 클림트가 회장으로 있는 빈 분리파의 초대를 받고 빈을 방문한 다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한다.

"여기 당신들 나라에서 풍기는,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느낌을 이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극히 비극적이며 행복이 넘치는 당신들의 작품과 모습, 음악 그리고 당신들의 주변, 당신들 속에 있는 맑고 밝은 순진한 기쁨, 이것은 대체 무엇인가요?" 그때 화가 클림트는 "오스트리아"라고 짧게 답을 했다고 한다.

역사를 보면 시대정신을 잘 반영하는 사람이 결국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즘 가장 필요한 사람은 전공분야에 대한 탁월한 지식과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폭넓은 상식을 가지고 자유롭게 융합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클림트의 '키스'를 보며, 100년 전 그 다양함이 공존했던 시대를 느끼며 지금 현재를 바라보는 독자님들이 되길 바란다.

6

우리나라 근현대사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대구 근대문화골목 투어**

신록의 푸르름이 더해가는 5월 둘째주 금요일인 5월 10일,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과 떠나는 테마여행이 펼쳐졌다. 5월의 테마여행지는 우리나라 근현대사 흔적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대구광역시. 그중에서도 대구의 대표적인 테마 관광상품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근대문화골목투어'에 나섰다.

대구의 '골목투어'는 다양한 주제와 테마에 맞춰 대구의 역사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총 다섯 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날 방문하는 제2코스 '근대문화골목'은 골목투어를 전국 유명 관광지로 만든 가장 인기있는 핵심코스이다. 특히 '봄의 교향악이 울려퍼지는 청라언덕 위에 백합 필적에~'로 시작하는 가곡 '동무생각'에 등장하는 바로 그 청라언덕에서 진골목까지 이어지는 1.64km 가량의 비교적 짧은 구간으로, 100여 년 전 근대역사가 가장 잘 보존되어 있어 찾는 이들이 가장 많다.

두 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곳은 바로 '근대문화골목' 코스의 첫 출발지인 청라언덕. 이번 골목투어를 이끌어줄 두 명의 문화유산해설사 오춘희, 이성희 씨가 회원가족들을 반갑게 맞는다. 청라언덕에는 1899년 문을 연 영남지역의 첫 서양 진료소인 제중원(지금의 동산병원)과 앞서 1898년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지어진 대구, 경북지역 최초의 교회인 제일교회, 그리고 선교사들이 살았던 3채의 선교사주택 등 100여

1 3·1운동의 민족투혼을 느낄 수 있는 3·1만세운동길
2 대구의 '골목투어'는 다양한 주제와 테마에 맞춰 대구의 역사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총 다섯 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3 영원한 가객 김광석을 추모하기 위해 조성된 '김광석다시그리기길'
4 6·25전쟁 당시 대구를 배경으로 한 김원일의 동명소설을 문화공간으로 꾸민 '마당 깊은 집'

년 전 근대역사의 흔적이 잘 보존되어 있다. 그 정경 또한 아름다워 드라마 '사랑비', '각시탈', 영화 '오월의 신부', '모던 보이' 등의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특히 푸를 청(靑), 담쟁이 라(蘿), '푸른 담쟁이로 덮힌 언덕'이라는 뜻의 청라언덕은 1910년대 계성고등학교를 다녔던 작곡가 박태준이 당시 짝사랑했던 여고생을 생각하며 작곡한 '동무생각'으로 잘 알려져 있다. 아련한 첫사랑의 추억을 떠올리는 가운데 해설사의 선창으로 정기회원들이 부르는 '동무생각'이 청라언덕에 울려 퍼졌다.

이어 발길을 옮긴 곳은 인근에 자리한 '3·1만세운동길'. 90계단길이라고도 불리는 '3·1만세운동길'은 3·1운동 당시 만세운동을 준비하던 학생들이 일본군의 감시를 피해 몰래 지나다니면서 붙여진 이름으로 지금은 3·1운동 당시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골목길 벽에 부착되어 그날을 생생하게 증언해주고 있다. 특히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해인만큼 3·1운동의 민족투혼과 발자취를 엿볼 수 있어 회원들에

3

4

2

게 더욱 뜻깊게 다가왔다.

'3·1만세운동길'을 내려와 횡단보도를 건너면 서울 명동성당, 전주 전동성당과 함께 한국의 3대 성당으로 손꼽히는 대구 최초의 서양식 건물인 계산성당을 만날 수 있다. 로마네스크 양식의 아름다운 성당으로, 대구 지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1900년대 초기의 건축물이다. 계산성당을 나와 민족시인 이상화의 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가 새겨진 보도를 따라 가다보면 이상화 선생의 고택을 만날 수 있다. 이곳은 1939년부터 임종때까지 약 4년간 머물며 작품활동을 했던 곳으로, 이상화 선생의 유품이 전시되고 있다. 이상화 고택은 인근 지역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었지

5

6

5 대구 최초의 서양식 건물인 계산성당 내부
6 약령시한의학박물관에서 한방족탕체험을 하는 정기회원들

만 대구시민들이 고택보전운동본부를 만들어 지켜낸 대구 시민의 자존심과 같은 곳이다. 바로 옆에는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을 주창한 서상돈 선생의 고택도 자리하고 있어 함께 둘러볼 수 있다.

정기회원 가족들은 점심식사를 위해 인근 진골목으로 서둘러 발길을 돌렸다. '길다'라는 경상도 방언 '질다'에서 유래해 '긴 골목'이란 뜻을 가진 진골목은 인근 번화가와는 다른 대구의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현존하는 대구 최초의 양옥건물인 정소아과와 이제는 전국적인 명소가 된 미도다방을 만날 수 있다. 식당으로 가는 길에 소설가 김원일 선생의 동명소설을 문화체험 전시공간으로 꾸민 '마당깊은 집'에 잠시 들렀다. 선생의 자전적 소설로 유명한 '마당깊은 집'은 6·25 전쟁이 끝난 직후 대구를 배경으로 한 집에 세들어 살았던 주인공 길남이 가족을 비롯해 여섯 가구의 삶을 통해 그 당시 힘들었던 대구 피난민들의 생활상을 생생히 그려내고 있다. 올해 3월 문을 연 '마당깊은 집'은 소설 속 등장인물과 스토리, 대구 피난민들의 삶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한 전시관과 김원일 작가의 작업실을 재현한 작가의 방으로 꾸며져 있다.

평양식콩나물비빔밥으로 점심식사를 마친 회원가족들은 '대구 한방문화의 꽃' 약령시한의학박물관에서 오후 일정을 시작했다. 대구약령시는 조선 효종 9년(1658년)부터 이어져온 전국 3대 한약재 전문시장으로, 수 백년동안 일본과 중국, 러시아까지 한약재를 공급해온 한약재 유동의 거점지로 유명하다. 매년 봄에는 전국에 있는 한약재들이 거래되는 약시가 열렸고 가을에는 관청 소요 물품 등을 거래하는 영시가 열렸는데 이를 합쳐 일반적으로 '약령시'라고 불렀다고 한다. 약령시한의학박물관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400여 년 역사의 약령시와 약전골목의 어제와 오늘을 만날 수 있다. 전시관을 둘러본 회원들은 미리 예약했던 한방족탕체험을 가졌다. 국산 한약재를 넣은 42도 온도 탕에 발을 담고 있자 하체의 따뜻한 기운이 머리쪽으로 상승하면서 숨가쁘게 달려왔던 오전 일정의 피로가 말끔히 풀어진다.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따뜻한 쌍화차로 차 한잔의 여유를 즐긴 회원들은 박물관 맞은편에 자리한 에코한방웰빙체험관을 방문했다. 1966년에 건축된 이해영정형외과를 리모델링한 에코한방웰빙체험관은 환경과 한방을 테마로 한 전시 체험공간으로 지난 2011년 문을 열었다.

5월 대구 테마여행의 마지막 여행지는 영원한 가객(歌客) 김광석을 추모하기 위해 조성된 '김광석다시그리기길'. 대구 방천시장 옆에 조성된 '김광석다시그리기길'은 김광석의 모습과 노래가 그려진 벽화와 조형물을 따라 그의 노래들이 흘러나오면서 지난해에만 전국에서 100만여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찾을 정도로 전국적인 명소로 사랑받고 있다. 김광석과의 만남을 마지막으로 부산으로 돌아오는 길, 서른 둘 짧은 생이었지만 추억 속 노래로 여전히 기억되고 있는 김광석처럼 이번 대구 테마여행 역시 회원들의 가슴 속에 오랫동안 좋은 추억으로 기억될 것이다.

7.12 금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아리랑의 고장 밀양으로 떠나는 초여름 여행

영남 제일의 누각 영남루와 죽음으로 정절을 지킨 아랑의 넋을 기리는 아랑각, 그리고 평리산대추마을에서 즐기는 자연생태체험으로 밀양의 초여름을 느껴본다.

일정

08:30	부산문화회관 집결
10:00	밀양 영남루 도착, 탐방
12:00	점심식사
13:00	평리산대추마을 자연생태체험 (논메기잡기, 뗏목타기)
15:00	밀양댐물문화관 탐방
16:00	부산으로 출발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들은 신청엽서를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으로 보내주십시오. 당첨되신 회원은 동반 1인과 함께 여행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체험비 회원 부담)

| 신청방법 | 엽서 · 전화 · 홈페이지
|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 607-6073, 6076

06 월 테마여행 당첨자

신규 회원

김미향(해운대구 좌동순환로)
김영희(남구 분포로)
민지현(수영구 망미배산로)
박희선(수영구 남천동로)
안혜성(해운대구 센텀중앙로)
서종수(남구 황령대로)
임현경(사상구 백양대로)
전주현(부산진구 진남로)
정은영(기장군 정관읍)
채문식(남구 석포로)

기존 회원

김경애(남구 유엔로)
김명숙(해운대구 센텀중앙로)
김명옥(해운대구 해운대로)
김민선(남구 분포로)
김순자(남구 진남로)
남영숙(금정구 벽구산로)
안영수(금정구 중앙대로)
정례수(해운대구 마린시티로)
주유미(기장군 기장읍)
진현애(수영구 황령산로)

부산시립무용단
區 문화회관 순회공연

共感
춤의 공감

2019 6. 4 화 19:30 북구 문화빙상센터 공연장

2019 6.11 화 19:3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2019 6.20 목 19: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무용단 區 문화회관 순회공연은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區 문화회관들과 함께 만든 공연입니다.

주최 | 부산문화회관 BUSAN CULTURAL CENTER 주관 | 부산시립예술단, 북구 문화빙상센터, 을숙도문화회관, 동래문화회관 입장료 | 무료

문의 | 부산시립무용단 607-3121~2 북구 문화빙상센터 309-4084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동래문화회관 550-6611

Invitation

가온아트홀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663-5363
공간소극장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811-0040
글로빌아트홀	505-5995
금정문화회관	519-5651
더 무지카 아트홀	010-7191-2878
동래문화회관	550-6611
디코소극장	464-1996
레몬트리소극장	626-0116
무대공감	623-0678
무지크바움	070-7692-0747
미리내소극장	504-2544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14
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309-4087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예술회관	612-1372
부산햇살가득한날에	1899-3253
성원아트홀	1899-5435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1544-1555
소극장 6번출구	625-2117
소민아트센터	991-1100
솜사탕아트홀	922-4545
수아트홀	744-1415
신명천지소극장	515-7314
아트카페 움	557-3369
액터스소극장	611-6616
에저또소극장	852-9161
열린아트홀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3
영화의전당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612-4312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3
일터소극장	635-5370
자유바다소극장	441-2733
차성아트홀	723-7203
청춘나비소극장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621-4005
축제 소극장	661-6981
한결아트홀(구.가마골소극장)	1588-9155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효로민락소극장	623-6232, 245-5919
AN아트홀 광안	1600-0316
AN아트홀 서면	070-4175-9035
BEXCO 오디토리움	740-7300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KBS부산홀	620-7181
MBC롯데아트홀	1688-8998
SM아트홀	1600-1602

to the Arts

Preview

1

일시 6월 12일 수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전석 5천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6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52회 정기연주회 공개리허설
부산시향의 '미완성 음악회'

연주회를 앞두고 오케스트라가 실제 앙상블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음악회가 관객들을 찾아간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제552회 정기연주회 '헌정'을 이틀 앞둔 6월 12일, 연주회 리허설과정을 관객들에게 공개하는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부산시향의 미완성 음악회'는 무대에서 연주되는 음악회와 차이가 있는 실제 리허설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형식의 음악회로, 연주를 앞두고 단원과 지휘자가 자연스럽게 연습하는 모습을 통해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한편, 쉽게 접할 수 없는 리허설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어 색다른 즐거움을 느껴볼 수 있다. 이날 무대에서 최수열 예술감독과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은 제552회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중 한 곡인 말러 교향곡 제5번 중 '아다지에토'의 리허설 과정을 꾸밈없이 보여준다. 80여분 정도 진행되는 이날 공개 리허설에서 관객들은 정기연주회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준비되는지 스스로 관찰하며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이번 무대를 기획한 최수열 예술감독은 창의적인 프로그래밍 감각과 현대음악에 대한 탁월한 재능을 지녔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함께 고전부터 현대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매 공연마다 높은 관객점유율과 함께 큰 관심을 얻고 있다. 서울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를 역임하기도 한 최수열 지휘자는 지금은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브랜드 공연으로 자리매김한 리허설룸 콘서트, 창고음악회, 음악극장 등 새로운 컨셉의 콘서트를 개발, 성공시킨 바 있다. 최수열 지휘자는 "이번 무대가 공연 당일의 리허설 과정을 공개하는 일부 해외 오케스트라와는 달리 완성된 결과물이 아닌 연습단계의 모습을 볼 수 있어 흥미를 더할 것"이라고 밝혔다.

6월 14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52회 정기연주회 '헌정'은 예술감독 최수열이 지휘하고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히 활동하며 스타 바이올리니스트로 우뚝 선 김봄소리와 함께하는 무대로, '헌정'이라는 테마 속에 서로 다른 헌정의 사연을 지닌 세 곡을 만날 수 있다. 이번 공개리허설에서는 말러 교향곡 제5번 중 4악장으로, 말러가 알마에게 헌정한 사랑의 노래라고 일컬어지는 '아다지에토'를 만날 수 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52회 정기연주회
헌정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히 활동하며 스타 바이올리니스트로 우뚝 선 김봄소리와 함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52회 정기연주회 '헌정'이 6월 14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예술감독 최수열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헌정'이라는 테마로 서로 다른 헌정의 사연을 지닌 세 곡을 만날 수 있다. 우선 첫 곡인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은 그가 작곡한 유일한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근대 바이올린 곡 가운데 최고의 명작으로 꼽히는 작품이다. 전통을 탈피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시벨리우스 다운 독창성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바이올린이 아니면 불가능할 여러 표현들과 다채로운 기교들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 시벨리우스는 바이올린 협주곡을 보통 초연 당시 연주자에게 헌정하던 관습에서 벗어나 네 번째 연주자였던 헝가리 출신의 어린 비루투오소에게 헌정했다고 한다.

이번 무대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김봄소리의 협연으로 들려준다. 2013년 뮌헨 ARD 콩쿠르 우승과 현대음악상을 수상한 김봄소리는 2016년 제15회 비에냐프스키 국제콩쿠르 2위와 평론가상을 비롯한 9개의 특별상, 제15회 캐나다 몬트리올 국제콩쿠르 2위와 캐나다 라디오 피플스 초이스 상, 2015년 차이콥스키 국제콩쿠르와 퀸 엘리자베스 국제콩쿠르 입상 등 국제무대를 누비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김봄소리는 그동안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을 비롯해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 바르샤바 필하모닉, 몬트리올 심포니, 포즈난 필하모닉, 모스크바 심포니, NDR 라디오 필하모니, KBS교향악단,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천시립교향악단 등 국내외 유수 오케스트라와 협연했으며 금호 악기 수혜자로 선정되어 현재 금호 아시아나 문화재단으로부터 J. B. 과다니니 1774 Turin 바이올린을 지원받아 사용하고 있다.

두 번째 곡인 말러의 '교향곡 제5번' 중 '아다지에토'는 이 작품에서 가장 아름답고 유명한 4악장으로, 말러가 그의 아내 알마에게 헌정한 사랑의 노래라고 알려져 있다. 마지막 작품인 라벨의 '쿠프랭의 무덤'은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라벨이 전쟁에서 돌아온 1917년, 피아노독주곡으로 완성한 작품이다. 전쟁 중에 죽음을 경험한 라벨은 6곡 각각마다 전사한 동료에 대한 그리움과 경의의 뜻을 담아 그들에게 헌정하였고 1919년 프렐류드, 포를랑, 미뉴에트, 리고동 등 4곡을 관현악곡으로 편곡했다.

일시 6월 14일 금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Preview 2

Preview

3

일시 6월 20일-21일 목-금요일 오후 7:30, 22일 토요일 오후 3:00, 6:00 **장소**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존 필마이어의 '신의 아그네스'

파격적 소재와 더불어 인간과 신의 관계, 종교와 믿음에 대한 질문으로 초연 당시 큰 화제를 모았던 연극 '신의 아그네스'가 6월 20일부터 사흘간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에서 펼쳐진다.

특히 이번 무대는 지난해 8월, 사랑채극장 재개관 기념공연으로 무대에 올려져 부산 연극애호가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으로, 당시 연출을 맡았던 공연예술 전위 대표인 전승환이 연출하고 배우 송순임, 안이정, 김지현 등 세 명의 배우가 다시 한 번 호흡을 맞춘다. 원장수녀 역의 송순임은 부산시의회 의원을 역임했으며, 리빙스턴박사 역의 안이정과 아그네스 역의 김지현은 현재 배리어프리영상포럼 회장, TBN부산교통방송 MC로 각자 활동하는 등 독특한 이력으로 화제가 된 바 있다.

연극 '신의 아그네스'는 뉴욕의 한 수녀원에서 발생한 실화를 바탕으로 미국의 희곡작가 존 필마이어가 쓴 희곡작품이다. 당시 신예작가였던 존 필마이어의 '신의 아그네스'는 1979년 미국 최고 희곡상(The Great American Play Contest)을 수상한데 이어 1982년 브로드웨이로 진출해 롱런을 기록했으며, 1985년에는 그가 직접 각색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가 호평을 받으면서 작품성과 대중성을 모두 갖춘 현대의 고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국내에서는 지난 1983년 실험극장 초연 당시 최장기 공연, 최다 관객을 동원하며 당시 아그네스 역의 배우 윤석화를 스타로 만들었으며 이후 신애라, 김혜수, 차유경 등 쟁쟁한 여배우들이 아그네스 역을 맡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갓 낳은 아기를 목 졸라 죽인 수녀'라는 충격적인 소재를 바탕으로 한 '신의 아그네스'는 신과 인간, 믿음을 둘러싼 진지한 질문과 함께 섬세한 심리묘사로 '현대인의 성서', '여자들의 에쿠우스'라고도 불린다. 작품 속에서는 3명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알코올 중독자인 방탕한 어머니 밑에서 기형적인 과잉보호로 살아온 아그네스 수녀와 여동생이 수녀원에서 죽은 이후 신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닥터 리빙스턴. 그리고 신의 기적을 그리워하는 원장수녀 미리암이 그들이다.

연극 '신의 아그네스'는 주인공 아그네스와 그녀를 둘러싼 두 여인의 변화를 통해 이 시대의 기적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동시에 '기적이란 신과의 관계가 아닌 우리 삶 속에 존재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9 노자와 베토벤 '고진감래(苦進感來)'

클래식과 철학의 만남으로 많은 화제를 낳았던 '노자와 베토벤' 2019년 무대 '고진감래(苦進感來)' 두 번째 무대가 6월 22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2017년 '희로애락(喜怒哀樂)'에 이어 2018년 '고주망태(孤酒忘態)'로 현 시대의 고민과 문제에 대한 해답과 위로를 전했던 최진석 교수와 지휘자 오충근이 이끄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는 그동안 동양의 철학과 서양의 클래식이 함께하는 공감의 특별한 시간을 선사하면서 많은 마니아층을 형성해왔다.

올해 새로운 주제인 '고진감래(苦進感來)'는 원래는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苦盡甘來)'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뜻을 담고 있는 사자성어이지만, 이번 무대에서는 '고통 고(苦), 나아갈 진(進), 감동 감(感), 올 래(來)'의 뜻을 담아 '고통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 거기에 감동을 더하면, 미래는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라는 화두로 관객과 사유를 공유하며 시대 변화의 인문학적 시간을 마련한다.

대중과 소통하는 철학자로 명성이 높은 최진석 교수는 서강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이자 인문·과학·예술 분야 국내 최고 석학들이 모인 인재육성기관인 건명원(建明苑) 초대원장으로, 그동안 삶의 지혜와 인문학적 통찰을 담은 강연 및 저술 활동을 통해 대중과 만나왔다. 온화한 카리스마의 마에스트로 오충근은 베를린심포니, 도쿄필하모닉 등 국내외 유수 오케스트라를 지휘했으며 빈 무지크페라인 황금홀, 베를린필하모니홀, 동경예술극장, 체코 프라하 스메타나홀 등 세계적인 연주홀에 선 바 있다. 제48대 난파음악상, 제9회 KNN문화대상(문화예술 부문)을 수상한 오충근은 현재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유라시아오션필하모닉오케스트라(EOPO) 예술감독으로 있다.

지난 3월 '고(苦), 진(進)'에 이어 '감(感), 래(來)'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프랑스 국제하프콩쿠르 1위, USA 국제하프콩쿠르 한국인 첫 수상자로 이름을 떨친 하프의 요정 황세희가 출연, 로드리고 '아랑훼즈 협주곡 2악장'을 비롯해 드보르작 '슬라브 무곡', 베토벤 교향곡 제5번 '운명' 2악장, 차이콥스키 교향곡 제4번 4악장을 들려준다. 하피스트 황세희는 서울예고 수석 입학 후 도미, 미국 인디애나음대에서 최고연주자과정을 취득하고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재학중이다.

일시 6월 22일 토요일 오후 5:0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Preview 4

Preview

5

일시 6월 24일 월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전석 2천원 **문의**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607-3110~1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60회 정기연주회 피아니스트 김정원 초청 제6대 수석지휘자 이명근 취임연주회 '운명'

제6대 수석지휘자로 새롭게 취임한 이명근 수석지휘자
취임연주회로 마련되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60회
정기연주회가 6월 24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특히 이번 무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견 피아니스트 김정원을 초청, 이명근 수석지휘자와 첫 발을 내딛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과의 운명적인 만남을 축하하며 특별한 무대를 연다.
지난 4월 수석지휘자로 취임한 이명근 지휘자는 지휘계의 대부 Gustav Meier로부터 '아주 재능있는 젊은 지휘자, 그는 이미 위대한 아티스트'라는 찬사를 받고, 번스타인의 제자이자 볼티모어 심포니 음악감독인 스승 Marin Alsop의 총애를 받으며 독일뿐만 아니라 미국 클래식의 흐름까지 섭렵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지휘과에 재학하던 중 한국지휘자협회가 주최한 지휘자 캠프에서 최우수 지휘자로 선정되어 제주시립교향악단, 수원시립교향악단을 지휘했으며 졸업 후 부천시립교향악단에서 주최한 젊은 지휘자를 위한 오디션에서 1등하여 부천시립교향악단을 지휘하며 미래를 이끌어 갈 젊은 지휘자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후 독일로 건너간 이명근은 데트몰트 국립음대에서 지휘과 디플롬 석사를, 미국 피바디 음대에서 지휘과 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로스엔젤레스 도산교향악단 상임지휘자, 노보 코랄레 상임지휘자, 워싱턴 솔로이스츠 앙상블 상임지휘자를 역임했다. 귀국 후에는 진주시립교향악단, 경상오페라단 등 유수 단체와 활동해 왔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첫 무대는 운명을 암시하는 듯한 비장하고 아름다운 선율로 유명한 베르디 오페라 '운명의 힘' 서곡이 장식한다. 차이콥스키 '피아노협주곡 제1번'은 '따뜻한 감성과 판타지, 아이디어로 시종일관 청중을 사로잡는 연주'라는 호평을 받는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협연으로 들려준다.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와 프랑스 파리고등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 과정을 최우수 성적으로 마치고 유럽에서의 활발한 연주활동으로 세계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김정원은 국내외 거장들이 지휘하는 세계 유수 오케스트라와 협연했으며, 유럽의 유서 깊은 음악제의 솔리스트로 참여했다. 마지막 무대는 수식어가 필요없는 베토벤의 걸작 교향곡 제5번 '운명'으로 이명근 지휘자와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새로운 출발을 알린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조성진 & 이반 피셔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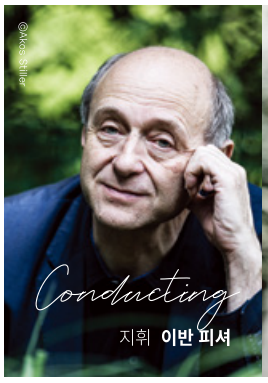
클래식 음악계의 슈퍼스타 피아니스트 조성진과 헝가리의 거장 지휘자 이반 피셔가 이끄는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가 6월 26일 부산을 찾는다.

피아니스트 조성진과 동유럽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교향악단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BFO)'의 이번 무대는 현재 가장 주목받는 젊은 피아니스트와 그라모폰 선정 세계 오케스트라 9위에 이름을 올리며 저력을 과시해 온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의 협연무대로 벌써부터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참신한 아이디어와 개방적인 마인드로 클래식의 대중화에 앞장서며 '동유럽의 카라얀'으로 통하는 이반 피셔는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설립자이자 음악감독이다.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명예지휘자로 있으며 베를린 필하모닉, 로열 콘세르트허바우, 뉴욕 필하모닉,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등 세계적인 악단의 객원 지휘자로 무대에 서고 있다.

유럽을 무대로 활동하던 30대의 젊은 이판 피셔가 고국 헝가리로 돌아와서 만든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는 2009년 영국의 음악전문지 '그라모폰'이 선정한 세계 10대 오케스트라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세계적인 관현악단의 반열에 올랐다.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는 지휘자와 단원들간의 끈끈한 유대관계와 강도 높은 리허설을 통해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은 정교한 연주를 구사해오고 있다. 3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멘델스존 '한여름 밤의 꿈' 서곡과 브람스 교향곡 제1번을 연주한다.

2015년 쇼팽 국제피아노콩쿠르 우승 이후 '젊은 거장'으로 입지를 다지며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조성진은 정명훈, 로린 마젤, 발레리 게르기예프, 크쥐시토프 울반스키, 바실리 페트렌코 등의 세계적인 지휘자와의 협연, 그리고 로열 콘세르트허바우 오케스트라,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베를린 방송교향악단, 마린스키 오케스트라 등 세계 유수의 관현악단과 호흡을 맞추며 국내외 클래식 애호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조성진은 이번 무대에서 특유의 섬세한 음색과 깔끔한 연주력으로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제1번을 협연한다.



일시 6월 26일 수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VIP석 16만원, R석 13만원, S석 10만원, A석 7만원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Preview 6

Preview

7

일시 6월 26일 수요일 오전 11:00 **장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재)부산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마티네콘서트 시즌 5
오페라 이야기 III

그동안 (재)부산문화회관의 특별한 클래식 입문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재)부산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마티네콘서트가 6월 26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지난 2017년 첫 번째 시즌부터 마티네콘서트를 이끌었던 '음악계의 괴물' 바이올리니스트 조윤범이 해설을 맡고 그가 리더로 있는 현악4중주단 '콰르텟엑스', 소프라노 박현진, 테너 홍지형이 출연해 '오페라의 제왕'이라 불리는 베르디의 대표 오페라 '리골레토', '라 트라비아타'의 주요 아리아를 들려준다. 뛰어난 말솜씨와 해박한 지식으로 관객들을 클래식의 세계로 안내하는 조윤범은 지난 2007년부터 극동아트TV(전 예당아트TV)의 '콰르텟엑스와 함께하는 조윤범의 파워클래식'을 진행하며 해설자로 명성을 날렸으며 CBS FM '아름다운 당신에게'의 주말 DJ, MBC라디오 '노홍철의 굿모닝 FM'의 클래식음악코너를 진행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바이올리니스트 조윤범, 양승빈, 비올리스트 김희준, 첼리스트 임이랑으로 구성된 현악4중주단 '콰르텟엑스'는 지난 2002년 9월 창단된 후 대중과 함께 즐기는 클래식 음악을 위해 정통 클래식과 대중음악을 넘나들며 현악사중주의 개념을 새롭게 개척해오고 있다. 현재 연간 300회라는 기록적인 횟수의 공연과 강의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영화 '호로비츠를 위하여', KBS 클래식 오디세이, MBC 김동률의 포유 등에 출연하면서 대중과도 친숙하다.

소프라노 박현진은 부산대학교 성악과와 독일 프란츠 리스트 국립음대 디플롬 및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독일 국립 바이마르 극장 오펀슈트디오 솔리스트, 독일 국영방송국 MDR합창단 객원단원을 역임했다. 테너 홍지형은 이탈리아 피아첸차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이탈리아 Busseto VERDI 국제성악콩쿠르 3위, RHO 국제성악콩쿠르 1위, ORVIETO 국제성악콩쿠르 1위 등 다수 국제성악콩쿠르에서 입상했으며 현재 부산진구 라온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헤븐싱어즈 멤버 및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 박현진은 '리골레토' 중 '그리운 이름', '라 트라비아타' 중 '이상하다! 이상해! 아, 그인가'를, 홍지형은 '리골레토' 중 '이 여자나 저 여자나지', '여자의 마음'를 각각 들려주며 '라 트라비아타' 중 '축배의 노래', '파리를 떠나서'는 이중창으로 함께 들려준다.

부산시립합창단 제175회 정기연주회

6월의 기억 '전쟁과 평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부산시립합창단이 선사하는
평화음악회 '6월의 기억-전쟁과 평화'가 6월 28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특히 이번 무대는 부산시립예술단 예술감독 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지휘자의 평가무대로, 풍부한 연주경험과 리더십을 겸비한 전 제주도립 서귀포합창단 상임지휘자 김인재가 부산시립합창단과 함께 한다. 부산시립예술단은 올해 공석이었던 4개 단체의 예술감독 및 상임지휘자 선임을 위해 기존의 공개채용 방식이 아닌 전문가 추천제를 선택하면서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3명의 후보자가 정기공연에 참가, 전문가 평가 및 단원 의견 수렴, 관객들의 반응조사 등을 통해 예술감독 및 상임지휘자로 선임된다. 부산시립합창단은 이번 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나는 김인재 지휘자를 비롯해 이기선 총신대학교 교회음악과 명예교수, 루마니아 출신의 지휘자 아드리안 스타나케 등 3인의 지휘자가 선정됐다.

지휘자 김인재는 단국대학교 음악대학에서 작곡 전공으로 학부를 졸업하고 미국 웨스트민스터 콰이어 칼리지에서 합창지휘 석사, 일리노이주립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제주시립합창단, 전주시립합창단, 제주도립 서귀포합창단 상임지휘자를 역임했다. 수원, 광주, 부천, 고양, 순천시립합창단 등을 객원지휘했으며, 현재 한국합창지휘자협회, 한국교회음악협회 이사로 활동 중이다.

이번 무대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평화로 나아가자는 마음을 담아 7개의 주제가 있는 무대로 꾸며진다. 첫 번째 주제는 이번 공연의 타이틀인 '6월의 기억'으로 'Lamentations of Jeremiah'(웬들 스트루프 곡), 'Requiem, Introit'(칼 젠킨스 곡), 'Evening Hymn'(벨포이 기다너 곡)으로 죽은 자들의 영혼과 전쟁의 아픔을 위로한다. 르네상스 시대의 각국의 노래를 선사하는 '르네상스의 울림'과 재즈풍의 곡들로 꾸민 '현대적 유희', 아프리카 전통곡에서 소재를 가져온 '열정', 한국 작곡가들의 창작곡으로 꾸민 '한국의 감성',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이라는 타이틀로 'Dancin' out the Door', 'I Can Feel the Spirit', 세계 축구팬들의 응원가로 유명한 'You'll Never Walk Alone', 사이먼 앤 가펑클이 전하는 위로의 노래 'Bridge over Troubled Water' 등으로 위로와 희망을 선사한다.

일시 6월 28일 금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합창단 607-3116

Preview 8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전

반려동물전
'너는 나에게…'

'반려'이자 '동행', '가족'의 의미로 이미 우리의 삶 깊숙하게 다가와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지역 최고의 설치작가들의 작품으로 풀어낸 이색전시 '반려동물전_너는 나에게…'가 6월 21일부터 두달간 부산시민회관 전시실에서 펼쳐진다.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본부장 박태성)와 부산동구청(구청장 최형욱)이 함께하는 이번 기획전에서는 방정아, 변대용, 홍원표, 오유경, 이미주, 이지양, 임선이 등 설치작가 7인을 초청, 작가들이 저마다 생각하는 반려동물을 설치작품을 통해 때로는 재미있게, 때로는 진중하게 풀어낸다.

우선 시민회관 1층 전시실에서는 최근 들어 반려동물 수가 많아지면서 발생하는 유기견 및 동물 학대 문제와 반려동물 시장 확대가 가져온 사회적 이슈들을 예술작품을 통해 풀어본다. 방정아 작가는 반려동물 시장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더불어 생명유린이라는 깊은 고찰을 통해 귀엽기만 한 반려동물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서 이야기를 담아낸다. 오유경 작

6.21(금) - 8.25(일)

부산시민회관 1, 2층 전시실
무료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632-5300

이지양

가의 설치작품인 '대형 캣타워'은 전시된 작품이 아닌 실제 고양이가 올라가서 놀 수 있도록 제작했다. 변대용 작가는 '당신의 위로와 위안'이라는 제목으로, 사람과 개의 교감에 초점을 맞춘 조각작품을 선보인다. 이밖에도 홍원표, 이미주, 이지양 등 부산출신의 역량 있는 작가들이 '동물'을 주제로 한 다양한 작품을 전시한다. 2층 전시실에서는 모혜준을 비롯해 지역의 젊은 작가 13명이 '반려동물 스몰 아트페어'를 개최한다. 한편, 전시 개막일인 6월 21일에는 전시 오프닝무대로 홍원표 작가가 반려동물을 소재로 한 라이브페인팅 이벤트가 펼쳐진다.

기획전 외에도 전시기간동안에는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인 의미를 짚어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클래식 음악회'가 펼쳐진다. 6월 22일 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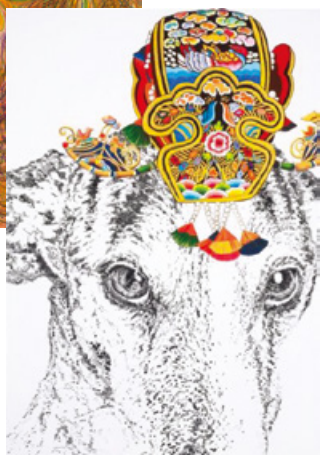
◉ 임선이

◉ 정다솔

후 5시 부산시민회관 광장(우천시 연기)에서 펼쳐지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클래식 음악회'에서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과 부산에서 활동하는 4인조 레게밴드 '해피피플', 전자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이 출연, 공연장을 찾은 관객과 그들의 반려동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로 마련된다. 특히 반려동물, 그 중에서도 강아지들이 클래식과 레게음악을 좋아한다는 사실에 착안해 인식표를 부착한 반려동물들을 초청,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이색 무대를 열 예정이다. 이날 반려동물과 함께 오는 시민들에게는 푸짐한 선물도 제공된다. 이밖에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이정환) 후원으로 2층 전시실 한켠에 작은도서관을 마련, 반려동물을 주제로 한 도서를 구비해 부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전시 및 부대행사는 모두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기간 중에는 '유기견보호단체' 또는 '동물보호단체'에게 기부금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다.

◉ 방정아



◉ 모혜준

세계인의 춤, 부산에서 피어나다

2019년 제15회 부산국제무용제

해양수도 부산의 6월을 아름답게 수놓을 춤의 향연 '제15회 부산국제무용제 (The 15th Busan International Dance Festival:BIDF)'가 6월 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그 화려한 막이 오른다.

5.24(금) - 7.8(월)

해운대해변 특설무대,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부산문화회관 등
무료(AK21 국제안무가육성대회 결선 공연 전석 1만원)
(사)부산국제무용제 조직위원회 868-7881~2
www.bidf.kr

지난 2005년 '부산국제해변무용제'로 첫 발을 내딛은 후 2008년 부산국제무용제로 명칭을 바꾸고 그동안 세계 다양한 장르의 무용작품을 선보여온 부산국제무용제는 특히 아름다운 부산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전 세계 춤의 향연이 펼쳐지면서 시민과 관객들에게 춤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선사해왔다. 특히 지난 2009년부터 경연부문인 'AK(Arts Korea)21 국제안무가 육성대회'을 통해 세계무대의 주역이 될 안무가를 발굴해오고 있는 부산국제무용제는 지난해부터 'BIDF 국제무용콩쿠르'를 개최, 젊고 유망한 무용수들이 국제적인 경력을 쌓아 국제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AK(Arts Korea)21 국제안무가 육성대회' 결선무대는 6월 5일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펼쳐지며 우승자는 6월 9일 BIDF 폐막식에서 발표된다. 이날 무대에서는 지난해 'AK(Arts Korea)21 국제안무가 육성대회'에서 최우수단체로 선정된 현대무용단 '자유'의 축하 공연도 펼쳐진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BIDF 국제무용콩쿠르'는 무용제가 막을 내린 후 7월 6일부터 사흘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진행되며 참가자들에게는 수상의 영예와 함께 스칼라 쉽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 부산국제무용제는 '세계인의 춤, 부산에서 피어나다'라는 주제로 국내 무용단체를 비롯해 몽골, 미국, 오스트리아, 일본, 중국, 터키, 폴란드, 핀란드, 호주 등 10개국 20개 단체가 참여한다. 우선 올해 국내 공식 초청무용단은 총 6개 단체로 발레, 현대무용, 한국무용 등 다양한 작품으로 관객과 만난다. 발레작품으로는 그동안 발레의 대중화를 위해 꾸준한 작품을 선보여온 와이즈발레단의 '베니스카니발'과 올해 참가팀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광주시립발레단의 'Max Bruch Violin Concert No1-3'가 무대에 오른

◉ 오스트리아 Ákos Hargitay/Company Two In One

◉ 헝가리 4 For Dance

◉ 핀란드 Alpo Aaltokoski Company

◉ 2018년 제15회 부산국제무용제

다. 프랑스 '파리오페라발레단'에서 쉬제(솔리스트)로 활동했던 김용걸이 안무를 맡은 'Max Bruch Violin Concert No1-3'는 막스 브루흐의 낭만주의 작품인 '바이올린 협주곡 1번 3악장'의 선율에 맞춰 무용수의 경쾌하고 일사불란한 움직임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무대이다. 부산의 대표적인 무용단인 정신혜무용단은 한국 춤의 전통성을 기반으로 한 감각적인 무대 '옹이푸리'를,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학생들로 구성된 케이아츠(KARTS) 무용단은 'LDP 무용단' 대표 신창호의 안무작 '투투유투'을 선보인다. 순수하고도 도발적인 안무가 이경은이 이끄는 리케이댄스(LEE K. DANCE)는 프랑스, 영국에 초청되어 호평받은 작품 '안녕'을 무대에 올리며, 부산의 발레 전공인들이 모여 창작 활동을 펼치는 부산유니온발레단은 스페인 민속무용을 재해석한 '에스파냐 카니발'로 역동적인 무대를 선사한다.

이외에도 Globe Art Management NGO(몽골), Ákos Hargitay/Company Two In One(오스트리아), Tango Rada Ritmo(일본), Institute of Yangtze Delta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tudies(양쯔강 델타유역 무형문화유산연구소, 중국), Alpo Aaltokoski Company(핀란드), 4 For Dance(헝가리), Jacob Watton(호주), Eryc Taylor Dance(미국) 등 화려한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9개 해외초청팀이 부산을 찾아 국내 무용단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국내외 공식 초청공연단체가 출연하는 BIDF 공식초청공연은 무용이라는 장르가 낯선 일반 시민들도 쉽게 접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6월 7일부터 사흘간 해운대 해변 특설무대에서 무료로 펼쳐진다.

올해 시민들로 구성된 아마추어 단체들의 '시민참여무대'는 6월 8일 공식초청공연에 앞서 해운대 해변 특설무대에 오른다. 김진홍전통춤보존회, 프로젝트 광, BWC 댄스 컴퍼니(김해성무용단), 현대무용단 '자유' 등 부산지역 무용단체들이 참여하는 '열린춤무대'는 부산국제무용제 마지막 날인 6월 9일 폐막식에 앞서 해운대 해변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 호주 Jacob Watton

5월 24(금) 김해공항 국내선 대합실 BIDF 찾아가는 홍보공연
6월 1일(토), 6월 6일(목) 오후 5:00 해운대 구남로 BIDF 거리춤 홍보공연
6월 5일(수) 오후 7: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AK(Arts Korea)21 국제안무가 육성대회
6월 7일(금) 오후 6:30 해운대 해변 특설무대 BIDF 개막식전 공연
6월 7일(금) 오후 7:00 해운대 해변 특설무대 BIDF 개막식
6월 7일(금)~9일(일) 오후 7:00 해운대 해변 특설무대 BIDF 공식초청공연
6월 8일(토) 오후 6:30 해운대 해변 특설무대 BIDF 시민단체 참여공연
6월 9일(일) 오후 6:30 해운대 해변 특설무대 BIDF 열린춤무대
6월 9일(일) 오후 7:00 해운대 해변 특설무대 BIDF 폐막식
7월 6일(토)-8일(월)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제2회 BIDF 부산국제무용콩쿠르

백본(BACKBONE), 직감과 중력의 중간 지대는 어디인가?

현대아트서커스 'BACKBONE'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민병욱**

몇 년 만에 가는지 햇수를 거의 헤아리지도 못한 채 부산시민회관에 다가갈수록 발걸음은 가벼워진다. 그 며칠 전에 본 '현대아트서커스 백본 BACKBONE, 5월 1일(수) 14시 30분'이라는 공연 안내판이 발걸음을 재촉하기 때문이다. 그 안내판이 유혹적으로 다가선 것은 '현대아트서커스'가 아니라 '서커스'였기 때문이다. '서커스'는 당대 최고의 코미디언들의 희극 만담을 곁들인 곡예, 재주 등으로 1970년대 이전까지 최고의 인기를 누린 '동춘 서커스'와 동의어로 이미 확정된 언어였기 때문이다.

인간의 삶이 언제나 그렇듯 '백본'의 공연은 그 처음부터 관객의 기대를 배반한다. 공연은 그 이전 무대의 어둠 속에 누워서 기다리고 있던 출연자들이 시작을 하자마자 일어나서는 서로의 어깨 위에 올라타고는 셋 사람의 이열을 만들어 횡대와 종대를 이루면서 관객의 기대를 배반하고 탄성을 자아내게 만든다. 탄성은 더 고난도의 곡예, 올림픽 체조 같은 기예, 아크로바트(재주) 등으로 관객의 기대로 이어지지만 공연은 다시 배반을 한다. 곡예, 기예, 아크로바트 등과 같은 '서커스'에 대한 기대를 철저히 배반하면서 공연은 하나의 스토리 라인, 이야기의 구조로 짜여 진다. 공연은 관객 스스로가 '서커스'가 아니라 '현대아트'임을 깨치도록 만든다.

먼저 공연의 출연자들은 '무대 출연자'가 아님을, 객석의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자'가 아님을 '옷'으로 선언한다. 출연자가 입고 있는 옷은 서커스의 의상 -민첩하고 빠른 움직임에 방해되지 않는 기능적이고 희극적인 의상도 아니다. 그렇다고 출연자들의 '옷'은 현대무용이나 전위공연의 의상- 고전적인 형식이나 스타일을 거부하면서도 그 원천마저 배제하지 않은 기능성과 안무자나 감독들의 표현성이 가미된 정해진 스타일의 의상도 아니다. 출연자의 '옷'은 무대와 객석, 출연자와 관객, 보여주는 자와 보는 자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같이 소통하여 같이 작품을 만들어 간다고 말한다. 공연은 관객들의 기대, 구경거리들을 철저히 배반한다. 무엇보다도 공연은 몸짓의 자세와 방향, 리듬과 속도 등 예측할 수없는 변화, 그 자체로 표현력이 풍부한 음향(음악)과 빛(조명)의 어울림 등으로 표현되는 현대 전위 공연도 배반한다.

극장, 그 극장이 있는 도시, 그 도시가 속해 있는 나라, 그 나라를 둘러쌓고 있는 세계, 그 세계의 하나의 점이 되어 있는 우주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서로 다른 듯 같은 공간에 있다. 그 공간은 원심력으로 사람을 같이 있게 하고 서로 소통하도록 한다. 그 원심력을 흔히들 중력(gravitation)이라고 한다. 중력은 지상에서 물체의 운동, 태양계에서 행성의 운동에

서 작용하며, 별, 은하, 우주 같은 물체들의 구조를 결정한다. 그 공연의 작품이름 '백본(BACKBONE)'이 사람에게는 '등뼈'이고, 현대 정보사회에서는 '상호 간의 통신량을 전송하는 주요 전송로'임이 우연이 아니다. 더구나 그 주최 단체 '곰(GOM)'이 'Gravity & Other Myths'의 약자로 그 뜻이 '중력 및 기타 신화'임이 전혀 낯설지 않게 다가온다. 연출가 그랜트(Darcy Grant)는 '중력에 저항하는 인간의 움직임과 연대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자 한' 작품이라고 그 의도를 말한다. 어떤 공간 속에서도 결코 저항할 수 없는 '중력에 저항하고자 하는 인간의 움직임과 연대'를 만들고자 한 그의 의도가 무엇일까? 보여주는 자와 보는 자로 구별되지 않는 공간 속에서 몸으로 같이 소통하여 소통과 연대의 한계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 때까지 밀어붙일 때 공간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의미일까? 아니면 공간의 한계까지 인간은 서로 소통하고 연대하여 보여주는 자와 보는 자로 하나로 되자는 뜻일까?

'백본' 이전의 작품이면서 첫 작품 '단순한 한 공간(A Simple Space)'에서 그는 '생동감 있는 타악기 연주 속에서 원시적, 열광적 섬세한 곡예사가 육체적인 한계를 밀어붙여서 모든 숨소리를 듣게 하여 관객들이 몰입하여 무대를 둘러싸기 위해 다가가도록' 만들고자 한 것이다. 첫 작품이 보여주는 자와 보는 자가 서로 다가서도록 한 것이라면 둘째 작품은 서로 소통하고 연대하도록 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 다음 작품, 그의 세 번째 작품 '혼돈을 벗어나서'(Out Of Chaos)의 의도는 무엇인가? 그는 '출연자와 청중 사이의 진정한 인간관계, 어떻게 함께 모이자는 이야기가 개념의 중심입니다. 사람, 행성, 관객, 연기자, 소리 및 빛. 우리를 형성하고 차례로 우리가 내면과 외부 세계를 이해하는 방법을 정의하는 생각, 우리는 당신과 우리의 생각을 나누기를 고대합니다.'라고 한다. 곧 소통과 연대를 위한 구별을 허물고 난 뒤, 진정한 인간관계와 상호소통을 의도한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백본'을 'NORPA(Northern Rivers Performing Arts)'에 가입하여 의뢰받은 첫 작품이라고 하면서 그의 작업을 '매우 동기 부여가 된 전문 바보'라고 하며 작품의 영감을 '직감, 직감,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모든 곳'에서 얻는다고 한다. 호주 리스모어 시의 시민회관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는 NORPA의 일원으로서 '백본'을 '인간 상호소통과 연대'라는 '매우 동기가 부여된 전문 바보'인 연출가는 우리들에게 '서커스'가 아니라 '현대아트'를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이 작품을 현지에서 직접 관람하고 선정하고 유치하여 시민들에게 예술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선물한 부산시민회관의 관계자들에 고마운 인사를 거듭 드린다.

* 이 글에서 인용된 연출가와 작품 등에 관한 것은 다음에서 도움을 받았음.
· GOM의 홈페이지 www.gravityandothermyths.com.au
· NORPA의 홈페이지 https://norpa.org.au
· 필스모어 시 시민회관 홈페이지 https://lismorecityhall.com.au

강렬한 음향으로 소환한 그날의 '메멘토'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51회 정기연주회

통영국제음악재단 기획팀 **김원철**

"악보에서 불타는 사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소음처럼, 극적으로, 거의 있는 그대로 묘사한 그것은 빌딩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모습과 그것을 목격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분명히 깨달은 이들이 경악하고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남은 것은 말을 잃은 무력감입니다."

윤이상이 말한 '불타는 사람'이 부산문화회관에 나타나 무시무시한 온도로 타올랐다. 고음이 격렬하게 부딪치며 '소음처럼, 극적으로' 불탔다. 화염의 뜨거운 온도가 마치 내 몸을 태우는 듯 고통스럽게 느껴졌다. 무려 20여 명이 윤리적·사회적 쇄신을 요구하며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건물에서 뛰어내렸다는 이야기는 1991년의 한국을 살지 않았던 사람에게 역사적 기록으로만 존재한다. 윤이상은 그것을 현재적 기억으로 만들었고, 독일어 작품 제목에 '메멘토(기억)'라는 말을 썼다. 그리고 최수열이 지휘한 부산시립교향악단이 그 '메멘토'를 강렬한 음향으로 소환했다.

"이들의 이타적인 행동을 음악으로 기억하고자 했고, 무고한 사람이 사회의 희생자가 됨을 고발하고자 했습니다." 윤이상은 1994년 음악학자 발터-볼프강 슈파러와 나눈 대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정치적 목표를 좇거나 선동적 의도로 이 곡을 쓴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나는 작곡가로서 제 양심에 거리낌이 없게끔 행동했습니다."

오해와 달리 윤이상 작품 가운데 사회참여적 성격이 짙은 작품은 그리 많지 않으며, 대부분의 작품은 도교적·불교적 깨달음을 추구하거나 순음악적 어법을 탐구하는 것들이다. '화염 속의 천사'와 '광주여 영원히'는 그런 점에서 예외적인 작품으로, 구성상으로도 여러모로 닮은꼴이다. 그리고 내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윤이상이 곡 중간에 '비브라폰'이라는 악기를 활용한 방식이다.

'광주여 영원히'에서 윤이상은 '발포' 장면 직후 믿을 수 없는 사건을 목격한 정신적 충격으로 현실감을 잃은 가운데 환상이 의식으로 침투해 오는 심리상태를 연출했다. 영화에 비유하자면, 이 대목에서 마치 화면이 극단적으로 느려지고 소리는 사라지거나 초자연적인 음향이 들려오는 듯하다. 그런가 하면 '화염 속의 천사'에서 윤이상은 '천사'가 탄생하기에 앞서 화염 속에 자신을 내던지겠다는 결단을 내리기까지의 고뇌와 두려움이 환상으로 이어지는 심리상태를 연출했다. 이처럼 현실의 영역에서 환상의 영역으로, 다시 현실의 영역으로 돌아오는 짜임새와 음악적 연출 방식에서 두 작품은 닮은꼴이다. 그리고 '비브라폰'의 몽환적인 음색이 두 작품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이것이 '현실의 영역'에서 사용된 글로켄슈필 및 실로폰의 음색과 대비된다.

몇 년 전 최수열이 광주시립교향악단을 지휘해 '광주여 영원히'를 연주했을 때, 비브라폰은 악보에 지시한 것보다 좀 더 큰 음량으로 환상의 영역이 음향적으로 두드러지게끔 했다. 광주시민문화회관이 공간 특성상 작은 소리를 섬세하게 전달하지 못했던 까닭으로 짐작되는데, '화염 속의 천사'가 연주된 부산시민문화회관의 음향은 작은 소리를 온전히 전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광주보다는 조금 낫다고 느껴졌다. 그래서인지 부산에서 최수열이 연출한 비브라폰 소리는 상대적으로 적당한 음량과 분명한 비브라토로 몽환적인 느낌을 알맞게 살렸다.

'에필로그'에서는 서양음악 전문 소프라노 대신에 국악 전문 가수를 기용한 아이디어에 감탄했다. 음악학자 이경분은 '에필로그'를 두고 "죽은 영혼을 위로하는 곡소리의 '윤이상적 버전'"이라 평한 바 있는데, 이번 공연에서 겉소리와 속소리를 오가는 박민희의 창법이 '곡소리'를 더욱 뚜렷이 살리는 결과를 낳았다. 생각해 보면 윤이상은 한국에서 활동하던 시기에 작곡한 초기 가곡에 관해 "내가 바라는 것은 비록 서양 발성법을 구사하는 성악가라 할지라도 약간의 우리 전통음악이나 민요의 선적, 율동적, 색채적인 묘미를 연구해서 불러주었으면 하는 것이다."라 한 일도 있다.
올해 3월 말 통영국제음악제에서는 미하엘 잔덜링이 지휘한 루체른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화염 속의 천사'와 '에필로그'를 연주했었고, 소프라노 서예리가 탁월한 목소리로 감동을 더했다. 그때 이후로 나는 이 곡을 서예리보다 잘할 수 있는 가수가 있을 것이라 믿지 않았다. 그러나 부산에서 박민희의 노래를 듣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다. 이 곡에서만큼은 국악 전문 가수를 기용하는 것이 관습으로 굳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였다.

반면 성인 여성합창단 대신 어린이합창단을 기용한 아이디어에는 반대한다. 어린이합창단으로는 '우주적 음향세계'가 제대로 살아나지 않았으며, 앳된 목소리는 망망우주(茫茫宇宙)에서 부유하는 대신 지상으로 내려와 박민희의 '곡소리'를 보조하는 역할을 했다. "'에필로그'는 완전히 다른 음향세계로, 감정으로 가득했던 앞선 관현악곡과 달리 완전히 무기질적입니다. 죽은 이의 넋이 다른 세계에 간다면 아마도 '에필로그'에서와 같은 우주적 음향세계의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어쩌면 최수열은 부산문화회관의 음향 특성을 고려해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일까? 박민희는 마이크를 사용하는 듯했는데 음량이 너무 크다고 느꼈다. 지상의 슬픔을 강조하는 의도를 헤아리면 해석의 일관성은 있다 하겠으나 지상 세계에 너무 초점이 맞춰진 것은 아무래도 불만스러웠다. 음향이 좋기로 유명한 통영국제음악당에서, 성인 여성합창단의 우주적 음향 세계와 박민희의 지상의 곡소리를 대등하게 하면 어떨까 상상해 본다. 오케스트라는 통영페스티벌오케스트라, 지휘는 최수열이었으면 좋겠다.
오케스트라 편성이 작을수록 부산문화회관의 음향적 단점이 두드러졌던 것은 아쉬웠고, 윤이상 곡에서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자칫 현대음악의 섬세한 음향이 살아나지 못할 위험을 강력한 음량으로 극복한 것과 달리 모차르트 곡에서는 내가 머리로 이해한 아티큘레이션과 몸으로 느낀 소리 사이에 심각한 괴리가 느껴졌다. 부산에도 클래식 음악 전용홀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많은 예산이 필요한 일인 만큼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통영국제음악당이나 대구콘서트하우스처럼 음향이 뛰어난 공연장이 언젠가는 부산에도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꾸준히 인식되길 바란다.

차이콥스키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은 첼로가 아닌 비올라가 협연한 것이 색다른 느낌을 주었고, 비올리스트 김상진은 비올라의 색다름과 원곡의 익숙함 사이를 줄타기하듯 훌륭하게 연주했다. 김상진과 함께 모차르트 '신포니아 콘체르탄테'를 협연한 바이올리니스트 임홍균은 탱글탱글한 리듬과 윤기 있는 음색으로 모차르트 음악의 맛깔스러움을 잘 살렸다.

제16회 부산국제연극제를 생각한다

2019 부산국제연극제 개막작 '세 형제'

동아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연극평론가, 본지 편집위원 **정봉석**

2019년 제16회 부산국제연극제의 개막작은 프랑스·브라질 극단 도자두(Dos à deux)의 <세 형제 frère de sang>이다. 공연은 두 형제의 해후로부터 시작된다. 고향집으로부터 아버지의 부고를 듣고 돌아온 참이다. 두 형제는 능숙하게 부친의 주검을 염하여 수습한다. 그리고는 무대 위로 옛날의 기억들이 펼쳐진다. 기억 속에서는 한 명의 형제와 한 명의 여자가 더 등장하여 함께 어우러진다. 보기에 따라서는 이들 모두 4남매로도 보이지만, 제목이 세 형제이므로 한 명의 여자는 이들 사이에 추억을 공유하는 관계로 읽혀진다. 이들은 다양한 놀이와 행위로서 서로 행복했던 시간들과 갈등의 순간들을 재연한다. 이러한 회상과 함께 장례가 끝나면 다시 두 형제만이 남아 이별하는 장면으로 공연도 끝난다.

정리하자면 회상 장면에만 등장하는 또 한 명의 형제와 여자는 과거의 어떤 사연으로 인해 지금은 부재하며, 현재의 두 형제도 멀어진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대사가 없는 행위극(non verbal performance)이다보니 이러한 해석은 짐작일 수밖에 없다. 사실 이러한 연극에 분명한 스토리와 주제를 요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보다는 무대와 인물을 분할하는 섬세하고도 절제된 조명의 활용, 그리고 숙련된 기예로서 다채롭게 펼쳐내는 무대장치, 소품, 의상, 분장, 음악, 신체연기 등으로 전달되는 극적 느낌이 더욱 중요하다. 연극놀이와 몸짓 언어의 교감, 그것이 이 연극 집단이 내세우는 특징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긴 널빤지를 관으로 썼다가 시소로, 회전그네로, 저승길로 변화시켜내는 연출력이 놀랍다.

극단 도자두는 '두개의 등'이라는 뜻으로서 브라질 출신의 두 아티스트가 주축이 되어 1997년 프랑스에서 결성되었다. '두개의 등'이란 연출가이자 안무가이자 배우인 앙드레 커르티(André Curti)와 아르튀르 리베이로(Artur Ribeiro)의 공동작업을 의미한다.(이번 작품에서도 두 형제로 등장함) 이들은 극에서의 '신체적 표현'에 주목하여 움직임과 사물, 음악적 표현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면서, 자칭 '제스처 연극'에 대한 정체성을 수립해나갔다. 특히 안무가 가미된 연극적 표현, 원근감이 있는 오브제, 배우들의 신체나 마리오네트의 움직임을 확장시키는 무용, 연극, 인형극 등을 통해 장르의 경계를 넘어서는 창작활동을 꾸준히 발전시켜왔다. 그러는 가운데 주로 사회의 절망과 일상의 우울을 극의 제제로 활용하여 독창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전 세계의 관객과 평단의 주목을 받으며 50개국 1800번 이상의 공연을 선보였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극단 도자두는 부산국제연극제와도

일찌감치 각별한 인연을 이어왔다. 2009년에 <잊을 수 없는 기억>에 이어 2011년 <욕망의 조각들>, 2018년 <그리토스>가 폐막작으로 초청되었으며, 올해에는 개막작 <세 형제> 외에도 <말 뒤의 말>이 함께 초청되었다. 또한 2015년 의정부음악극축제에는 <디디와 고고의 기다림>이 초청된 바 있으며, 같은 시기에 을숙도문화회관과 동래문화회관에서도 공연이 이루어졌었다. 그런데 이러한 단골 초청 기록은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이것이 극단 도자두에게는 자부심이 되겠지만 부산국제연극제의 위상에는 그리 도움이 되지 않겠기에 하는 말이다. 극단 특유의 무대표현과 신체연기도 자주 보면 식상해지기 마련이다.

지금껏 그래왔지만 올해 부산국제연극제에 초청된 공연들도 대부분 마임 형태의 행위극이거나 인형극, 또는 마술과 곡예와 같은 거리극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인가? 부산국제연극제의 영문 이름을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이라고 폭넓게 정해놓은 것은. 그럴 바에는 그냥 국제인형극제나 마임극제, 가면극제, 거리극제, 마당극제, 음악극제처럼 장르를 명기하면 특색이라도 있겠지만, 이미 춘천, 안동, 안산, 과천, 의정부 등지에서 그 이름들을 쓰고 있다. 국제바다공연예술제라는 이름도 포항이 선점하였다.

실정이 이러하니 부산국제연극제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다. 적어도 아시아 연극의 경연장이라는 특색 정도는 갖추면 좋으련만 그에 대한 고민이나 노력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매년 주어진 예산 안에서 무사히 행사를 치러내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물론 제대로 된 국제연극제를 유치하려면 우수 인력도 보충해야하고, 자막 처리와 같은 소통의 어려움도 극복해야하고, 극단의 규모 대비 초청비용에도 무리가 따를 것이다. 그러니 우선적으로는 충분한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지만, 자체적으로도 각고의 노력을 배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산국제연극제에서는 매년 국내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예술성과 대중성을 고루 갖춘 작품을 선별해 시민들의 문화향유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산국제연극제 안내 책자에 새겨진 글이다. 정작 이 글처럼만 작품이 선별되어 초청되어진다면 시민들의 문화향유권 신장은 물론 부산연극의 발전에도 큰 자극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예술성과 대중성을 고루 갖춘 작품을 선별하여 유치하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전담 프로그래머들이 치밀하게 옥석을 가려야 한다. 관습과 타성에 젖어 off나 off-off stage를 전전하는 극단들로 구색이나 맞추고 대중성에 영합하려한다면 영원히 아류를 면치 못할 것이다. 초심을 잊지말아야한다. 국제연극제 유치를 염원하던 그 초발심으로 돌아가 부산국제연극제만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모색하여야 한다. 다가오는 20주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위해.

* 말 뒤의 말(Aux Pieds de la Lettre) : 극단 도자두의 초청작 <말 뒤의 말>은 편지의 끝에 덧붙이는 말로서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한 속뜻이 있다는 뜻이라 한다. 개막작 <세 형제>의 출연진은 Artur Ribeiro, André Curti, Raquel Iantas, Daniel Leuback 등 4명이다. 안내책자에는 원어로만 적혀있는데, 한국어 발음을 표기해주면 좋겠다. 느낌상 세 번째 이름이 여자배우의 이름인 듯하다. 작품제목에 é와, 극단 이름에 á는 악상떼귀(')가 아닌 악상그라브(`)인 듯하여 고쳐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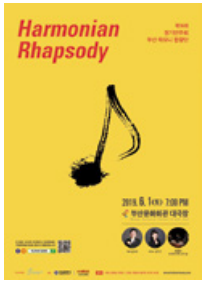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아빠!! 우리같이 놀자~'

일 시 4월 9일(화)-6월 16일(일) 오전 11:00 (월요일 공연 없음) 사랑채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24개월 이상 입장가능,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6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가사와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특별 제작한 창작뮤지컬 '아빠!! 우리 같이 놀자~'. 가정적이고 자상한 아빠 흥부는 아내의 가사일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에도 아주 적극적이다. 반면 가사와 육아에는 전혀 관심 없는 놀부. 아이 일곱을 낳아도 남편의 외조로 항상 행복해 보이는 흥부 처와 아이 하나를 낳고도 관절염과 마음고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놀부처. 흥부와 흥부처는 놀부를 변화시키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준비하는데….

부산하모니합창단 제16회 정기연주회
Harmonian Rhapsody

일 시 6월 1일 토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초대
문 의 부산하모니합창단 010-2593-16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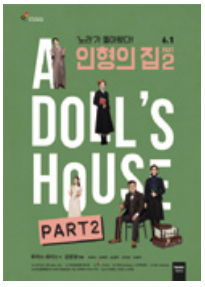


지난 2003년 창단 후 그동안 15차례 정기연주회와 미국, 이태리 등 해외 초청연주회를 통해 부산과 부산의 합창음악을 국내외에 널리 알려온 부산하모니합창단 16번째 정기연주회.
지난해 11월에는 꿈의 무대인 베를린 필하모니 캄머홀에서의 단독연주를 통해 부산합창의 위상을 더욱 높인 부산하모니합창단은 이번 무대에서 독일에서의 뜨거운 반응을 되살려 'Harmonian Rhapsody'라는 테마로 전설의 록밴드 'Queen'의 주옥같은 곡들을 비롯해 국내외 다양한 합창음악을 들려준다.

- 단장/장연수 ● 지휘/김강규 ● 피아노/김민선
- 특별출연/소리연구회 소리 숲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인형의 집 Part 2

일 시 6월 1일 토요일 오후 3:00, 7:00 중극장
입장료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초등학생 이상 입장가능)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노르웨이 극작가 헨리크 입센의 '인형의 집', 그 15년 뒤 이야기를 그린 '인형의 집 Part2'. 페미니즘 희극의 시초라 불리는 '인형의 집'은 여성이 자아를 찾기 위해 가정을 버리고 가출한다는 설정이 당시 용납할 수 없는 충격적인 결말로 뜨거운 논쟁을 일으킨 바 있다.
주인공 노라가 15년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시작되는 이번 작품은 그녀가 떠난 후 남겨졌던 남편 토르발트, 유모 앤 마리, 딸 에미를 대면하면서 이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보여준다.

- 출연/서이숙, 우미화, 손종학, 전국향, 이경미

제7회 부산 학생연합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사랑나눔 음악회

일 시 6월 2일 일요일 오후 6:00 대극장
입장료 초대
문 의 부산 학생연합 오케스트라 010-9984-7169

지난 2014년 3월 음악교육을 통해 정서 함양과 단체활동의 협동심을 키워나가는 것을 목표로 부산, 울산, 경남권 학생들로 결성된 부산 학생연합 오케스트라가 마련하는 사랑나눔 음악회.
부산 학생연합 오케스트라는 매년 1~2회 이상의 재능기부 연주회를 통해 얻는 수익금을 전액 사회에 기부하고, 문화소외계층 시민들이 무료로 연주회를 관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무대를 기획, 마련해오고 있다.

- 지휘/박환희 ● 군악대장/임종석 대위
- 소프라노/왕기헌
- 트럼펫/드미트리 로카렌코프
- 합창/동림소년소녀합창단

제11회 부산시 여성합창 페스티벌

일 시 6월 4일 화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초대
문 의 부산시 여성연합합창단 010-3833-0621

부산시 여성연합합창단이 주최하는 제11회 부산시 여성합창 페스티벌.
부산시 여성연합합창단을 비롯해 부산지역 13개 구·군 여성합창단이 출연, 합창을 통한 친교와 화합의 시간을 마련한다.

출연
부산시 여성연합합창단, 연제구 여성합창단, 사하구 장미여성합창단, 중구 참솔여성합창단, 금정구 여성합창단, 기장군 해송여성합창단, 부산진구 피오레여성합창단, 해운대구립여성합창단, 동구 여성합창단, 서구 여성합창단, 남구 오륙도여성합창단, 동래구 옥샘여성합창단, 북구 여성합창단, 사상구 여성합창단

UKO 특별연주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일 시 6월 4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무료
문 의 UKO 988-3087

부산을 대표하는 민간 자선오케스트라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UKO와 청소년 유망주들이 함께하는 청소년 협주곡의 밤.

프로그램
하이든/첼로 협주곡 제1번 다장조 3악장
드보르작/바이올린 협주곡 가단조 작품 53 1악장
드보르작/첼로 협주곡 제1번 1악장
베버/클라리넷 협주곡 제1번 1악장 등

- 지휘/이동신
- 협연/김규진(마림바), 김지호(첼로), 태예원(바이올린), 백현웅(첼로), 조혜지(클라리넷), 이유진(첼로), 김채영(바이올린), 이수인(피아노)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와 함께하는
통일음악회

일 시 6월 5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홈페이지(www.busantongilconcert.kr, www.부산통일음악회.kr)에서 선착순 예매(무료)
문 의 (사)통일문화교류협회 070-4191-0615

통일부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와 함께하는 통일음악회.
선천성 장애를 딛고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이희아는 그동안 1996년 일본 방문연주를 시작으로 2000년 호주 시드니 장애인올림픽 축하연주, 통일기원 북한 장애인돕기 자선공연, 미국, 캐나다 순회공연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으며, 2003년 문화예술인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삶에 대한 꿈과 희망을 전하는 한편 평화에 대한 열망이 어느 때 보다 높은 지금,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관객과 함께 나눈다.

미래의 거장
제16회 정기연주회

일 시 6월 6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초대
문 의 최미정 010-6401-8846

피아니스트 최미정의 제자들로 구성된 '미래의 거장' 제16회 정기연주회.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이번 무대는 차세대 음악가를 꿈꾸는 젊은 음악도들의 갈고닦은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무대로, 바로크부터 낭만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로 청중들과 소통한다.

제4회 동아대학교 음악학과
동아 피아노 앙상블의 밤

일 시 6월 7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초대
문 의 동아대학교 음악학과 010-2333-2544

부산 최초의 음악대학인 동아대학교 음악학과 피아노전공 학생들과 최지은 전임교수, 박정희, 서혜리, 김정은 강의전담 조교수와 함께 하는 제4회 동아 피아노 앙상블의 밤.
격년으로 개최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고전부터 현대에 이르는 다양한 피아노 앙상블 음악의 정수를 들려준다.

- 기획, 음악감독/최지은
- 연주/김유진, 조홍래, 김윤아, 김아림, 오예림, 김란희, 박설희, 최현정, 도예찬, 김하빈, 이아정, 박성경, 이현진, 강지나, 정영주, 김민주, 이소현, 손예진, 김수환, 박정희, 서혜리, 김정은, 최지은

2019 김범수 콘서트
'The Classic' -부산

일 시 6월 8일 토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R석 14만3천원, S석 12만1천원, A석 9만9천원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1인 2매까지 10% 할인)
문 의 (주)월드쇼마켓 1566-5490

데뷔 2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 대표 '목소리 미남' 김범수가 마련하는 특별한 무대.
그동안 보고싶다, 하루, 슬픔 활용법,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 등 가창력을 기반으로 하는 정통발라드로 그만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와 감성으로 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온 김범수는 자신의 브랜드 콘서트 '겟올라잇 명품백'으로 노래는 물론 자신이 가진 끼를 한껏 발휘해왔다.
특히 이번 20주년 특별무대에서는 대규모 오케스트라와 함께 라이브 공연에 최적화된 사운드와 무대로 '갓범수'의 진가를 확인시킬 예정이다.

루마니아 바이올리니스트
알렉산드루 토메스쿠 초청독주회

일 시 6월 8일 토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전석 2만원
문 의 부산문화 1600-1803

유럽 연합 이사회의 루마니아 의장직을 기념하여 루마니아 출신으로 국제콩쿠르 우승자인 바이올리니스트 알렉산드루 토메스쿠를 초청해 마련하는 무대.
지난 1995년 북한 평양에서 연주한 경력이 있는 알렉산드루 토메스쿠는 이번 무대에서 '에네스쿠의 세계'라는 주제로, 상세한 해설과 함께 세계적인 명기로 알려진 스트라디바리우스로 직접 연주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바흐/소나타 제1번 사단조
바흐/프렐류드 마단조
조르주 에네스쿠/The Fiddler 등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52회 정기연주회
공개리허설
부산시향의 '미완성 음악회'

일 시 6월 12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전석 5천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60% 할인)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연주회를 앞두고 오케스트라가 실제 앙상블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공개리허설 '부산시향의 미완성 음악회'.
연주회 리허설과정을 관객들에게 공개하는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는 연주를 앞두고 단원과 지휘자가 자연스럽게 연습하는 모습을 통해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이날 무대에서 최수열 상임지휘자와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은 제552회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중 한 곡인 말러 교향곡 제5번 중 '아다지에토'의 리허설 과정을 꾸밈없이 보여준다.

- 지휘/최수열(상임지휘자)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52회 정기연주회
헌정

일 시 6월 14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히 활동하며 스타 바이올리니스트로 우뚝 선 김봄소리와 함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52회 정기연주회 '헌정'.
상임지휘자 최수열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헌정'이라는 테마로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말러의 '교향곡 제5번' 중 '아다지에토', 라벨의 '쿠프랭의 무덤' 등 서로 다른 헌정의 사연을 지닌 세 곡을 만날 수 있다.

- 지휘/최수열
- 바이올린/김봄소리

제23회 부산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
고전에서 낭만까지 협주곡 이야기

일 시 6월 14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무료
문 의 부산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 890-2568

열정과 도전의식을 가진 손명균 지휘자를 중심으로 음악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음악인들과 함께 뜻을 모아 활동하고 있는 부산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 '고전에서 낭만까지 협주곡 이야기'.
부산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는 지난 2007년 창단 후 참신하고 폭넓은 레퍼토리로 청중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가고 있다.

- 지휘/손명균
- 연주/부산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
- 바이올린/Jay Lee, 이은빈, 이영주
- 피아노/정비앙카

금성하모니, 예그린합창단 합동연주회
우리들의 노래

일 시 6월 18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초대
문 의 금성하모니 010-3588-2611
예그린합창단 010-3068-7272

금성고등학교 동문들로 구성된 남성합창단 '금성하모니(단장/손태환)'와 부산레이디싱어즈의 명맥을 이은 관록의 여성합창단 '예그린합창단(단장/김미숙)'이 함께 하는 합동연주회.
지휘자 손욱의 지도 아래 지난 10년간 부산의 합창무대를 지켜온 금성하모니와 예그린합창단은 이번 무대에서 '우리들의 노래'라는 테마로 주옥같은 한국가곡과 팝송, 그리고 최신가요을 합창으로 편곡, 아름다운 하모니가 어우러지는 멋진 무대를 선사한다.

- 지휘/손욱
- 반주/김주리(금성하모니), 이영숙(예그린합창단)

바리톤 최성규
음반발표 기념 독창회

일 시 6월 18일 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전석 2만원(티켓 구매시 음반 증정)
문 의 우리아트 010-5468-4658

부산시립합창단 수석단원, 노엘합창단 지휘자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바리톤 최성규 독창회.
최성규는 경성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이탈리아로 유학, C.S.M Accademmia Diploma, Arena Accademmia 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그동안 부산에서 다수의 독창회 및 듀오 콘서트, 미국 Washington. D. C 공연 등 국내외 무대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음반 발매을 기념해 마련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국내외 가곡 및 흑인영가 등 다채로운 곡을 들려준다.

- 피아노/강유
- 소프라노/김유미, 최영화, 최은화

테너 장진규 독창회

일 시 6월 19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초대
문 의 장진규 010-3423-4790

현재 드림문화오페라단 단장으로 오페라제작 및 공연을 통해 오페라 부흥에 힘쓰고 있는 테너 장진규 독창회.
동의대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시립합창단원으로 활동하다 도독, 퀼른음대를 졸업하고 하겐오페라단과 뒤셀도르프 오페라단 단원으로 활동한 장진규는 다시 이태리로 건너가 밀라노의 쥬세페 베르디 콘서바토리에서 음악수업을 받았다.
이번 무대에서는 토스티, 슈베르트, 볼프, 김동진, 임긍수 등 주옥 같은 가곡과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 특별출연/김유섬

단비올 남성앙상블 창단 20주년 기념
제13회 정기연주회 6월의 음악여행

일 시 6월 20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초대
문 의 단비올 남성앙상블 010-2418-6468

지난 1999년 다양한 직업을 지닌 성악 애호가들로 창단한 단비올 남성앙상블의 창단 20주년 기념 무대 '6월의 음악여행'.
남성 특유의 중후하고 풍부한 화음으로 호평을 받아온 단비올 남성앙상블은 이번 무대에서 서정적인 우리 가곡과 성가곡, 가요를 들려준다.

- 지휘/강성철
- 피아노/김은미
- 특별출연/소프라노 김시하, 피아노 앙상블 'Somnium'

원영아, 김문주 피아노 듀오 리사이틀
동행

일 시 6월 20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아트뱅크코레아 442-1941

독일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 동문이자 현재 독우회 회원으로 다양한 음악적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원영아, 김문주의 듀오무대.
원영아는 서울예고와 독일 프라이브르크 국립음대, 트로싱엔 국립음대에서 최고연주자 과정을, 김문주는 부산대학교와 독일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 네델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했다.
'동행'이라는 테마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모차르트 '아이네 클라리네 나하트무지크', 거쉬인 '랩소디 인 블루', 차이콥스키 '호두까기 인형' 등 대중에게 잘 알려진 곡들을 들려준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존 필마이어의 '신의 아그네스'

일 시 6월 20일-21일 목-금요일 오후 7:30,
22일 토요일 오후 3:00, 6:00 사랑채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파격적 소재와 더불어 인간과 신의 관계, 종교와 믿음에 대한 질문으로 초연 당시 큰 화제를 모았던 연극 '신의 아그네스'.
미국의 희곡작가 존 필마이어가 쓴 '신의 아그네스'는 주인공 아그네스와 그녀를 둘러싼 두 여인의 변화를 통해 이 시대의 기적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동시에 '기적이란 신과의 관계가 아닌 우리 삶 속에 존재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 예술감독, 연출/전승환
- 출연/송순임, 안이정, 김지현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 기행

일 시 6월 21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10만원, S석 8만원, A석 5만원, B석 3만원
문 의 솔오페라단 1544-9373

지난 2005년 창단 후 젊은 감각과 완성도 높은 작품을 잇달아 발표하며 대한민국 오페라의 새로운 페러다임을 열어가고 있는 솔오페라단의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기행'.
솔오페라단은 지난 2017년 대한민국 음악대상 오페라부문 대상, 제18회 한국메세나대회 ARTS&BUSINESS상, 제3회 예술의전당 예술대상 공연분야 최다관객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 바이올린/Dino de palma, 이선영
- 소프리노/박현정, 김신혜, 노이룸
- 테너/김동원
- 바리톤/조현수, 우주호
- 피아노/최유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9 노자와 베토벤 '고진감래(苦進感來)'

일 시 6월 22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현 시대의 고민과 문제에 대한 해답과 위로를 전했던 최진석 교수와 지휘자 오충근이 이끄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그리고 프랑스 국제하프콩쿠르 1위, USA 국제하프콩쿠르 한국인 첫 수상자로 이름을 떨친 하프의 요정 황세희가 출연, 공감의 특별한 시간을 선사한다.

프로그램
드보르작/슬라브 무곡 작품 72 제2번
로드리고/아랑훼즈 협주곡 중 2악장
베토벤/교향곡 제5번 다장조 작품 67 '운명' 중 2악장 등

제20회 부산 울산 원음합창단 정기연주회
한마음 한소리 그소식을 통하다

일 시 6월 23일 일요일 오후 3:00 중극장
입장료 초대
문 의 부산 울산 원음합창단 010-3936-7757

지난 1973년 원불교 부산교구 어머니합창단으로 출발, 오랜 전통을 지닌 부산 울산 원음합창단의 20번째 정기연주회.
부산 울산 원음합창단은 2002년 부산세계합창올림픽 금상, 2004년 독일 브레멘 세계합창올림픽 종교음악부문 은메달, 2006년 중국 샤먼 세계 합창올림픽 동메달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원불교성가와 한국가곡, 세계의 민요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 지도교무/김영은
- 단장/이명성
- 지휘/이은정
- 피아노 조은지
- 특별출연/남성교무중창단, WBS원음방송국 원사운드중창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60회 정기연주회 피아니스트 김정원 초청 제6대 수석지휘자 이명근 취임연주회 '운명'

일 시 6월 24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전석 2천원
문 의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607-3110~1

제6대 수석지휘자로 새롭게 취임한 이명근 수석지휘자 취임연주회로 마련되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60회 정기연주회 '운명'.
특히 이번 무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견 피아니스트 김정원을 초청, 이명근 수석지휘자와 첫 발을 내딛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한다.

프로그램
베르디/오페라 '운명의 힘' 서곡
차이콥스키/피아노협주곡 제1번 작품 23
베토벤/교향곡 제5번 '운명'

비르투오조 야쿠티아 초청 콘서트

일 시 6월 25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 의 부산문화 1600-1803

러시아 사하공화국 정부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국립 앙상블인 비르투오조 야쿠티아(Virtuosos of Yakutia/ Siberian Virtuosi) 초청 콘서트.
비르투오조 야쿠티야는 지난 1994년 창단된 이래 사하공화국 문화사절단으로 미국, 유럽, 남미, 아시아 등 세계 28개 나라에서 2,000회 이상 음악회를 가져왔으며, 7차례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비발디 '사계'를 비롯해 한국인이 좋아하는 연주곡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에라토 앙상블 'Peace And Friendship'

일 시 6월 25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문 의 지클레프 02-515-5123

한국을 대표하는 이 시대 진정한 비르투오조 바이올리니스트 양성식과 실력파 연주자들로 결성된 에라토 앙상블 부산무대.
바이올리니스트 양성식이 음악감독을 맡아 지난 2011년 창단한 에라토 앙상블은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과 환상적인 하모니로 클래식 음악의 정수를 선보여 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이스트만 음대 교수로 재직중인 올레 크리사, 페데리코 아고스티니, 에라토 앙상블 음악감독 양성식, NHK 1st 바이올린 수석 타카오 후리하타, 더블베이시스트 사무엘 오르테가 산체스를 초청, 환상의 하모니를 선보인다.

이기묘 바이올린 리사이틀

일 시 6월 25일 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초대
문 의 이기묘 010-7551-9339

뉴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 부산챔버오케스트라 멤버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이기묘 독주회.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예술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경성대학교 박사과정(P.H.D)에 있는 이기묘는 이탈리아 Scuola di Musica IL TRILLO, 프랑스 International music academy of flaine에 디플롬을 취득했다. KNUA(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Arts) 챔버오케스트라 단원을 역임하기도 한 이기묘는 이번 무대에서 모차르트, 차이콥스키, 그리그의 곡을 들려준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조성진 & 이반 피셔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일 시 6월 26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VIP석 16만원, R석 13만원, S석 10만원, A석 7만원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클래식 음악계의 슈퍼스타 피아니스트 조성진과 헝가리의 거장 지휘자 이반 피셔가 이끄는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특별한 만남 '조성진&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프로그램
멘델스존/'한여름 밤의 꿈' 서곡
베토벤/피아노 협주곡 제1번
브람스/교향곡 제1번
- 지휘/이반 피셔
- 피아노/조성진

(재)부산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마티네콘서트 시즌 5 오페라 이야기 III

일 시 6월 26일 수요일 오전 11:00 중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저녁시간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관객들을 위한 대표적인 브런치 콘서트인 (재)부산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마티네콘서트.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지난 2017년 첫 번째 시즌부터 마티네콘서트를 이끌었던 '음악계의 괴물' 바이올리니스트 조윤범이 해설을 맡고 그가 리더로 있는 현악4중주단 '콰르텟엑스', 소프라노 박현진, 테너 홍지형이 출연해 '오페라의 제왕'이라 불리는 베르디의 대표 오페라 '리골레토', '라트라비아타'의 주요 아리아를 들려준다.
- 피아노/김가람

Colorful DIVA

일 시 6월 27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8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문 의 예현드림 755-0682, 010-4603-9558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프라노, 메조 소프라노들이 출연, 클래식의 매력을 알리고 대중들에게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마련한 특별한 무대 'Colorful DIVA'.
TV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의 강마에의 롤 모델로 유명한 (사)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 서희태의 지휘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흑인영가 및 가스펠, 종교음악에서부터 한국가곡, 뮤지컬&대중가요, 오페라 합창곡 및 아리아 등 다채로운 곡을 들려준다.
- 지휘/서희태

현대무용 '시선 1+1' 부산공연

일 시 6월 27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 의 (사) 트러스트무용단 02-879-0613

1995년 창단된 (사)트러스트무용단은 지난 2017년에는 장애인 전문 무용수를 발굴하여 전원 장애인으로 구성된 현대무용단 '케인 앤 무브먼트'를 창단, 현대무용과 장애예술의 전국적 확산 및 새로운 예술과의 만남을 선사해왔다.
현대무용단 '케인 앤 무브먼트'의 창단기념 작품이기도 한 '시선 1+1'은 장애를 지닌 장애 무용수와 전문 무용수의 움직임, 그리고 라이브 연주가 어우러지는 무대로, 고정관념을 깨고 세상을 보는 단순한 시선을 던지는 기회를 선사한다.

부산시립합창단 제175회 정기연주회
6월의 기억 '전쟁과 평화'

일 시 6월 28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부산시립합창단 607-3116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부산시립합창단이 선사하는 평화음악회.
특히 이번 무대는 부산시립예술단 예술감독 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지휘자의 평가무대로, 풍부한 연주경험과 리더십을 겸비한 지휘자 김인재가 부산시립합창단과 함께 한다.
객원지휘자 김인재는 단국대학교 음악대학에서 작곡 전공으로 학부를 졸업하고 미국 웨스트민스터 콰이어 칼리지에서 합창지휘 석사, 일리노이주립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제주시립합창단, 전주시립합창단, 제주도립 서귀포합창단 상임지휘자를 역임했다.

명화속클래식시리즈 IV
그림 읽어주는 베토벤 The Concert
MANET & MONET 인상주의

일 시 6월 28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 의 두손클래식엔터테인먼트 02-766-7623

그림을 보며 클래식을 감상하고, 음악을 들으며 미술작품을 보는 색다른 형식의 예술 융합 프로그램 '그림 읽어주는 베토벤 The Concert' 네 번째 작품 'MANET & MONET 인상주의'.
'그림 읽어주는 베토벤'은 지난 2010년 국립현대미술관 초청공연으로 첫 선을 보인 후 매년 매진행진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르네상스 시대부터 이어지던 정통성 있는 회화기법을 무시하고 색채와 빛을 통해 찰나의 순간을 표현한 인상주의 작품들을 조숙현 클래식 큐레이터의 명쾌한 해설과 일미터 클래식 앙상블의 연주로 감상할 수 있다.

소아암 환아를 위한 음악선물

일 시 6월 28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초대
문 의 인제대학교 한가족음악치료연구소 055-320-3866

인제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과 한가족음악치료연구소가 평소 문화/여가생활을 즐길 수 없었던 소아암 환아와 가족들에게 음악을 통한 위로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특별히 준비한 소아암 환아를 위한 음악선물.
인제대학교 한가족음악치료연구소는 지난 2017년 12월 개소해 특수 아동뿐 아니라 청소년, 성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플루트, 트럼펫, 색소폰, 피아노, 퍼커션 독주 및 테너와 소프라노 독창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선사한다.

제45회 UKO오케스트라
사랑나눔 음악회

일 시 6월 30일 일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
문 의 UKO 988-3087

지난 2006년 소아암, 심장병 등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린이 환자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United Korean Orchestra, U.K.O)가 마련하는 사랑나눔 음악회.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을 중심으로 울산, 창원, 진주, 마산, 포항시립교향악단 단원들과 전문 연주자 120여 명으로 구성된 U.K.O는 그동안 음악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난치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을 치료해왔다.

- 지휘/이동신
- 협연/장재혁(클라리넷)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장수상회

일 시 7월 5일 금요일 오후 7:30, 6일 토요일 오후 3:00 중극장
입장료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세대를 아우르는 사랑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연극 '장수상회'.
평생 뚝심을 지키며 살아온 까칠한 노신사 '김성칠'과 소녀 같은 꽃집 여인 '임금님'을 통해 사랑앞에서는 나이 불문하고 소년, 소녀가 되는 연애 초보들의 설렘 가득한 모습을 감동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특히 국민 할배이자 최고의 배우 이순재와 신구, 그리고 우리 시대의 여배우 손숙 등 그 어떤 무대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대한민국 명품 배우들의 향연이 펼쳐진다.

음악 | Music

부산청소년리코더합주단 제19기 향상음악회

일 시 6월 1일 토요일 오후 4: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 의 강희숙 010-2562-6561

단원 개개인의 리코더 연주 기량과 앙상블 능력을 함께 키워 해마다 향상된 무대를 선사하는 부산청소년리코더합주단 제19기 향상음악회.
부산청소년리코더합주단은 리코더가 가진 예술적인 가치를 찾아내기 위해 독일 마인츠음대 Christian Seher 교수와 세계적인 리코더 연주자 전현호의 마스터클래스를 통해 꾸준히 기량을 쌓으며, 리코더의 전성기인 바로크곡, 클래식, 가요, 재즈, 국악과의 만남을 꾸준히 시도해오고 있다.
올해에도 19기 단원들이 들려주는 리코더 앙상블 'Waterloo Road'(작곡 M. Deighan)를 비롯해 Prowo, Handel, Sammartini, Telemann과 같은 바로크 시대 거장들의 작품과 8종의 리코더가 함께 하는 대규모 리코더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무대를 만날 수 있다.

119 부산광역시 해운대소방서와 함께하는 선샤인 오케스트라 제6회 정기연주회 미래의 유망주와 함께

일 시 6월 1일 토요일 오후 5: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무료
문 의 선샤인 오케스트라 010-5660-3919

음악을 사랑하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음악으로 소통하며 행복과 보람을 찾는 아마추어오케스트라인 선샤인 오케스트라의 여섯 번째 정기연주회.
지난 2015년 9월 창단된 후 매주 연습을 통해 실력을 쌓아온 선샤인 오케스트라는 이번 무대에서 차세대 유망주들과 함께 한다.

- 지휘/원준연
- 협연/원윤아(마림바, 부흥초등 3학년), 이수빈(소프라노, 부산예중 3학년), 김예빈(바이올린, 부산예중 3학년)
- 사회/정창영, 황경록

해운대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 제19회 정기연주회 장일범과 함께하는 고전에서 낭만으로 음악여행

일 시 6월 2일 일요일 오후 5: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무료
문 의 해운대구청 749-4064, 해운대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 010-3598-5657

지난 2000년 10월, 음악을 사랑하는 해운대 지역 초·중·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창단한 해운대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해운대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는 창단 후 정기연주회 및 재능 나눔 연주회 등 크고 작은 무대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음악적 정서함양과 시민들과의 소통을 도모해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음악평론가, 해설가, 칼럼니스트로 활동중인 장일범과 함께 고전에서 낭만으로 음악여행을 떠난다.

- 지휘/정우영
- 첼로/박서연(부산예고 2년)

비르투오조 앙상블 위대한 음악가의 사계

일 시 6월 3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 의 비르투오조 앙상블 12-4295, 010-3325-8729

지난 1995년 동의대학교 백재진 교수에 의해 창단된 후 지금까지 꾸준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비르투오조 앙상블의 무대.
'위대한 음악가의 사계'라는 주제로 차이코프스키 '사계' 중 아름다운 6월과 10월이 연주되며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에 필적할만한 실내악곡인 현악4중주 '아메리카', 그리고 브람스의 만년작품인 '클라리넷 3중주'를 들려준다.

- 현악4중주/바이올리니스트 백재진, 김도경, 비올리스트 김은진, 첼리스트 이일세
- 클라리넷 3중주/클라리네티스트 백동훈, 피아니스트 서혜리, 첼리스트 김민승

제10회 센텀합창단 기념음악회 回想

일 시 6월 3일 월요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초대
문 의 센텀합창단 010-6346-6058

지난 2007년 합창음악을 사랑하는 주부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부산센텀합창단이 10번째 정기연주회를 기념해 마련하는 특별한 무대 '회상(回想)'.
지난해 2013 오륙도문화예술축제 합창부분 대상을 수상한 센텀합창단은 이번 무대에서 지난 연주회를 돌아보며 많은 이에게 사랑받은 곡을 선정, 가곡에서부터 무반주곡, 오페라 아리아까지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 지휘/이칠성
- 반주/박재나
- 특별출연/울산중구여성합창단 센텀 Hummingbirds 합창단 아미치 세뗄레 남성중창단

경기민요 이소정의 소리 여행

일 시 6월 4일 화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문 의 부산문화 1600-1803

경기민요 이수자로 전통국악의 뿌리를 고수하면서도 현대적 감각의 음악적 감성과 무대를 고민해온 소리꾼 이소정의 무대.
안비취, 이춘희, 김영임, 이호연 선생으로부터 사사받아 기본기와 전통의 국악창법을 탄탄하게 구사하는 이소정은 전국 국악경연대회 명창부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소정은 현재 한·중·일 교류협회 예술단장, (사)한국의 소리 '숨' 회원, 이소정 국악예술단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 우정출연/함영선, 공윤주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일반 1만원, 학생 5천원
문 의 금정문화회관 519-5661~3

5일 카운터테너 김대경, 류티스트 곽승웅 고음악 Recital
유럽의 유서 깊은 성당과 교회에서 르네상스와 바로크시대를 아우르는 레퍼토리를 연주하며, 고음악 연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혀온 카운터테너 김대경과 고음악악기인 류트를 제작하고 직접 연주하는 류티스트 곽승웅의 특별한 무대.
- 안무/김소영, 최성희

12일 김가민 비올라 리사이틀 'Romance : 낭만'
풍부한 서정성과 깊이 있는 음색이 매력적인 비올리스트 김가민 독주회.

김가민은 현재 동의대 예술종합콘서바토리, 부산예술고등학교에 출강하여 후진양성에 힘쓰는 한편 앙상블 The Blossom, Art-O 앙상블, SOMBLI TRIO 멤버로 활동하며 끊임없는 연구와 폭넓은 연주활동을 통해 그녀의 음악세계를 넓혀가고 있다.
- 피아노/이혜경
- 바이올린/손은혜
- 클라리넷/유지훈

19일 양은정 바이올린 독주회
영감이 배어있는 감성과 따뜻한 음색으로 울림 있는 연주를 선보이는 바이올리니스트 양은정 독주회.
중앙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한 후 대구시립교향악단에 입단,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친 후 대구시립예술단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맨해튼 음악대학 전문연주자과정을 졸업한 양은정은 현재 대구시립교향악단 제1바이올린 단원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독주회 및 실내악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 피아노/서혜리

26일 앙상블 나루 부산 특별 음악회
호흡을 통해 단순한 나무에서 생명력을 가진 음악으로 태어나는 목관악기 특유의 매력을 함께 나누고자 결성된 앙상블 나루의 무대.
음악을 통해 관객들과 함께 감동과 즐거움을 나누고 싶은 앙상블 나루는 참신한 해석과 다양한 시대를 아우르는 레퍼토리로 다양한 무대를 선사해왔다.
- 오보에/조정현(리더)
- 플루트/차민경
- 바순/윤석희
- 클라리넷/이승권
- 피아노/김동규
- 해금/하고운
- 작곡/나실인, 김지영

양욱진 첼로 독주회

일 시 6월 6일 목요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 의 IPB 010-7502-9293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소리와 멜로디가 나의 귀와 가슴을 어루만졌다'라고 호평받은 첼리스트 양욱진 독주회.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첼리스트로 활동하다 현재 인제대학교 관현악과 교수, International Players of Busan 음악감독으로 있는 양욱진은 2012년 부산일보가 지명한 '10명의 부산 문화 새 지킴이'에 고전음악가로서는 유일하게 선정되기도 했다.

프로그램
쇼스타코비치/첼로 소나타
프로코피에프/첼로 소나타 작품 119

아르스 현악4중주단 연주회 자유 그러나 고독

일 시 6월 7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아트뱅크코레아 442-1941

신라대학교 교수인 바이올리니스트 조현미를 리더로 움챔버오케스트라 악장, 로얄심포니오케스트라 수석인 바이올리니스트 서은아,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수석인 비올리스트 이성호, 신라대학교 외래교수인 첼리스트 하경희로 구성된 아르스 현악4중주단의 무대.
- 바이올린/조현미, 서은아
- 비올라/이성호, 강수이
- 첼로/하경희, 서성은
- 피아노/조현선(협연)

이봉기 한국최초 50개 도시 순회 피아노 독주회

일 시 6월 9일 일요일 오후 3: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전석 2만원(학생 50%)
문 의 음악춘추사 02-379-1728

지난해 12월 러시아 시베리아 국립극장 최우수 연주자상을 수상한 피아니스트 이봉기가 수상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마련하는 국내 50개 도시 순회연주회.
대한민국 음악상, 서울음악대상, 빛나는 익산시민대상,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아시아 태평양 페스티벌 우수 연주자상 등을 수상한 이봉기는 이번 순회연주회에서 베토벤, 쇼팽, 슈베르트, 리스트 등 대중들에게 친숙한 클래식 명곡을 들려준다.

프랑스 부페 크람퐁 아티스트 선정 기념
제6회 플레이어즈 벡 정기연주회

일 시 6월 9일 일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 의 플레이어즈 벡 010-8007-8087, 010-4445-1306

2014년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내 유일의 클라리넷 솔로이스츠 단체인 플레이어즈 벡(Players BECS) 정기연주회. 올해 세계적인 악기회사인 프랑스 부페 크람퐁(Buffet Crampon)의 국내 최초 앙상블 아티스트 팀으로 선정된 것을 기념해 마련하는 특별한 무대로, 클라리넷 앙상블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해피앙상블 정기연주회
세계여행 빅 콘서트 1

일 시 6월 11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전석 2만원
문 의 해피앙상블 010-3839-1084

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노래로 떠나는 해피앙상블 세계여행 빅 콘서트 첫 번째 무대.
이태리, 독일 러시아 등지에서 해외 유학을 마친 남성 성악가로 현재 대학에서 후진양성에 힘쓰고 있는 남성성악가들로 구성된 해피앙상블은 지난 2002년 창단 후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레퍼토리와 남성성악가들의 힘차면서도 부드러운 앙상블로 관객과 만나왔다.

2019 영화의전당 마티네콘서트
푸디토리움의 시네마 브런치 시즌 2
오케스트라로 빚어낸 우리 시대의 가족, 허삼관

일 시 6월 11일 화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커피 무료 제공)
문 의 (재)영화의전당 780-6000, www.dureraum.org

매월 둘째주 화요일 영화음악감독 푸디토리움과 함께하는 영화와 영화음악 이야기 '푸디토리움의 시네마 브런치' 두 번째 시즌.
국내 음악계에서 감성음악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구축한 푸디토리움(김정범)이 진행하는 시네마 브런치 6월 무대에서는 배우 하정우가 직접 연출과 주연을 맡아 화제가 된 영화 '허삼관'의 음악에 대해 이야기한다.
특히 영화 '허삼관'의 작곡과 프로듀서를 맡은 푸디토리움 김정범이 직접 풀어놓는 제작 뒷이야기와 함께 '허삼관' 사운드트랙을 두레라움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할 수 있다.

(사)부산네오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60회 정기연주회

일 시 6월 12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청소년 50%할인)
문 의 (사)부산네오필하모닉오케스트라 010-3838-4291

지난 2009년 7월 창단된 후 폭넓은 연주활동을 펼쳐온 (사)부산네오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무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금정문화회관 상주단체로 활동한 (사)부산네오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부산의 민간 오케스트라로는 처음으로 상근체제로 운영하며 매월 정기공연을 가져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예술감독 및 상임지휘자 홍성택이 지휘하고 체코 Radio Symphony Orchestra Pilsen 수석단원을 역임한 더블베이시스트 구본룡이 협연한다.

부산콘서트필하모닉오케스트라 협주곡의 밤

일 시 6월 13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 의 부산콘서트필하모닉오케스트라 010-3842-1316

지난 2007년 7월 부산지역의 전문 음악인들로 창단한 부산콘서트필하모닉오케스트라 '협주곡의 밤'.
부산콘서트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대중적인 음악에서부터 교향곡, 오페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면서도 전문성 있는 레퍼토리로 관객과 만나왔다.

프로그램
베버/클라리넷 협주곡 제1번 작품 73 3악장
보케리니/첼로 협주곡 제3번 사장조 G.480 1악장
이투랄데/색소폰 협주곡 '작은춤곡' 등
● 지휘/오창록

영화를 만난 국악 환타지
꼭두

일 시 6월 13일-14일 목-금요일 오후 7:30,
15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3: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S석 5만원, A석 3만원
문 의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국악에 영화를 접목시켜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국립국악원의 대표공연 '꼭두'.
영화 '가족의 탄생', '만추' 등으로 잘 알려진 김태용 영화감독과 '신과 함께', '군함도' 등 한국 영화음악계를 대표하는 방준석 음악감독이 참여하고, 국립국악원 정악단과 민속악단, 무용단이 출연하는 '꼭두'는 4명의 꼭두와 함께 할머니의 꽃신을 찾아 떠나는 어린 남매가 겪는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란보체 남성중창단 창단연주회

일 시 6월 14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2만원
문 의 그란보체 남성중창단 010-3152-5130

지난 2017년 유학파 성악가들과 시립합창단 수차석단원 8명으로 창단한 그란보체 남성중창단 창단연주회.
남성 특유의 중후함과 음악에 대한 열정을 지닌 그란보체 남성중창단은 이번 무대에서 우리 귀에 친숙한 국내외 가곡 및 유명 오페라 아리아, 세시봉 메들리를 들려준다.

- 테너/김성민, 서치환, 장필윤, 박현민
- 베이스/이승우, 남용현, 최대우, 장재석
- 피아노/김선경
- 특별출연/소프라노 정혜민

제69회 을숙도 명품콘서트
임지영 & 매슈 리프먼 듀오 리사이틀

일 시 6월 15일 토요일 오후 5: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 의 을숙도문화회관 220-5805

세계적 권위의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바이올린 부문에서 한국인 최초로 1위를 차지한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과 세계적인 차세대 음악가로 손꼽히는 미국 비올리스트 매슈 리프먼의 듀오무대로 마련되는 제69회 을숙도 명품콘서트.

프로그램
모차르트/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듀오 제1번
빌라로부스/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듀오
모차르트/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듀오 제2번
할보르센/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파사칼리아 등

해운대문화회관 특별기획공연
체르니우치 아카데미 심포니 오케스트라

일 시 6월 15일 토요일 오후 5: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전석 1만원(초중고생 50% 할인)
문 의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1902년 창단된 역사와 전통의 교향악단인 우크라이나 체르니우치 아카데미 심포니 오케스트라 초청연주회.
그동안 수많은 국제음악축제에 초청받아 우크라이나의 대표적인 교향악단으로 자리매김한 체르니우치 아카데미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이번 무대에서 우크라이나의 영예로운 예술가 칭호를 받은 상임지휘자 요셉 조잔스키가 지휘하고 현재 코리안 쳄버 오케스트라 단원, 서울심포니오케스트라 수석, Trio Varie 단원, NEC 첼로앙상블 멤버로 있는 첼리스트 이경미, 소프라노 한송이가 협연한다.

제33회 에듀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일 시 6월 18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 의 김지숙 010-6683-3218

지난 1999년 전국 최초로 현직 초등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단체로, 지난 20년 동안 꾸준한 음악활동을 펼쳐온 에듀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싱어송라이터 배하민이 에듀필하모니의 위촉으로 편곡한 'Selections from Korean Children's Song(섬집 아기, 반달, 아리랑 주제에 의한 변주곡)'이 초연되며 울산시립교향악단 트럼펫 수석 한만욱의 협연으로 네루다 '트럼펫 협주곡 마장조'와 드보르작 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를 들려준다.

2019 대한민국-우크라이나 국제교류음악제
한국의 자존심 거장 피아니스트 한동일 콘서트

일 시 6월 19일 수요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VIP 10만원,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학생 1만원(전화 예매시 30% 할인)
문 의 한국국제예술교류협회의 010-3858-9434

1965년 제24회 리벤트리트 국제콩쿠르 우승으로 한국인 최초 국제콩쿠르 우승이라는 영광을 차지한 천재 피아니스트 한동일 초청 2019 대한민국-우크라이나 국제교류음악제.
마에스트로 번스타인으로부터 '동양의 모차르트'라는 찬사를 받았던 한동일은 이번 무대에서 비엔나 국립음대에서 피아노와 지휘를 수학한 부산 출신의 지휘자 김현국이 지휘하는 우크라이나 체르니우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제21번(엘디라 마디간)'을 협연한다.

드라마콘서트 '태종대 연가'

일 시 6월 20일 목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 의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영도에서 태어나 영도에서 살아온 우리의 이야기를 아름다운 우리가곡의 선율과 함께 전해주는 새로운 컨셉의 드라마 콘서트 '태종대 연가'.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교수로 있는 소프리노 박은주, 부산성악아카데미 회장, Cantabile 남성 앙상블, 독일가곡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테너 이은민,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수석인 피아니스트 이은정, 탤런트 박준형, 연극배우 이태린 등이 출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함께 울고 함께 웃던 우리의 고향 영도를 노래로 들려준다.

- 예술감독/김도현
- 프로듀서/박지민
- 작, 연출 오세준
- 협력연출/김봉규

제138회 그랜드자연 야외음악회

일 시 6월 22일 토요일 오후 3:00
그랜드자연요양병원 이벤트홀
입장료 무료
문 의 그랜드자연요양병원 612-0075

지난 2007년 11월 개원한 후 '문화와 자연이 숨 쉬는 요양병원'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매월 환자와 가족,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문화행사를 가져오고 있는 그랜드자연요양병원(병원장 이재일)이 마련하는 '우리동네 복을 빌어주는 걸림'.
지난 1970년대 성행했던 걸립 공연을 각색한 작품으로, 관객들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는 고사덕담과 풍물놀이, 버나놀이, 소고춤, 버꾸춤 등 다양한 전통연희와 마술공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디 첼리스텐 앙상블 제7회 정기연주회

일 시 6월 22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A.M 엔터테인먼트 053-623-0684

부산, 대구, 울산 및 경남 음악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14명의 첼리스트들로 구성된 부산의 대표적인 첼로 앙상블인 디 첼리스텐 앙상블 정기연주회.
디 첼리스텐 앙상블(Die Cellisten Ensemble)은 독일어로 '첼로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첼로가 가진 매력인 묵직한 음색으로 정통 클래식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다양한 레퍼토리로 대중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다.

- 연주/정준수(리더), 최창훈, 신정성, 성소희, 우리라, 김무늬, 장진영, 김유진, 김기량, 김하늘, 박예리나, 김지혜, 문준수, 성아란

문화네트워크 음악풍경 제6회 짜장콘서트

일 시 6월 27일 목요일 오후 7:00(오후 6시부터 짜장면 먹기) 음악풍경 연습실
입장료 참석비 1만원(현금만 가능)
문 의 음악풍경 987-5005

음악을 통한 사회적 소통과 음악가들의 연주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열리는 하우스 콘서트로, 콘서트가 열리기 한시간 전인 6시 근처 중국집에서 연주자와 관객이 함께 짜장면을 시식하고 콘서트 후 공연 뒷풀이를 통해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마련하다.
6월 무대에서는 테너 방주원, 이창원, 바리톤 장진웅이 출연, 신작가곡과 세계명곡으로 관객과 만난다.

- 피아노/박소미
- 진행/이진이

연극 I Play

피아노앙상블 ANCORA 창단연주회

일 시 6월 29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 의 피아노앙상블 ANCORA 010-3553-2054

부산클래시컬피아니스트클럽 대표 배수정, POUR LE PIANO 대표 한은아, 피아노티쳐스 히스토리 대표 박태희 등 세 명의 피아니스트가 피아노앙상블이라는 장르의 새로운 연구를 하기위해 창단한 피아노앙상블 ANCORA 창단연주회.
ANCORA는 앞으로 독주곡 및 관현악곡, 성악곡 등을 피아노앙상블로 편곡한 곡들과 여러 악기와 콜라보이션한 곡으로 관객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음악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해나갈 계획이다.

- 초청교수/피아니스트 김소형

제7회 허회성의 가야금 節世佳絃(절세가현)

일 시 6월 29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 의 허회성 010-8951-5002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8호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 보유자 신명숙 선생과 영남대학교 최문진 교수로부터 가야금산조의 원형을 전수받은 가야금주자 허회성의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독주회.
부산대학교 국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영남대학교에서 음악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허회성은 제1회 전국가야금대회(고령) 일반부 은상, 제15회 부산국악대전 기악부문 장원을 수상하고 올해 '허회성 가야금정악 I 平調會相'를 출반한 바 있다.

- 장구/박환영(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교수)

연극 우연히 봄

일 시 5월 3일(금)-6월 23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5:00 (월요일 공연없음) 초콜릿 팩토리
입장료 전석 3만원
문 의 위너스 컴퍼니 010-9071-1028

유쾌한 성격의 청각장애인 '이레'와 놀 줄 아는 서울대 학생 '승진'의 로맨틱 코미디극 '우연히 봄'.
청각장애인의 실제 러브스토리를 극화한 이번 작품은 장애인과 만난다는 이유만으로 불편한 시선 속에 던져진 승진의 감정 변화를 현실적이면서도 코믹하게 그려내면서 따뜻한 울림이 있는 메시지를 던져준다.
작품 제목인 '우연히 봄'은 따뜻한 계절의 시작인 '봄'과 바라보다는 뜻의 '봄' 등 이중 의미를 부여해 '사랑의 시작'에 대한 설레임과 '관심을 가진 만큼 그들이 보인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연극 달동네

일 시 5월 25일(토)~Open run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6월 13일-16일 공연없음) 용천지랄소극장
입장료 전석 3만원
문 의 극단 바라 1600-1716

어렵고 힘들었지만 사랑이 있었던 그때 그 시절 달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연극 '달동네'.
월남전에 참전한 아버지의 잘못된 전사자 통지를 받은 가족들은 부산 달동네로 이사를 오고 달동네 사람들과 희망을 잃지 않으며 살아간다. 그러던 어느 날, 전쟁 중 심한 화상을 입은 아버지가 가족들을 찾아 오는데….
달동네 사람들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통해 삶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점점 잊혀지고 있는 가족과 이웃의 의미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준다.

코믹극 보잉보잉

일 시 5월 16일(목)-8월 25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3:30, 6:30(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전석 3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지난 2001년 초연 후 현재 400만 관객을 돌파한 국가대표 코믹극 '보잉보잉'.
매력적인 바람둥이 조성기는 3명의 스튜디어스와 동시에 연애중이다. 어느날 조성기의 시골친구 순성이가 성기를 찾아오고 하필 그날 비행일정이 꼬이면서 애인들이 하나둘씩 찾아오는데…. 순진남 순성이와 도우미 옥희가 조성기를 도와서 고군분투하지만 과연 이들은 이 엄청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2019 을숙도 시민연극제

일 시 5월 31일(금)-6월 2일(일)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무료
문 의 부산연극협회 645-3759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2019을숙도시민연극제. 부산에서 활동하는 아마추어 극단들의 경연 축제로, 올해 무대에서는 12개 극단이 참여해 극단별 다양한 색깔의 무대를 선보인다.

5월 31일(금) 실버벨 노인복지관, 강서노인복지관 은빛나래연극단, (사)대한노인회사상구지회
6월 1일(토) 시민극단 을숙도, 행복나눔공연단, 상리종합사회복지관, 몸투레, 시민극단 감동진
6월 2일(일) 청소년극단 이호, (사)창공우암, 오로라, 배우로 배우다

국민연극 라이어 1탄

일 시 5월 31일(금)-9월 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KNN시어터
입장료 전석 3만원(예매시 평일 1만9천원, 주말 2만 2천원, 학생 50% 할인)
문 의 (주)디오르골씨어터컴퍼니 664-7880

1999년 초연 이후 누적 관객 600만명을 돌파한 국민연극 '라이어 1탄'.
평범한 택시기사 존 스미스가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진 2명의 부인 메리와 바바라를 두고 철저한 이중생활을 하는 내용으로, 기막힌 거짓말을 통해 속고 속이는 인간사를 통쾌하게 풀어냈다.
특히 빠른 전개와 더불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상황속에 예측할 수 없는 반전으로 단순한 코미디극을 뛰어넘는 흥미진진함을 선사한다.

극단 누리에 하얀 앵두

일 시 6월 7일 금요일 오후 7:30, 8일 토요일 오후 3:0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입장료 전석 2만원
문 의 극단 누리에 621-3573

2009년 초연 당시 대한민국 연극대상 작품상, 한극연극 베스트7, 동아연극상 희곡상, 남자 신인상을 수상한 연극 '하얀 앵두'.
강원도 영월 산골에 반아산이 전원주택을 얻어 내려온다. 50대의 잊혀져가는 작가인 그는 텅 빈 마당을 보며 하얀앵두가 있던 할아버지의 정원을 복원하고자 한다. 어느날, 이 집의 늙은 개 원백이가 동네 암캐를 '겁탈'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암캐 주인인 곽지복 노인이 노해서 반아산의 집에 들이닥친다. 곽 노인은 이 집 마당의 개나리 고목이 어떤 나무인지를 순간적으로 알아보고 과거를 회상하는데….

뮤지컬 갈라 'THE SCENE'

일 시 6월 8일 토요일 오후 5: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VIP석 4만원, R석 3만원, A석 2만원
문 의 해운대구문화회관 749-7651

뮤지컬 배우뿐만 아니라 트로트 가수 등 다방면으로 활약하는 팔방미인 배우 김호영과 믿고 보는 배우로 사랑받고 있는 리사가 함께 하는 뮤지컬 갈라 'THE SCENE'.
2002년 뮤지컬 '렌트'로 데뷔한 김호영은 뮤지컬 '라카지', 모차르트 오페라 '락', '아이다', 연극 '이' 등에 출연하며 섬세한 연기로 뮤지컬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2003년 가수로 데뷔한 리사는 매력과 특색 있는 음색, 폭발하는 가창력을 지닌 뮤지컬 배우로, 그동안 뮤지컬 '록키호러쇼', '투란도트', '지킬 앤 하이드', '레베카' 등에 출연해왔다.

연극 앙리할아버지와 나

일 시 6월 15일 토요일 오후 3:00, 7:00,
16일 일요일 오후 2:00, 6: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R석 7만7천원, S석 6만6천원, A석 5만5천원
문 의 (주)컬쳐박스 1644-3901

까칠한 성격의 고집불통 할아버지 앙리와 꿈을 찾아 방황하는 상큼발랄 대학생 콘스탄스가 서로의 인생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을 유쾌하게 그린 연극 '앙리할아버지와 나'.
프랑스 극작가 이방 칼베락의 작품으로 지난 2015년 바리에르 재단 희곡상을 수상하고 영화로 제작된 바 있다.
까칠한 할아버지 앙리 역은 배우 이순재와 신구가, 대학생 콘스탄스 역은 소녀시대 멤버이자 배우 권유리와 배우 채수빈이 맡아 호흡을 맞춘다.

샌드아트뮤지컬 시리즈 세 번째 작품 세대공감 음악극 사는게 꽃같네

일 시 6월 18일-21일 화-금요일 오후 7:30,
22일 토요일 오후 2:00, 5:00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입장료 전석 4만원
문 의 (주)문화콩 1688-8998, www.mcong.kr

한 집에 살지만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옥 할머니네 가족 사이에서 벌어지는 세대간 갈등과 사랑 이야기를 소재로 한 '사는게 꽃같네'는 가까이 있으면서도 무심했던 우리 가족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가족과의 소통을 이야기한다.
모래로 그림을 그리는 샌드아트와 뮤지컬이 결합된 ㈜문화콩의 샌드아트 뮤지컬 세 번째 작품으로, 배우들의 샌드아트 라이브 퍼포먼스와 그랙픽 영상이 동시에 구현되어 마법같은 무대를 선보인다.
● 작/최한초 ● 연출/이선주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일 시 6월 28일 금요일 오후 7:30, 29일-30일
토-일요일 오후 2:00, 7: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장료 VIP석 15만원, R석 13만원, S석 10만원,
A석 7만원
문 의 (주)에스제이엔터 1599-2005

인간의 내면에 자리잡은 두 개의 본성, 선과 악을 섬세하게 표현한 드라마에 세 남녀의 로맨스가 더해져 '브로드웨이 뮤지컬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스릴러'라는 호평을 받은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지금 이 순간', 'This is the Moment', 'Someone Like You', 'Once Upon a Dream' 등 작품과 앙상블을 이루는 강렬하고 아름다운 넘버로 관객을 사로잡는다.
● 출연/박은태, 민우혁, 전동석, 윤공주, 아이비, 해나, 이정화, 민경아 등

무용 | Dance

부산시립무용단 區 문화회관 순회공연
춤의 공감(共感)

일 시 6월 4일 화요일 오후 7:30 북구문화빙상센터
11일 화요일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20일 목요일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입장료 무료
문 의 부산시립무용단 607-3121~2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와 지역민과의 소통을 위해 부산시립무용단이 마련하는 區 문화회관 순회공연 '춤의 공감'.
북구문화빙상센터, 을숙도문화회관, 동래문화회관 등 3개 구 문화회관에서 펼쳐지는 이번 순회공연에서는 전통궁중무용과 신무용인 화관무를 새롭게 재구성한 '천하태평지무' 등 부산시립무용단의 수준 높은 다양한 춤 레퍼토리를 감상할 수 있다.
● 안무,구성/서정숙(훈련지도자)

이야기가 있는 최지애의 춤 4th
아버지의 마음

일 시 6월 13일 목요일 오후 8: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 의 최지애 010-7570-0139

경희대학교 무용학과와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제나 댄스 아카데미 원장으로 있는 춤꾼 최지애가 마련하는 이야기가 있는 춤 네 번째 무대 '아버지의 마음'.

프로그램
새롭고 산 길이 열리다(춤/김유나)
수선화(소녀의 회상)(춤/조혜수)
장구춤(향기로운 축제)(춤/홍여진, 김유나, 이채현)
태평무(내게 강 같은 평화)(춤/최지애)
산조(물댄 동산)(춤/이채현)
소고(극복)(춤/이채현, 조혜수, 홍여진, 김유나) 등
● 사회/최지현, 이경령

生의 자리

일 시 6월 14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초대
문 의 전철우 010-5426-1185

부산대학교 무용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동대학원에 재학중인 춤꾼 전현우의 무대.
부산시무형문화재 제14호 동래한량춤 이수자로 있는 전현우는 제34회 KBS부산무용콩쿠르 일반부(한국무용 전통) 금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전통의 승무와 삼도 설장구(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형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창작춤판 '생의 자리'를 선보인다.
● 안무/전현우 ● 연출/김동현 ● 작/김지훈
● 출연/전현우, 윤혜선, 김정민, 김가람, 김한솔
● 연주/ 한용섭, 황선홍

영화 | Movie

부산예술회관 작은영화콘서트
시민과, 영화로 소통하다 '타인의 삶'

일 시 6월 18일 화요일 오후 4:0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입장료 무료(15세 관람가)
문 의 부산예술회관 612-1372, 628-4371

매월 셋째주 화요일, 한 편의 영화를 감상하고 영화에 대한 수다로 소통하는 부산 예술회관 작은영화콘서트 '시민과, 영화로 소통하다' 2019년 6월 상영회.
영화 상영 후에는 시나리오 작가이자 부산영화인협회 서영조 회장이 영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코드들을 소개하며 관객들이 놓친 장면에 숨어 있던 의미와 이미지들을 짚어준다.
6월에는 비밀경찰 비슬러의 시선을 통해 동독의 비인간적이고 억압적이었던 인권 탄압을 다룬 영화 '타인의 삶'(독일, 2006년 작, 상영시간 137분, 15세 관람가)을 상영한다.

정두환의 음악강좌 '좋은음악 & 좋은만남'
거장의 음악_영화음악 편

일 시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보수동책방골목문화관
입장료 무료
문 의 정두환 011-574-0423

'문화유목민' 정두환이 진행하는 화요음악강좌 '좋은 음악 & 좋은 만남'.
'좋은음악&좋은만남'은 지난 2000년 3월 부산문화회관 음악감상실에서 시작된 후 지난 5월 7일 700회를 맞아 특집 음악회를 가진 바 있다.

4일(704회) 시네만 천국-Ennio Morricone
11일(705회) 슈퍼맨-John Williams
18일(706회) 글레디에이터-Hans Zimmer
25일(707회) 이달의 책 읽기 '바닷가 작업실에서는 전혀 다른 시간이 흐른다':슈필라움의 심리학' (김정운 저, 21세기북스)

행사 | Event

시네바움·아트홀바움 6월 아카데미

일 시 월-화요일, 금요일 오후 7:00, 목요일 오전 10:00 시네바움·아트홀바움
입장료 1회 1만5천원(한달 수강료 10만원, 28일 강좌 2만5천원)
문 의 시네바움·아트홀바움 010-2774-3455

3일(월) 오후 7:00 나를 찾아 떠나는 미술여행
- 강사/홍영(아트나우 대표)

4일(화)오후 7:00 심진호 교수의 예술기행(17)
컬트영화의 거장 데이빗 린치의 '광란의 사랑'에 나타난 추醜의 미학
- 강사/심진호(신라대 교양과정대학 교수)

6일(목), 13일(목), 20일(목), 27일(목) 오전 10:00
무료아카데미_지혜와 성찰의 길·論語 깊게 읽기
- 강사/윤산 김수청(부산대 교양교육원 외래교수)

10일(월) 오후 7:00 박기철교수의 이야기 콘서트(8)
우리 가요의 흐름을 따라서_1939년 저고리 시스터즈에서 2019년 마마무까지
- 강사/박기철(경성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11일(화) 오후 7:00 한국 최초의 시사 만화가·잊혀진 화가 이도영을 찾아서
- 강사/최석태(미술사연구가, 미술평론가)

17일(월) 오후 7:00 김명우 교수의 마음공부(3)
현대인을 위한 지옥순례_영화 '신과 함께'
- 강사/허암 김명우(철학박사, 불교학자)

18일(화) 오후 7:00 무의식과 시각예술(4)
이창동 영화 '시'와 '버닝'을 배회하는 초자아와 광기라는 유령
- 강사/강성한(부산대 영화연구소 전임연구원)

24일(월)오후 7:00 동양의 미학(19)
영화 '쉘 위 댄스(Shall we dance)'로 만나는 일본인의 페르소나(Persona)
- 강사/안수현(문학박사, 문학평론가)

25일(화) 오후 7:00 책 읽는 오후(3)
라마찬드란 박사의 BBC 리스 강의 '뇌는 어떻게 세상을 보는가'_함께하는 영화 '공각기공대'
- 강사/박기헌(지식탐험가, 박기헌치과원장)

28일(금) 오후 7:00 어른을 위한 최소한의 현대수학_뺄셈, 정수, 음의 유리수, 유리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과 속지 않는 방법—베이즈 확률
- 강사/이승목(디지털앤아날로그 대표이사)

무지크바움 클래식 인문학 강좌

일 시 6월 8일(토) 오후 3:00, 11일(화) 오후 7:30, 24일(월) 오후 7:30, 25일(화) 오후 7:30
무지크바움
입장료 전석 2만원(24일 공연은 전석 1만5천원)
문 의 무지크바움 070-7692-0747

8일(토) 오후 3:00
철학 특강 '레비나스와 데리다의 사유 입문'
경청과 이해, 환대의 어려움 또는 불가능함에 대하여 알아보는 '레비나스와 데리다의 사유 입문'
강사 허경은 고려대 응용문화연구소 및 철학연구소 연구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철학학교 혜윰의 교장으로 있다.
- 강사/허경

11일(화) 오후 7:30 음악으로 읽는 인문학 제1강
21세기의 새로운 예술해석

생활 속 인문학을 발견하기 위해 음악을 중심으로 문학, 미술, 심리, 철학 등을 융합한 음악평론가 곽근수의 새로운 인문학 강좌.
6월부터 3개월간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화요일에 진행된다.
- 강사/ 곽근수

24일(월) 오후 7:30 색이 삶을 말하다_미술의 눈이 된 색채, 화가를 말하다- 르네 마그리트 편
색채로 만나는 6월의 화가는 벨기에 태생의 초현실주의 작가이자 20세기 서양미술계의 거장인 르네 마그리트로, '본다'는 것의 상식을 전복시키며 철학에도 큰 영향을 준 그의 작품과 색채에 대해 알아본다.
- 강사/박미송(퍼스널컬러전문가)

25일(화) 오후 7:30 음악으로 읽는 인문학 제2강
바로크 시대의 오케스트라
바로크 기악의 선구자로 평가되는 조반니 가브리엘리를 비롯해 몬테베르디, 륄리, 코렐리, 바흐, 헨델, 비발디를 통해 바로크시대의 오케스트라에 대해 알아본다.
- 강사/ 곽근수(음악평론가)

김옥균의 힐링클래식음악여행

일 시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롯데백화점부산본점 문화센터
입장료 수강료 12만원(3개월)
문 의 김옥균 010-6367-0149

MBC 부산문화방송에서 'FM가정음악실', '별이 빛나는 밤에' 등 음악프로그램을 연출한 前MBC PD 김옥균(현재 클래식음악해설가, 시인, 음악치료사)이 진행하는 클래식음악 해설감상회.

프로그램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황제', 포레 '시칠리안느'
리스트 '헝가리 광시곡', 마스네 '타이스의 명상곡'
그리그 '페르귄트 모음곡', 멘델스존 '바이올린협주곡'
드보르작 '첼로협주곡', 쇼팽 '화려한 폴로네이즈'
브람스 '헝가리무곡', 비제 '아를르의 여인' 모음곡

제14회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마술은 부산이 제맛 아이가

일 시 6월 25일(하)-30일(일) 영화의전당, 해운대구 구남로, 시청자미디어센터
문 의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626-7002
www.hibimf.org

세계 유명 마술사들과 국내 프로 및 아마추어 마술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국내 유일의 마술 축제.

매직갈라쇼
25일(화)-30일(금)
오후 7:30
영화전당 하늘연극장
아시아인 최초로 세계마술챔피언십(FISM) 그랑프리를 수상한 유호진을 비롯해 스페니쉬들이 뽑은 최고의 마술사 더블판타지, 2019 아시아 갓탈랜트 우승자 에릭 첸 등 세계적인 마술사들의 환상적인 무대를 감상할 수 있는 매직갈라쇼.
- 출연/유호진, 더블판타지, 현철용, 에릭 첸, 김상순, 맥스 메이브, 벤 블랙

안성우의 마술인생 50년 이야기
25일(화)-30일(일)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시청자미디어센터
국내 마술계의 스승이라 불리는 유지 야스다의 인생을 전시회, 토크쇼, 스페셜쇼(갈라쇼) 등을 통해 알아가는 특별한 시간.
- 스페셜 MC/일루셔니스트 이은결

국제매직버스킹챔피언십
27일(목)-30일(일) 해운대 구남로
마술버스킹 최강자를 가리는 국제매직버스킹챔피언십.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대회로, 15팀의 버스커들이 출전, 시민투표와 현장심사를 통해 올해의 버스킹 팀을 선발한다.

렉쳐
28일(금)-29일(토) 시청자미디어센터
한영훈, 맥스 메이브, 에릭 첸, 더블 판타지 등 세계적인 마술사로부터 직접 그들만의 특별한 노하우, 아이디어, 철학 등을 배우는 강연 프로그램.

국제마술대회
28일(금)-30일(일)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동영상심사와 현장예선을 통과한 신인 마술사들의 새롭고 독창적인 무대를 만날 수 있는 '국제마술대회'.

전시 | Display

고은사진미술관 부산프로젝트 2019
조춘만 인더스트리 부산

일 시 5월 18일(토)-8월 7일(수) 고은사진미술관
문 의 고은사진미술관 746-0055

홍익대학원 동문전

일 시 6월 4일(화)-6월 11일(화) BNK부산은행갤러리
문 의 BNK부산은행갤러리 246-8975

빵과 장미展

일 시 6월 21일(금)-6월 27일(목) BNK부산은행갤러리
문 의 BNK부산은행갤러리 246-8975

'HELLO KITTY, HELLO AGAIN'展

일 시 5월 29일(수)-6월 30일(일) 롯데갤러리 광복점
문 의 롯데갤러리 광복점 678-2610

지난 1974년부터 2019년에 걸쳐 매년 최신 유행에 맞춰 진화해온 헬로키티의 오리지널 대표 아트웍과 45주년 기념 아트웍을 선보이는 특별전.

타워아트갤러리 기획 삶에 향기를 더해주는 작품전
- 한국화, 서양화, 조각, 도예 -

일 시 6월 3일(월)-6월 29일(토) 타워아트갤러리
문 의 타워아트갤러리 464-3939

김민정 초대전
Fantasy Farm 환상의 농장

일 시 6월 11일(화)-6월 30일(일)
영도문화예술회관 선유갤러리
문 의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경성대학교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그동안 젊음의 시선전(부산예술회관), 국제 리사이클링 아트전(부산시청), 아트페어 Another Beginning(사상 인디스케이션 등 다양한 작품활동을 펼쳐온 김민정 초대전.
- 관람시간/오전 10:00~오후 6:00

안금주 개인전 '내 안의 풍경 II'

일 시 6월 12일(수)-6월 20일(목) BNK부산은행갤러리
문 의 BNK부산은행갤러리 246-8975

두텁고 분명한 마티에르가 특징인 '보리밭'을 주제로 한 안금주 작가의 개인전.
춤추는 보리밭을 통해 현대의 각박한 삶 속에 위로가 되는 소중한 시간을 선사한다.

NEW BOOK
새로 나온 책

북칼럼니스트 **박현주**

미술관에 가면 머리가 하얘지는 사람들을 위한 동시대 미술 안내서

그레이슨 페리 지음, 정지인 옮김
원더박스 / 189p / 1만 4천원

프랑스의 미술가 마르셀 뒤샹이 남성용 소변기에 '샘'이라는 제목을 붙여 세상에 내놓은 것은 1917년이다. 당시에 관객들은 "이게 미술작품이라고?" 하며 놀랐다. 그 이후로도 세상을 놀라게 하는 작품은 연이어 나왔다. 현대미술을 이해하기 어려운 장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많다. 미술관에 들어서면 머리가 하얘지는 것, 그런 경험은 누구나 한번은 해보았을 것이다. 50년쯤 전에는 자기가 싼 똥을 캔에 담아 똥 무게에 해당하는 금값을 받고 파는 작가도 있었다. 요즘에는 뒤샹의 소변기에 진짜 소변을 흘려 내려보내거나, 유명 배우를 유리 상자 속에 누워 있게 하고 사람들에게 감상하게 하는 작품도 있다. 이런 작품들 앞에 서면 누구나 당황스러울 것이다. 영국 아티스트 그레이슨 페리가 동시대 미술을 안내하는 책을 냈다. 그레이슨 페리는 "나는 사람들이 미술관에 갈 때 떠올릴 만한 기본적인 질문들, 그러나 그런 걸 묻는다면 너무 무식해 보일까 봐 대개는 못 묻고 넘어가는 질문들을 이 책에서 던지고서 그에 답하고 싶다."고 말한다.

우리 단청 화첩

선웅스님 기획, 김민경 김지민 그림, 최학 해설
담앤북스 / 96p / 1만 4천원

한때 컬러링북이 많은 인기를 끌었다. 색칠을 하다보면 복잡한 일도, 스트레스도 어느새 잊어버린다는 점에서 마음의 안정을 얻게 했다. 이번에는 우리 전통문양인 단청을 색칠하는 책이 나왔다. 어른용 단청 컬러링 북이다. 단청에는 우리나라 고유의 미적 감각이 녹아 있다. 1차적으로는 불교의 궁극적 이상향인 화엄세계를 상징한다. 하지만 종교를 떠나 단청은 문양별로 부귀, 다복, 번영, 길상 등 사람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의미도 갖고 있다. 그래서 단청 문양을 그리는 것은 좋은 징조들을 가슴에 품는 일이기도 하다. 이 책은 제주 관음사 부주지인 선웅스님이 기획했다. 그림은 동국대 출신 미술학도들이 그렸다. 최학 해설자는 재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다. 단청의 기본용어부터 구체적인 기법을 설명하고 있다. '기초도안으로 손 풀기' 코너에서는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도구(물감, 색연필)을 테스트할 수 있다. 본격적으로 채색할 수 있는 시안 그림은 35점을 수록했다. 병풍처럼 접혀 들어간 '영락도'는 펼쳐서 칠한 후 벽에 걸어둘 수 있다.

뉴욕 영화 가이드북

박용민 지음 / 헤이북스
415p / 2만 4천 800원

세계 영화시장에서 미국 영화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미국 영화의 절반 정도는 그 배경이 뉴욕이다. 저자는 외교관이자 영화 팬이다. 이 책은 뉴욕의 볼거리, 교통, 호텔, 식당, 쇼핑 그리고 그에 관한 434편의 영화들을 소개한다. 영화 팬들에게는 뉴욕을, 뉴욕 여행자들에게는 영화를 소개하는 가이드북이다. 뉴욕에 직접 갈 수 없다고 해도 여행하는 기분이 들고, 그 관심이 영화로도 이어지게 한다. 책 속 한 대목을 소개한다. "뉴욕항 앞바다 리버티섬에 자유의 여신상이 서 있다. 130년 넘도록 뉴욕 앞바다를 늠름하게 지키고 있는 이 조형물은 영화 속에서 온갖 고초를 겪었다. 유명한 도시의 대표적 상징물로서 치르는 대가랄까. [인디펜던스 데이]에서 외계 우주선의 공격으로 파괴되는가 하면, [딥 임팩트]에서는 해일에 휩쓸려 부서졌다. [에이 아이]에서는 상승한 해수면 아래서 횃불만 간신히 물 밖으로 내밀고 있더니, [투모로우]에서는 한파로 꽁꽁 얼어붙고, [클로버필드]에서는 괴물의 공격으로 잘린 머리가 맨해튼 거리까지 날아와 나뒹굴었다."

극장장의 손 편지

(재)부산문화회관 대표 **이용관**

부산오페라하우스 논란에 대하여

지난 3개호에 걸쳐 '극장장의 손편지'에서 다뤘던 시립예술단 문제를 일단락 짓고 이제는 다른 주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실 부임하자마자 그 문제에 매달리느라 다른 이야기를 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엊그제 '부산오페라하우스(또는 복합문화공간) 관리운영방안 연구' 최종보고회가 시청에서 있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오페라하우스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느냐였지요. 혹자는 부산문화회관 운영자가 주제넘게 오페라하우스 문제를 여기서 왈가왈부하는가 하시겠지만, 저 또한 오페라하우스운영협의체 일원이기도 하고, 또 오페라하우스 이후 부산의 문화지형도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문화회관 운영자로서 참고가 될 만한 것을 조금 보태려고 이러는 것이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오페라하우스를 두고 부산예술계서는 10여 년 동안 많은 논쟁과 공방이 오갔습니다. 거대한 문화시설 건립과 운영을 놓고 논쟁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지요. 건립의 당위성에서부터 건립비용의 충당, 운영의 방향과 방식, 운영의 주체, 제작이냐 기획이냐, 그에 따라 운영예산은 얼마나 필요한가에 이르기까지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 수두룩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세우는 시설이니 마땅히 그래야하기도 합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랬습니다. 일본의 신국립극장도 계획에서 완공까지 30년이 걸렸습니다. 싱가폴이 자랑하는 에스플러네이드도 28년이 소요됐습니다. 거대 문화시설 운영의 역사가 수 천 년에 이르는 유럽 같은 곳에서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더구나 부산오페라하우스는 '건립이 필요하다 또는 말도 안 된다' 하는 원초적인 공방부터가 오래 지속되었고 공사가 시작된 지 2년이 다 된 지금도 완전히 마무리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딜레마가 부산오페라하우스 논쟁에 여전히 있다는 것을 보고회를 통해서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세계적인 오페라하우스의 경우 공간이 크게 세 개로 나누어 집니다. 제작공간, 공연공간, 저장공간이 그것입니다. 이 중 제작공간과 저장공간은 합해서 공연공간의 세배쯤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공간이 너무 방대하니 그 중 저장공간은 다른 장소에 마련하기도 합니다. 일본 신국립극장은 공연 후 남게 되는 의상, 무대장치, 소품 등을 저장하는 공간을 수십킬로나 떨어진 곳에 따로 짓고 거기서 그런 것들을 전시 형식으로 일반에 공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공간 구성은 말할 것도 없이 거의 100%를 자체제작하기 때문입니다. 건립비용이 1조 2천억이니 최소 7천억이니 하는 것도 다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이에 비하여 부산오페라하우스는 2천5백억 원으로 공연공간만 짓게 됩니다. 제작공간과 저장공간까지 하려면 지금 면적의 세배가 필요할 것입니다. 비용도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구요. 그렇게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재원이 있어 가능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할 만큼 서양예술인 오페라라는 장르가 우리에게 그렇게 절실한 것도 아닙니다. 만일 그런 선택을 한다면 훨씬 더 거대한 논란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부산오페라하우스는 제작 중심이 아니라 작품을 외부에서 조달하는 기획 중심의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다만, 기초적인 제작 기능만은 꼭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현실이 이러한데도 오페라하우스에 '세계적'이니 '대한민국을 대표'해야 한다느니 하는 기대와 주문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페라하우스라는 이름과 그에 대한 기대와 주문이 남아 있는 한 딜레마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든 정리하지 않고 오페라하우스를 운영하려면 무척 힘이 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남은 것은 이런 현실에서 다시 고민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부산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부산형 복합문화공간이란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일종의 승화를 이룬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복합문화공간으로 간다고 했을 때 또 다시 남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오페라하우스 하나만으로 복합문화공간화가 완성될 수는 있을까요?

부산형 복합문화공간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전국이 똑같은 무대구조를 가지고, 더구나 대소 두개의 극장으로서 어떻게 부산형과 복합공간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인지 좀 의아했습니다. 그러다가 오페라하우스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 부산 예술생태계의 바람직스러운 길을 찾을 때, 그것이야말로 부산형 복합문화공간화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말하자면 기존의 부산문화회관과 또 새로 들어설 국제아트센터까지 포함하여 부산의 대형 공간별 특성화가 이 문제에 대한 좋은 답이 될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마침 연구진은 최종보고에서 오페라하우스를 오페라, 뮤지컬, 발레 등 음악극 장르로, 국제아트센터는 클래식음악 전용으로 시립음악예술단을 수용하고, 음악단체들이 빠져 나갈 부산문화회관은 극예술/전통 중심의 특성화를 제안했습니다. 지역예술가들과의 긴밀한 협업공간 역할을 하면서 말입니다. 이 제안은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현실을 인정하고 현실에서 공간별 특성화를 통해 가치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산의 예술 생태계를 단단하게 하는 길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모델은 전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구시가 유일하게 오페라하우스, 문예회관, 콘서트홀 세 개를 가지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공간별 특성화나 프로그램 운영규모에서는 아직 완성된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는 이 세 곳을 특성화하고 그에 걸 맞는 프로그램 운영규모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복합적 생태계가 완성될 것이고, 부산형 복합문화공간(들)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거기에다 자치구 문예회관들까지 저마다의 특성화 개념을 가지기도 하고 요즘 대세인 생활문화 기능까지도 제대로 수용한다면 부산예술생태계를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화가 완성되지 않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부산시립무용단 區 문화회관 순회공연

4일 북구문화빙상센터, 11일 을숙도문화회관
20일 동래문화회관

부산시립무용단이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와 지역민과의 소통을 위해 6월 한달간 區 문화회관을 순회하며 우리 춤의 다양한 멋과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춤의 공감(共感)'이라는 테마로 열리는 이번 순회공연에서는 전통 궁중무용과 신무용인 화관무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천하태평지무'를 비롯해 관아의 행사때 여흥으로 추던 '한량무', 무당 특유의 자태와 교태가 시선을 사로잡는 '무당춤', 한국의 대표적인 고전 '춘향가' 중 이도령과 춘향이 사랑을 나누는 대목을 춤사위로 그려낸 '사랑가', 농악의 벅구놀음의 독특한 춤사위와 가락으로 구성, 경쾌하게 휘몰아치는 장단이 역동적인 '소고춤', 나비가 노니는 풍경을 춤으로 표현한 듀엣과 농악에서의 12발 상모를 돌리며 추는 춤이 어우러진 '아리랑과 12발 상모', 유일하게 양손에 북채를 들고 추는 북춤으로 다양한 가락과 민첩한 동작이 인상적인 '진도북춤' 등 부산시립무용단의 수준 높은 다양한 춤 레퍼토리를 만날 수 있다.

부산시립무용단 區 문화회관 순회공연은 6월 4일 북구문화빙상센터를 시작으로 11일 을숙도문화회관, 20일 동래문화회관에서 무료로 열린다.

6월 찾아가는 부산시립예술단

평소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문화소외계층을 찾아가는 부산시립예술단 맞춤공연 '찾아가는 부산시립예술단'이 6월에도 부산 전역에서 펼쳐진다.

6월 5일 부산시립무용단의 해동중학교 초청공연을 시작으로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무용단, 청소년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이 부산광역시청, 학교 등 다양한 장소에서 시민들과 만난다. 이 밖에 지난 4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문화가 흐르는 도시철도 공연'은 마지막 주 금요일인 6월 28일 부산도시철도 5개역에서 펼쳐진다.

6월 5일(수) 14:15 해동중학교 강당_무용단
6월 6일(목) 10:00 중앙공원 위령탑_소년소녀합창단
6월 12일(수) 09:50 명진초등학교_교향악단
6월 12일(수) 15:40 성모여자고등학교_교향악단
6월 13일(목) 10:50 하남초등학교_국악관현악단
6월 13일(목) 14:00, 16:00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_교향악단
6월 14일(금) 10:00 부산광역시청 대강당_국악관현악단
6월 19일(수) 11:25 다대초등학교 강당_무용단
6월 21일(금) 09:00 장림초등학교_교향악단
6월 21일(금) 19:00 동아대학교 부민동캠퍼스 특설무대_소년소녀합창단
6월 25일(화) 11:00 부산광역시청 대강당_소년소녀합창단
6월 27일(목) 09:50 천마초등학교_청소년 교향악단
6월 28일(금) 10:50 주학초등학교_국악관현악단
6월 28일(금) 17:00 문화가 흐르는 도시철도 공연
⇨ 교향악단(센텀역), 국악관현악단(시청역), 무용단(연산역)
청소년교향악단(서면역, 사상역)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원 명단

회장

최수기	부일정보링크(주) 회장

부회장

변원탄	의료법인 양산병원 이사장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
도용복	(주)사라토가 회장
김정기	(주)경동건설 대표이사
임현경	사상온누리약국

사무처장

윤영기	(주)선광 대표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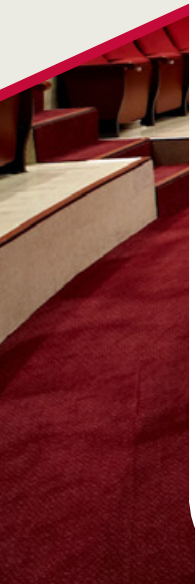
이사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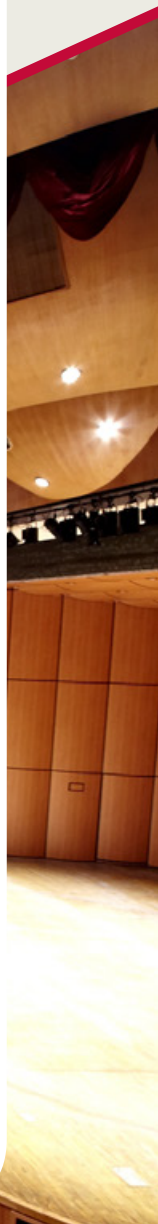
강서룡	효승테크 대표이사
곽국민	(주)파크랜드 대표이사
김기호	(주)이디에스 보안물류 대표이사
김성우	(재)해뜨락 요양병원 이사장
김신호	(주)덕신체인 대표이사
김암우	세무법인 중추 대표이사
김홍재	(전)연제구의장
류용주	삼신교통(주) 회장
박영기	에스더블유팜 대표이사
박장호	(주)피에스제이 대표이사
서현석	한국고무산업 대표이사
손명찬	서원건설산업(주) 대표이사
윤철원	(주)정우 대표이사
이수영	(주)유환 대표이사
임성국	하이원해운항공 대표이사
임정덕	예술과부산 대표이사
장문호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장세비	우리은행 투체어지점 지점장
정문흠	(주)태영버스 대표이사
정연택	디씨엠(주) 대표
정용환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 2019년 5월 기준 가입자 명단(이후 추가 가입회원 다음호 게재)

일반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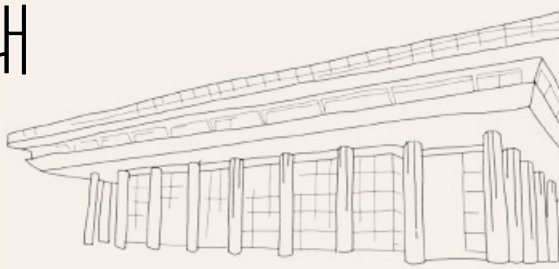
강남주	(전)부경대총장
권한상	부경대학교 교수
김 균	(주)선경화성 대표이사
김말순	인창요양병원 대표이사
김성수	(주)태영유니텍 대표
김영수	세종월드건설 대표이사
김영욱	김&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이사
김종부	다올테크 대표이사
김종식	주식회사 J J K 회장
김진동	원창에프론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철	춘해병원 의무원장
김형우	(주)천마 대표이사
김희규	효성의약품(주) 대표이사
노경원	인제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노은식	디케이락 주식회사 대표이사
노재청	해운대 로드비치호텔 회장
도재철	(주)좋은세상 대표이사
박성복	
박성환	대동병원 이사장
박혜빈	세종기획 이사
박홍근	구포성심병원 이사장
성승모	부일정보링크(주) 대표이사
신명희	(전)해운대 동백합창단 단장
신상현	리더스금융판매 위드컨설팅 대표
이경칠	세무법인 프로텍 세무사
이경헌	성모안과병원 병원장
이성임	엘가 대표
이에리카정애	르네상스피부과 원장
이정일	SK증권(주) 이사
이진영	돌고래마취통증의학과의원
임은자	
정민섭	정민섭 산부인과 원장
정영희	공연예술 전위 실장
정의화	(전)국회의장
조성락	속편한내과 원장
조중래	라이프온(주) 대표이사
조충영	법무법인 국제 변호사
진경옥	세무법인 영지 대표이사
하정태	주식회사 일신케미칼 사장
한원우	법률사무소 담헌 변호사
허 준	신세계 안과의원 대표원장
현임숙	브니엘예술고등학교 부장





SIGN-UP SHEET OF ORDINARY SESSION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가입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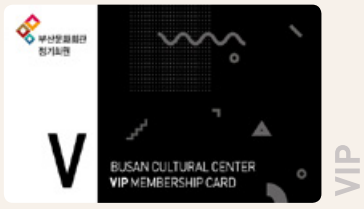


회원가입

가입신청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전화 051)607-6074~6
무통장입금 부산은행 101-2042-6796-01 [예금주/(재)부산문화회관]
단체가입 할인 20명 이상(10%), 30명 이상(20%), 50명 이상(30%)

공통혜택

- 가입기간(1년)
- 정기회원 카드 발급
-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우송
- 공연정보(SMS) 제공
- 부산시내 외부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주최 측 협의에 한함)
-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10~20%)
- 부산문화회관 주차요금 할인(회원카드 제시 시 50%)
- 부산시립예술단원과 함께 떠나는 테마여행(매월 1회 추첨, 여행 일정 변경될 수 있음) 등



VIP

연 회 비 : 10만원
초 대 권 : 8매(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 4매,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4매)
할인매수 : 6매(공연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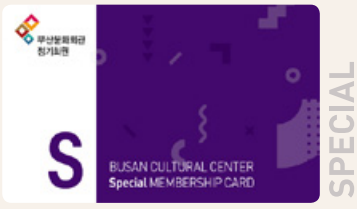
특별혜택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지정된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5개 단체) 공연 초대권 각 4매 증정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객석 수에 따라 선착순 예약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좌석에서 예약가능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예약)
- 부신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50%)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10매

※ 지정된 기획공연은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를 통해 따로 공지

※ 부산시립예술단: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SPECIAL

연 회 비 : 5만원
초 대 권 : 4매(부산시립예술단 공연 4매)
할인매수 : 4매(공연당)

특별혜택

부산시립예술단(5개 단체) 공연 초대권 4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예약)
- 부신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6매

MEMBER

연 회 비 : 3만원
초 대 권 : 2매(부산시립예술단 공연 2매)
할인매수 : 2매(공연당)

특별혜택

부산시립예술단(5개 단체) 공연 가입단체 초대권 2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 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4매

※ 가입단체 초대권증정, 비가입단체는 예술단공연입장료의 할인율이 달라질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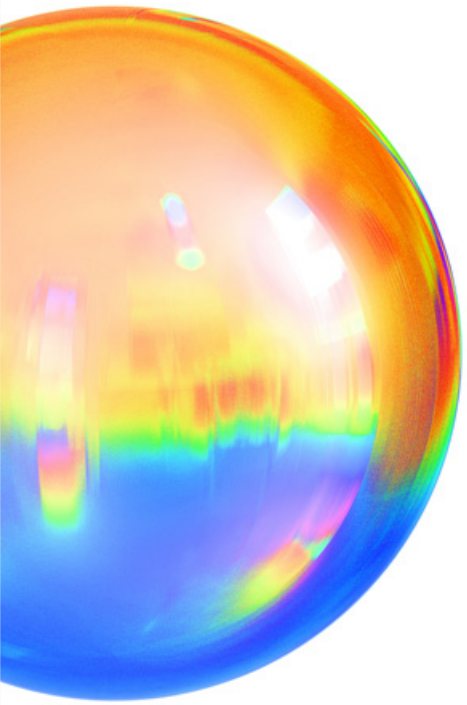
가입 문의 :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 TEL. 051)607-6074~6 FAX. 051)607-6079 *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제외)

VIP

(재)부산문화회관 VIP 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회원을 위한 음악회 등 다양한 혜택으로 보다 많은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초대권 4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초대권 사용이 가능한 공연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공지되며, 공지된 공연 중 원하는 공연을 선택하셔서 **전화로 사전예약**하시면 됩니다. 아래 공연은 2019년 예약이 가능한 기획공연으로 공연예매 시작과 함께 전화로 예약가능하며, 이후 공연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2019 노자와 베토벤 '고진감래(苦進感來)' 예약중

3월 30일(토), **6월 22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회당 선착순 80매)

철학과 클래식의 만남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노자와 베토벤' 2019년 무대.

현대무용협동조합 '가을운동회' [종료]

4월 13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S석에 한해 1인 2매, 선착순 40매)

대한민국 최고 현대무용가들이 펼치는 컨템포러리 댄싱스타들의 무대.

2019 마티네 콘서트 예약중

4월 24일(수), 5월 22일(수), **6월 26일(수), 8월 28일(수)**
10월 2일(수), 11월 20일(수) 오전 11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당 선착순 40매)

저녁시간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관객들을 위한 대표적인 클래식 입문 프로그램 '마티네 콘서트' 2019년 무대.

세계적인 아트서커스 BACKBONE [종료]

5월 1일(수) 오후 2:30, 2일(목)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R석에 한해 1인 2매, 회당 선착순 30매)

경이로운 곡예와 따뜻한 위트, 환상적인 무대예술의 완벽한 조화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세계적인 아트서커스단 BACKBONE의 무대.

유라시아 챔버 뮤직 '실내악의 초대' [종료]

5월 27일(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1인 2매에 한해 선착순 20매)

세계 속의 한국 최정상 음악가들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연극 '인형의 집, Part 2' 예약중

6월 1일(토) 오후 3:00, 7: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1인 2매에 한해 회당 선착순 20매)

2017년 토니 어워드 8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되어 작품성을 인정받은, 집으로 돌아온 '노라'의 이야기.

연극 '신의 아그네스' 예약중

6월 20일(목)–21일(금) 오후 7:30, 22일(토) 오후 3:00, 6:00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1인 2매에 한해 회당 선착순 20매)

앵콜공연으로 관객들을 다시 찾아온 존 필마이어의 작품.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 홍보마케팅팀(607-6074~6)

VIP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제2회 부산국제오페라 콩쿠르〉는 미래를 짊어 지고 나갈 오페라 음악계의 국내외 인재를 발굴·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9 제2회 부산국제 오페라 콩쿠르

해외 예선 2019. 07. 12 (금 /14시)
Sala Piatti 및 Sala Locatelli Bergamo ITALY

국내 예선 2019. 08. 13 (화/14시)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국내 본선 2019. 09. 07 (토/17시)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 공동주최 | 부산문화회관, 예현드림, 고신대학교, 이태리 베르가모 도니제띠 콘서바토리 | 후원 | 부산광역시

일시 및 장소

- 개최 일시 및 장소
  - 해외 예선 : 2019. 07. 12 (금요일 14시) Sala Piatti 및 Sala Locatelli Bergamo ITALY (비공개)
  - 국내 예선 : 2019. 08. 13 (화요일 14시)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비공개)
  - 국내 본선 : 2019. 09. 07 (토요일 17시)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공개) (본선 진출자중 해외 참가자에게 항공비 일부 지원 및 숙소 지원)
  - 오페라 〈Rigoletto〉 공연 2019. 10. 11~13일(오페라 3회, 갈라 2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신청 기간 : 해외 예선 2019. 07. 10 (수요일) 17:00까지 / 국내 예선 2019. 08. 10 (토요일) 17:00까지

참가부문

- G.Verdi의 오페라 〈Rigoletto〉 모든 배역 중 주/조역 부분 및 피아노 반주자 부분
  - 배역 : 리골레토(Bar.), 질다(Sop.), 만토바(Ten.), 스파르푸칠레(Bass.), 몬테로네(Bar.), 막달레나(M.Sop), 조반나(Sop. 또는 M.sop.), 체프라노부인(Sop.), 체프라노(Bass), 보르사(Ten.), 마룰로(Bar.)
  - 피아노 반주자
- 참가 신청서에 자신의 지원파트를 반드시 기재한다. (Ex,만토바 또는 피아노 반주 등)

시상내용

배역	파트	상금(단위: 만원)	배역	파트	상금(단위: 만원)	특별상	상금(단위: 만원)
리골레토	바리톤	700	몬테로네	바리톤 또는 베이스	100	부산문화회관 대표 이사상	200
만토바	테너	500	체프라노	베이스	100		
질다	소프라노	500	체프라노 부인	소프라노	100	고신대학교 총장상	200
스파르푸칠레	베이스	300	보르사	테너	100		
막달레나	메조 소프라노	300	마룰로	바리톤	100	반주자	300
조반나	소프라노 또는 메조소프라노	100				총	3,600

- 해당자 없음/공동입상 : 콩쿠르의 권위와 균등평가를 위하여 특정 등위에 대하여 '해당자 없음'을 결정할 수 있으며, 동점 발생시 '공동입상(2명 이하)'을 결정할 수 있음. 이 경우 시상금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입상자에게 배분 지불함.
- 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상과 고신대학교 총장상은 오페라 리골레토 배역 이외의 우수자에게 수상

문의

◆ 전 화 : 051-755-0682, 010-4663-8117 ◆ 이메일 : busanopera2019@daum.net

부산시립합창단 BUSAN METROPOLITAN CHORUS 제175회 정기연주회

만남이 있는 날

6월의 기억

전쟁과 평화

객원지휘 김인재

6월의 기억
Lamentations of Jeremiah
Requiem, Introit
Evening Hymn

우리는
Dancin' out the Door
I Can Feel the Spirit

이제는
You'll Never Walk Alone
Bridge over Troubled Water

2019.
6. 28(금)
오후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 부산문화회관 BUSAN CULTURAL CENTER
주관 |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입장료 | 10,000원
예매 | www.bscc.or.kr
문의 | 051)607-3116(시립합창단), 051)607-6075(정기회원)
할인 | 50%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정, 임산부, 의사자 및 유족, 의상자 및 직계가족, 모범납세자, 경로우대자
30% 단체(30명 이상),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문화예술인패스 소지자, 초·중·고·대학생(학생증소지자)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존 필마이어_원작 / 전승환_연출

신의 아그네스

Agnes of God

2019. 6. 20(목) ~ 6. 22(토)

평일 오후 7시 30분 / 주말 오후 3시, 6시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

주최 **(재)부산문화회관** 주관 **공연예술전위**

문의/예매 **051.607.6000 www.bscc.or.kr** 인터파크 **1544.1555 www.interpark.com** 전석 **20,000원** (중학생 이상 입장)

2019
노자와 베토벤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고진감래

프로그램

드보르자크 슬라브 무곡

로드리고 아랑훼즈 협주곡 협연 하프 황세희

베토벤 교향곡 제5번

차이콥스키 교향곡 제4번

예술감독 **오충근**

철학자 **최진석**

연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2019.6.22(토) 5:0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주최 | 부산문화회관 | 주관 |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 문의 및 예매 | 051-607-6000 www.bscc.or.kr | 입장료 | 전석 2만원(초등학생 이상 입장가능)

Busan Philharmonic Youth Orchestra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60회 정기연주회

피아니스트
김정원 초청
제6대 수석지휘자
이명근 취임연주회

피아니스트 | 김정원

지휘자 | 이명근

운명

Program

주세페 베르디 | 오페라 '운명의 힘' 서곡
Giuseppe Verdi 'La Forza del Destino' Overture

표트르 일리치 차이코프스키 | 피아노 협주곡 제1번 작품 23
Pyotr Ilyich Tchaikovsky Piano Concerto No.1 in B♭ minor, Op.23

루트비히 판 베토벤 | 교향곡 제5번 '운명'
Ludwig van Beethoven Symphony No.5 in c minor, Op.68

2019. 6.24 (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 부산문화회관 BUSAN CULTURAL CENTER 주관 |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입장료 | 2,000원 예매 | www.bscc.or.kr 문의 |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607-3110~1

셔틀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대연역5번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30M "7번가피자" 앞 → 문화회관 주차장 • 출발시간 | 문화회관행 | 월~금 19:00/19:30(공연 있는 날에 한함) | 대연역행 | 공연종료 후(1회 운행)

BUSAN CITIZEN'S HALL
부산시민회관

에그~션 히어로

이상한 이웃

하늘에서 떨어진
해와 달 이야기

제2회 해외아동청소년 예술축제

아이스크림을 무료로 드립니다!

2019 | 7 | 25(목) ~ 8 | 1(목)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 장 료 : R석 3만원 / S석 2만원
문　　의 : 051-630-5200

아시테지 in Busan

7월 25일(목)	부산 <하늘에서 떨어진 해와 달 이야기> 25일(목)-11시, 14시
7월 26일(금) - **27일**(토)	네덜란드 <에그~션 히어로> 26일(금)-11시, 14시 27일(토)-11시, 14시
7월 31일(수) - **8월 1일**(목)	이스라엘 <이상한 이웃> 31일(수)~8월 1일(목)-11시

* 세부 프로그램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매 | www.bscc.or.kr　　**입장연령 |** 36개월 이상 입장가능

주최·주관 | 부산시민회관 BUSAN CITIZEN'S HALL 부산시민회관

협　　력 | ASSITEJ Korea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주)문화CONG Culture Creative Organization+ING

온 동네가 바라는 첫사랑이 시작된다!

연극 장수상회

2019. 7. 5.(금)~6.(토) 금 19:30, 토 1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주최_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부산일보사 입장권_ R석 7만원 / S석 5만원 / A석 3만원 제작_ (유)장수상회문전사

문의 및 예매_ 부산문화회관 051) 607-6000 www.bscc.or.kr

부산문화회관
전시실

빛의 화가들 展

미디어아트로 만나는 인상주의 거장들

2019. 6. 08 - 9. 29

| 주최 · 주관 | 부산문화회관 BUSAN CULTURAL CENTER · 명선 A&C Art & Communication · The Prism

| 후원 | Alliance française Busan · LOTTE · DA MIOR BEAUTY INSIDE BAMBOO · AWESOME ISLAND · 꼬망어 · Herry's cafe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조성진 & 이반 피셔 SEONG-JIN CHO & IVÁN FISCHER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BUDAPEST FESTIVAL ORCHESTRA

지휘 I 이반 피셔

피아노 I 조성진*

PROGRAM

멘델스존 〈한여름 밤의 꿈〉 서곡,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1번*, 브람스 교향곡 1번

2019. 6. 26(WED) 7:3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I 부산문화회관 BUSAN CULTURAL CENTER | 국제신문 티켓 I VIP 16만원, R 13만원, S 10만원, A 7만원 문의 및 예매 I 부산문화회관 051-607-6000 | 인터파크 1544-1555